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제출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연구기관 :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

연구책임자 : 전북여성가족재단 백미록 연구위원

목 차 Contents

I.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II.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 검토	11
1. 지역 여성사 선행연구 검토	11
2.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19
1) 페미니즘 역사연구와 페미니즘 이론(여성학)	19
2) 공간적 전회로서의 지역사/지역학과 로컬리티(locality)	22
3) 최근 지역 여성사 연구(2020~2024) 쟁점 검토	26
3. 지역여성사 연구 방법론과 사료 활용	32
1) 기존 연구와 담론의 재해석: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관계	32
2) 문헌자료의 발굴 : 새로운 사실의 발굴	33
3) 여성의 경험 관련 자료 생산	33
4) 시각매체 : 사진과 영상 등(문화적 매체)	34
4. 소결 : '전북여성사' 개념과 범위	35
III. 타 지역여성사 연구와 사업 현황 분석	39
1. 중앙 및 타 시도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39
2. 타 시도 지역 여성사 사업 현황	41
1) 현지조사 결과	41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45
3. 소결 : 시사점	50

IV. 전북여성사 자료 현황 분석	55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간행물 현황	55
2. 학술 및 민간 간행물 현황	58
1) 전근대 시기	58
2) 근대 시기	61
3) 근현대 시기	64
4) 현대 시기	66
3. 전북여성사 단어 빈도 분석	76
4. 소결: 시사점	80
V. 전북여성사 발간 성과와 과제	83
1. 전북여성사	83
1) 전북여성발전 50년	84
2) 전북여성과 동행: 전북여성회관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까지	86
3) 전북여성 100년사	87
2.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89
3. 소결: 시사점	92
VI. 전북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
1.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97
2. 중장기 추진계획	100
3.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콘텐츠 사업화 전략	103
1) 중점 여성인물 선정(안)	103
2)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공간 조성	106
4. 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112
참고문헌	113
부 록 1 : 전북여성사 자료 목록	117
부 록 2 : 현지 조사 면접조사표	186

표 목차 Table Contents

Ⅰ 표 I-1	면접조사 내용	5
Ⅰ 표 I-2	면접대상자 특징	6
Ⅰ 표 I-3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및 내용	7
Ⅲ 표 III-1	조사개요	40
Ⅲ 표 III-2	국립여성사 전시관 전시 내용 구성	41
Ⅲ 표 III-3	국립여성사 전시관 주요 ‘특별전시’	42
Ⅲ 표 III-4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43
Ⅲ 표 III-5	광주여성두릅길	44
Ⅲ 표 III-6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1)	45
Ⅲ 표 III-7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2)	47
Ⅲ 표 III-8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3)	48
Ⅲ 표 III-9	인물 및 주제 선정 기준	50
Ⅳ 표 IV-1	전북자치도 여성사 관련 간행물 현황	55
Ⅳ 표 IV-2	전근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58
Ⅳ 표 IV-3	근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61
Ⅳ 표 IV-4	근대 시기 전북 여성독립운동 학술자료	63
Ⅳ 표 IV-5	근대 시기 전북 여성교육 학술자료	64
Ⅳ 표 IV-6	근현대 시기 전북 여성농악 학술자료	64
Ⅳ 표 IV-5	근현대 시기 전북 여성농악 학술자료	65
Ⅳ 표 IV-8	현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66
Ⅳ 표 IV-9	현대 시기 전북 여성노동 학술자료	68
Ⅳ 표 IV-10	전북 여성운동(반성폭력) 학술자료	69
Ⅳ 표 IV-11	현대 시기 전북 여성농민·어민·상인 학술자료	71
Ⅳ 표 IV-12	현대 시기 전북 여성 공동체문화 학술자료	72
Ⅳ 표 IV-13	전북 여성친화도시 관련 자료	73
Ⅳ 표 IV-14	전북 이주여성 관련 자료	74
Ⅳ 표 IV-15	전북 여성문학 관련 자료	75

【표 V-1】 『전북여성발전 50년』 목차 및 내용	85
【표 V-2】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목차 및 내용	89
【표 VI-1】 전북 여성사 연구 및 사업 중장기계획(안)	100
【표 VI-2】 연구요약 및 한계	112

그림 목차 Picture Contents

■ 그림 III-1 ■ 타시도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39
■ 그림 IV-1 ■ 전북여성사 관련 키워드 빈도 분석	76
■ 그림 IV-2 ■ 전북여성사 워드 클라우드(100위)	77
■ 그림 IV-3 ■ 전북여성사 워드 클라우드(50위)	77
■ 그림 IV-4 ■ 전북여성사 단어 비율 분포	78
■ 그림 IV-5 ■ 전북여성사 문서 빈도 분포	79
■ 그림 IV-6 ■ 단어 포함 문서 워드클라우드(100위/ 50위)	79
■ 그림 VI-1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농민길	107
■ 그림 VI-2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교육길	108
■ 그림 VI-3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노동길	109
■ 그림 VI-4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인권길(전주)	110
■ 그림 VI-5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인권길(군산)	111

연구요약

I. 서론

□ 연구목적 및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 이전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북여성사 연구의 관점과 분야를 정립하는 것임. 둘째, 전북자치도 여성사료의 일차적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포괄적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전근대-근대-근현대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연구방법

- 관련문헌 검토 : 전북여성사 관련 선행연구 및 그간 발간 자료 등을 검토함.
- 전문가자문회의 : 여성사 선행 연구자 및 여성사 전시관 관리자, 전북여성인물사 선생연구자 등 총 5명
- 면접조사: 여성사 연구 및 사업운영 담당자 총5명
- 키워드 분석 : 여성사 관련 자료 175종에 대한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기초조사: 12월 중 14개시군 및 8개 문화재단 발간자료
- 현지 사례조사: 11~12월중 충북, 광주, 국립여성사전시관 3곳

□ 자료 선정 기준 및 방법

- 포함 기준: 전북 여성/ 전북 사회의 가부장제, 젠더 규범 변화를 다룬 문헌, 논문, 보고서로 신뢰성 있는 발행기관에 의한 1차, 2차 사료.
- 단어 빈도 분석: 문헌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를 통해 주요 트렌드 도출
- 비교 분석: 전북과 다른 지역 여성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 질적 자료 분석: 전문가 및 여성사사업 운영 담당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정성적 데이터 확보 및 분석

II.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 검토

□ 여성학-지역학-역사학의 이론적 자원 공유

- 젠더 규범과 젠더 권력관계 해석 : 역사적 자료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 페미니즘 관점에서 기존 역사와 문헌에 대한 재해석
- 새로운 사실(자료) 발굴: 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공적영역에서 생산된 공적자료(제도 및 정책)와 사적자료(일기, 자서전, 가계부 등) 모두 발굴 사료의 다변화 추구.
- 여성의 경험 관련 자료 생산: 여성의 경험을 서사화하고 서서의 주체를 여성으로 하는 새로운 자료를 축적, 구술자료의 생산이 해당하며 참여과정과 참여주체 또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진과 영상 등 문화적 매체: 텍스트 위주의 문헌자료를 넘어서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지역민의 역사와 기억을 새롭게 저장, 구축, 공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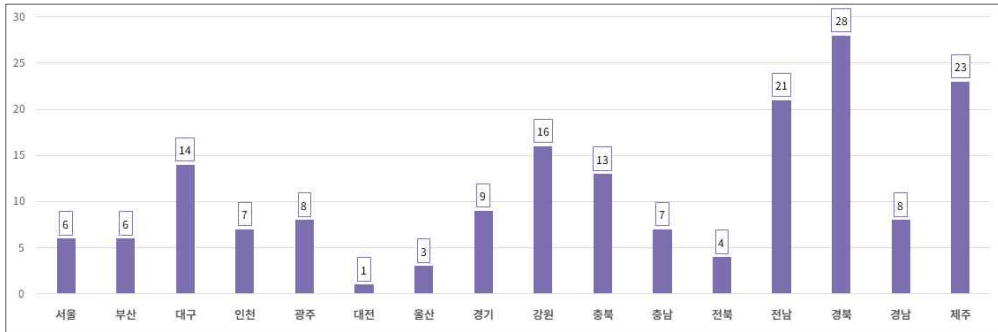
□ 전북여성사 개념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선행연구(인천, 경기, 경남 등)의 지역 여성사 접근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전북여성사’란, “전북에서 출생, 성장, 활동, 사망 등 생애를 보낸 여성의 삶 또는 전북사회의 성별 규범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건, 인물, 문화등에 대한 지역 역사”를 말함.

III. 타지역 여성사 연구와 사업 현황 분석

□ 지역여성사 발간 및 아카이빙 현황

- 강원이 1990년대 지방화시대 처음 발간, 경북 28종 최다, 전북은 4종 발간 하위 3번째임. 아카이빙 현황은 전국 16개 기관 중 10곳이 운영중임.



□ 타지역 여성사 발간 및 사업화 특징 및 시사점

지역 사례	특징	시사점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기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독립운동 1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물사 연구 전근대, 근대, 현대 아우른 기초연구 진행 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기부장적 역사해설과 다른 방식의 여성 인물 서사 발굴 필요 남성과의 관계 중심 국비 예산 투입 성과
광주 여성사 발간 및 두릅길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근대, 근대, 현대 여성사 발간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업 활성화 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교회사와 근대문화 유적과 여성사 융합 문화해설사 및 구술채록 참여로 여성주의 역사 인식 지역에 확산 '광주여성' 정체성을 지역민이 공유
국립여성사전시관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최초 여성사 주제로 한 국립 전시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근거, 현재 여성사 박물관 확장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진행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대상 복합문화공간 '락키비움' 운영 여성사 관련 전문도서 6천종 전시 주제사 전시 기획 호주제폐지부터 방어의 역사까지 심층적.
서울여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조례 및 조직 구성 전시 및 연구, 교육문화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 연구기록 공유를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공간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여성사 사료 바탕으로 운영 우수.

V. 전북여성사 발간 성과와 과제

□ 전북여성사

- 전북에서는 2000년 『전북여성발전50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발간되었고 13년 후인 2013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통사 성격의 『전북여성100년사』를 발간했으며,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신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여성과 동행 50년』을 발간함.
- 『전북여성발전50년』이나 『전북여성100년사』 등 초기 지역 여성사가 여성들의 숨겨진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함. 기존의 통사가 전북의 여성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여성인물을 발굴하면서 전북역사에 여성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 선구적인 역할을 해내던 시기 등을 깨우쳤다는 큰 의의가 있음.

□ 전북여성 생애구술사

- 2023년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생애구술사인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을 발간함. 전북여성 역사 가운데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주제를 추출해 내고 이에 초점을 맞춘 생애구술사 사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전북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정책방향

- 여성사 사료 생산과 연구 확대 : 적극적 구술생애사 작업, 전북여성들의 사적 기억(사진, 일기, 가계부, 편지, 자서전 등) 수집,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 형태 포함. 중장기 여성사발간 추진 및 주제사포함 세부 연구과제 추진이 요구됨.
- 여성사사료 활용 및 도민 확산 사업 추진: 여성사 발간, 근현대 구술생애사, 온/오프 아카이브 구축, 여성사 전시,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서울여담재 모델 적절함). 전략 주제와 인물 선정해 학술 포럼, 문화사업(전시, 영화, 뮤지컬 등), 기념사업, 기념관 설립 등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중장기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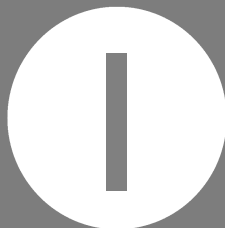
추진내용	추진일정				
	2025	2026	2027	2028	2029
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				
여성사주제별 연구 및 집필		여성 농민	이주여성	여성정책	교육문화예술
전북여성사 발간 위원회 구성	구성				
생애구술사 연구	전북여성 생애구술사1	전북여성 생애구술사2	전북여성 생애구술사3	전북여성 생애구술사4	전북여성 생애구술사5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대 도민 사료 수집	스토리텔링 공모		
탐방로 개발		개발	개발	운영	운영
여성주의 문화해설사 양성			양성	운영	운영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	추진		
여성사공간 (전시관/문화관/박물관)조성	근거 마련	추진 단위 구성	추진	추진	운영
전북여성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검토	개발	운영	운영	운영

□ 인물선정 및 전북여성사 역사문화공간 조성(안)

- 전북/한국 사회 지재벽 성별 규범에 대해 의미를 지니며, 도민의 수용성 및 공공기
역화 가치가 있고 현재 자료/유적/해석 가능성이 풍부한 인물 및 사업 대상을 기준
으로 다음 개발(안)을 제시함.
- 여성인물 : 방애인(1909-1933), 임영신(1899-1977), 최명희(1947-1998)
- 역사문화탐방길: 여성농민길, 근대-여성교육길(전주), 현대-여성노동길(익산), 현대
-여성인권길(군산)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교육길(전주) 예는 그림과 같음.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는 본격적인 지역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역사서술의 주체와 대상을 남성, 거시,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과 여성, 미시사, 생활사로 이동하는 것이다. 지역 여성사는 지역 여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복원, 기록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국 17개 지역은 여성사 및 여성 생애구술사 연구와 발간을 활발히 추진했으나 전북자치도는 지역 여성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경북은 『경북 여성사』 등 28권, 제주는 『근현대 제주여성구술사 I-4.3 이후 제주』 등 23권을 발간했으나 전북자치도는 4개에 그치고 있다(2024.1월 기준). 생애구술사는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사업」을 진행했다. 민간 및 학술 연구 차원에서 여성사 및 생애 구술사 작업은 상당히 축적됐으나, 공공의 책임과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역 여성사 연구는 남성 및 중앙의 관점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를 복원해서보다 충분한 시각의 역사를 재구성함은 물론, 지역 여성의 삶을 발굴하고 기록해 공식화하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전북여성사 연구는 전북 여성의 정체성을 내부로부터 구성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적 기록을 생산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책무와 연결해 연구를 확장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 여성사 연구 진행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여성사 관련 사적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인 지역 여성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본 연구는 전북의 지역적 특징과 교차하는 전북여성

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역사 문화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을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북여성사 관련 자료를 콘텐츠로 삼아 사업화 방안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굴 및 진흥을 위해 전북 지역 여성사 연구 자료를 수집해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여성사 정책 추진 등 후속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전북여성사 연구의 관점과 분야 정립하여 제시하고 둘째, 전북자치도 여성 사료의 일차적 수집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자치도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자료 수집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2024년) 행정구역상 전북특별자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전근대(선사-고대-고려-조선), 근대, 현재(해방 이후-현재)를 아우른다. 기초조사로서 본 연구의 성격에 기반해 현재 전북 여성사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와같이 설정했다.

본 연구가 조사하는 전북 여성사 자료의 기준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지역여성사 연구 전 수행한 기초연구 성격의 선행연구들(기계형 외, 2017; 김경례 외, 2017; 김정란 외, 2017)의 기준을 참고해 현재까지 발간된 전북 여성사 자료를 포괄하기에 적합한 기준으로 접근했다.

첫째, 여성인물관련(지역의 특정 인물 관련 자료)

둘째, 여성관련 주제사(여성농민, 여성어민, 여성노동 등)

셋째, 지역사(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제사, 통사, 인물사 등)

넷째, 구술생애사(현존하는 인물의 자기 생애 구술채록 기록 등)

위 기준에 따라 기초조사 및 현행 자료의 구분을 수행하고 수량과 내용을 분석하여

전북 여성사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전북여성사 자료의 수집 및 기초 분석,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관련 선행연구 및 지역 여성사 선행연구 자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론적으로 지역 여성사를 연구하기 위한 적합한 관점과 방법론을 모색하고 이를 '전북 여성사' 개념 정립을 위한 근거로 분석 제시했다.

(2) 현지 사례조사

중앙 및 다른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및 사업 연계/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3곳에 대한 현지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충북 여성독립운동 전시실, 광주 여성사 연구 및 두릅길 운영 사례, 중앙 여성사 전시관(고양시 소재) 운영 사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3) 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현지 조사시에 총 5명의 여성사 연구 및 사업 운영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목적은 타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여성사 발간 및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Ⅰ표 I-1과 같다.

표 1-1 | 면접조사 내용

구분	내용
여성사 연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여성사 연구의 경과 연구과정의 쟁정과 반영사항
여성사 콘텐츠 사업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한 여성사 콘텐츠의 선정과정 최초 사업화 단계에서 주요 고려사항 지역 특성과의 관련성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과 모색
종합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여성사 연구 및 사업화 방안 제언

해당 지역 여성사 연구현황, 여성사 콘텐츠 사업화 사례,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종합 제언을 청취했다. 면접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2와 같다.

표 1-2 | 면접 대상자 특징

구분	면접 대상자	성별	연령대	담당 업무
중앙	A	여	20대	여성사 전시 담당
충북	B	여	40대	여성사 연구 책임
광주	C	여	50대	여성사 사업 책임
	D	여	50대	여성 역사문화콘텐츠 운영 담당
	E	여	40대	여성사 자료 발간 담당 및 여성역사문화콘텐츠 기획

(4) MAXQDA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본 연구는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를 활용하여 텍스트 기초조사를 통해 수집한 학술 자료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와 주제를 체계적으로 추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거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핵심 용어를 식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따랐다.

먼저, 문헌자료를 MAXQDA에 입력하고, 분석의 목적에 맞게 텍스트 데이터를 정리하

였다. 그 후 초기 탐색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무의미한 단어를 제외하여 자료를 처리한 후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를 할당해 반복해서 통계 분석을 실행했다. 빈도 분석은 통계 기능을 활용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및 빈도 분포표를 생성했다. 기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서 체계적으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간의 패턴 및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 분석은 전북여성사의 광범위한 자료들의 주제적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했다.

(5)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관련 시군 기초 자료 조사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시군 발간 여성사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대상은 시군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 문화원이며 조사목적은 시군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디지털 자료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하고 유적 및 사료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진행했다.

조사방법은 공문 배포를 통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내용은 전북여성사 관련 자료 보유 현황 및 보유자료의 특징(시대, 자료형태, 위치, 관리 담당자 등)이다. 이 조사에서 ‘전북여성사 관련 자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속 행정구역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여성들의 관련 유적이거나 서적, 기록물, 사진, 작품 등을 말한다.

(6) 전문가 자문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의 개념, 범위, 연구분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여성사 선행 연구자 및 전 서울 여담재 등 여성사 관련 기관장, 다른 지역 여성사 연구자, 전북 지역사 선행 연구자 총 5명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다. 대상과 내용은 Ⅱ 표 1-3과 같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도민 대상 사업화 경험과 쟁점, 증장 계획 수립시 고려 내용, 구술생애사 연구와 사료 생산, 여성사 발간 사례, 공공역사로서

지역여성사 발전방안 등을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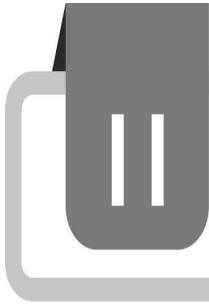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및 내용

대상	내용	일자
여성사 연구자 (전)여성사 전시시설 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여담재 운영 사례 검토 도민 대상 여성사 활용 방안 논의 	2024.12.5.
경기여성사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여성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검토 및 쟁점 공유 	2024.12.5.
인천여성사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중장기 계획, 구술생애사 연구 	2024.12.16.
전북여성인물사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근대 여성교육사 관련 자문 전북여성인물 선정 및 여성사 콘텐츠 활용 방안 논의 	2024.12.16.
지역여성사 연구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역사로서 구술사와 지역사 지역여성사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거시사와 미시사, 지방사와 지역사를 잇는 대안적 역사쓰기 의미 	2024.12.19.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 검토

1. 지역여성사 선행연구 검토
 2.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3. 지역여성사 연구방법론과 사료활용
 4. 소결: '전북여성사' 개념과 범위
-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 검토

1. 지역 여성사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전북여성사와 관련해 『전북여성100년사』(전북발전연구원, 2013)를 비롯한 저서를 발간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전북여성사와 관련한 연구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여성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지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전북여성사 연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경상남도¹⁾에 이어, 전북이 지난 5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전북여성사 연구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여성사 연구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에서 지역여성사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 타 시도의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은 지역여성사 연구를 주도적으로 담당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2023년 현재 경상북도 30권, 전라남도 23권, 대구광역시 16권, 충청북도 13권, 강원도 12권, 제주도 11권 등을 발간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음을 알 수 있다(임혜경 외, 2023).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도 등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지역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여성사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방안,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초연구 등을 실시하였다.²⁾

-
- 1) 경상남도는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2022년에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 2) 김정란·김미선·김미현·강신혜(2021), 인천 여성 생애구술사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임혜경·소현숙·백소운(2023), 경기여성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경기여성가족재단; 강경숙·진관훈·문순덕·김준표·고민지(2021),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자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제

이는 년 단위의 단기적인 연구보다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진 지역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 소재나 주제는 물론 지역여성사 연구 그 자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 그리고 법적 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역여성사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 축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여성사와는 달리,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정의는 어느 정도 이어진 점과 비교해, 지역여성사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³⁾. 년 단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여성사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등의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정책연구기관에는 지역의 여성사를 연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의 채용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질적인 성과가 축적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0년에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센터 설립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⁴⁾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장에서는 전북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개념과 범주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여성사, 즉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다루고자 한다. 이에 기존의 지역여성사 연구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여성사 연구에 대한 개념, 필요성, 의미 및 가치 등을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사, 젠더, 지역 등의 용어를 중심으로 관련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방법론과 사료 활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여성사 연구가 기존의 지역여성사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주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문순덕·이연화·홍선영(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 여기에는 여성사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부족, 특히 여성사 연구자가 학계의 전임교원으로 자리잡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설립 역시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제는 서울시의 갑작스런 결정과 함께 2024년 상반기 문을 닫았다.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여성사에 관한 개념적 정의 등 개념적 혹은 이론적 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사 연구 그 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여성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접근이 어떠한 논의와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지역여성사의 개념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술지 게재를 위한 요건을 갖추므로써 좀 더 탄탄한 논의 속에서 전개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여성사 연구와 관련해 윤택림(1995)은 역사인류학자로서 ‘지방’, ‘여성’, 그리고 ‘역사’를 키워드로 하여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지방사 연구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논의를 전개한다. 지방사 연구가 “지방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지방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복원시키면서 지방에서 삶을 이끌어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발언될 수 있도록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의미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여성 경험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논쟁 등을 살펴본다.

그녀는 “역사적 경험은 특정한 지방적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 개인들, 집단들에 의해 형성됨으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각 지방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지방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이 어떻게 침묵당하고 주변화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한티의 ‘위치의 정치학(politics of location)’이라는 용어를 참고하여 “지도에서의 위치는 곧 역사에서의 위치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에 지방의 의미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특정 시간과 연관된 실제”이자 “지방이 위치지워지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여성의 삶은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의 시공간적 위치와 배치를 포함하게 된다”고 본다. 윤택림은 조안 스콧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 경험의 구성적, 해석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험, 사회적 담론, 사회적 경제적 맥락의 변화와의 상호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남 서산 부석면 일대 여성 구술 생애사를 분석을 통해, 지방 역시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가진 공간이 아닌 다양한 삶의 양태”가 전개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도 단일한 여성의 특수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가족사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경험의 복수성이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단일한 주체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그 안에 다름을 구조화하고 그 다름을 위계화하는 구조들을 밝혀서 이제까지 주변적이었던 지방사와 여성사 연구를 활성화시켜, 결국 하나 하나의 소역사(micro-history)를 모아서 전체사(total history)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의 정치경제적 특수성과 문화의 특수성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서 지방문화와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윤택림의 논의는 처음으로 본격화된 지방사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여성사와 젠더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활용해 지방사 연구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사 자체, 즉 지역 여성의 다양성과 내부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역여성을 단일한 존재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로 의미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차이에 관한 당대의 논의(1980~90년대)가 계급에 집중되었던 시기에 지방, 즉 지역이라는 범주를 주요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방 혹은 지역에 대한 개념적 혹은 이론적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여성사연구의 이론적 논의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 김혜순·정혜숙(2004)은 지역사회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젠더기획과 지방기획으로서 지역여성사”에 주목한다. 여기서 저자들은 “젠더연구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논의가 전국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중앙편중성을 노정해왔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지역여성의 계층과 계급은 “구조화되고 통제되어 대상화, 추상화된 과제”이지만, “일상적 삶은 지역과 젠더를 축으로 한 끊임없는 긴장과 타협의 연속”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갖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계”된다고 말한다. 즉 지역여성사는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두 저자는 지역여성사를 “주류 역사에 대한 여성의 역사이며, 지방의 역사라는 다른 지형”을 가지며, “각 지형별 연구주제와 두 개의 지형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연구주제”라고 설명한다. 즉 여성사와 지방사가 서로 결합된 것이 지역여성사라고 본다.

이에 지역여성사는 “중앙집중화된 젠더기획과 상대적으로 일천한 지방기획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영역”이라며, 지역여성사가 자원을 가진 지역의 지배세력(지방정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리고 지역여성사에 대해 “1) “주류=남성 중심 역사”에 대한 여성의 역사라는 기획이다, 2) “주류=중앙중심적 국가 전체사”에 대한 지방사의 기획이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3) 젠더연구의 중앙집중성으로 인해 여성사 기획이 지방사 기획보다 앞서 있다는 주장이 각 지역의 지역여성사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4) 지역 지배세력의 역할과 그들이 형상화하려는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특수성, 즉 내부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전체사회의 정치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상징)적 지형에서 각 지역이 갖는 위치, 즉 외부적 정체성에 대비해서 분석될 수 있다. 5)두 개 이상의 지역여성사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논의에서는 특히 젠더 연구가 중앙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두 논의가 인류학자와 사회학자에 의한 지역여성사 논의라면, 김정숙(2007)은 지역대학에 소속된 역사학자로서 “한국 지역여성사 연구의 특성과 과제”를 다룬다. 그녀는 지역여성사가 “인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지역사를 재확인하며 동시에 지역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즉 지역여성사가 “지역 여성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여성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할 역사적 과제,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었던 여성의 생활사적 주제,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여성의 문제 등을 밝힘으로써 현재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지역여성사 연구가 “한국여성사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해주고 여성사 서술의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지역여성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은 한국여성사 내지 한국사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여성사연구는 한국여성사, 한국생활사, 한국지방사 연구에 현장성을 더함으로써 역사학 분야의 연구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이는 곧 지역여성사 연구가 갖는 주목할 만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녀는 지역여성사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한계 및 서술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역여성사 연구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지역여성사 연구물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시기 구분에 대한

특별한 기준 제시하지 않거나 여성이 주체로 다루지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여성의 삶과 사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혹은 여성들의 생애를 사전식으로 나열하거나 때로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개설서적 글들이 먼저 집필되어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로 본다. 이는 “구체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서적 글들이 집필될 경우 그 내용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역여성사 개설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연구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열쇠가 된다”며, “지역여성사를 쓴다고 하면서도 그 지역 여성의 특성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일반통사이다 그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꺾어내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지역여성사는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나열”은 결코 지역여성사가 될 수 없으며, “사실의 인과적 분석과 상호 연결성”과 “인과성의 규명”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여성사 편찬 작업이 비역사학도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그리고 김정숙은 지역적 범주 한정 of 난관에 봉착하는데, 지역의 기준을 과거로 아니면 현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 지역여성사의 서술 주체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여성은 누구를 뜻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여성이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성사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가(여성성에 대한 규정), 여성사의 서술에서 가장 중점되는 기준과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등을 제기한다. 더욱이 “여성주의적 관점에만 매몰되어 과거 여성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주의를 관철”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사는 여성주의라는 사회이론의 일부이기보다는 역사학의 일부로서 좀 더 분명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페미니즘 이론 기반의 사회과학이라기보다는 역사학으로서 지역여성사를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여성에 관한 text가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와 역사라는 context 위에서 분석되고 그 의미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여성사는 “그 지역의 특징과 편찬 목적에 맞는 고유한 서술형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연구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를 지적한다. 특히 지역여성사에 대한 연구성과가 비매품으로 발간된 책자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역사학계의 연구논저 색인에 수록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시한다. 이는 연구업적의 활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필에 대한 집필자의 책임감을 덜 느끼게 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여성사 연구의 특징으로 공동연구, 학

제간 연구, 연구자의 선정 시 지역 범위를 넘어선 초빙 등도 언급된다.

궁극적으로 김정숙(2007)은 “지역여성사 편찬을 위해서는 무엇을 여성사로 쓰느냐 하는 시각의 문제, 즉 사관의 확립과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하는 시각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지역여성사는 그 지역 여성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한국사 통사에 여성관계 기록을 끼워맞추는 데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각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기 구분과 서술 대상의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구체적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학적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김정숙의 논의는 역사학자로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역사학의 분과 위에 정초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여성의 특색이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 특히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한국사통사, 혹은 한국 여성사통사라는 틀에 지역여성의 경험을 “끼어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적 차이의 가시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 산하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는 역사학이나 여성사를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지역여성사 연구는 역사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여성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에서 여성학 즉, 페미니즘이나 젠더연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 지역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즉 역사학과 지역학 그리고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통합적으로 전개될 때 지역여성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역사학이라는 하나의 분과에만 규정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인 윤효정(2020)은 “여성주의 관점의 지역여성사 서술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에서 광주학생운동 전후 광주지역 여학생들의 활동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서술 방법”을 모색한다. 기존의 지역여성사 연구가 실증적 사실 나열의 연구방식, 지나치게 개략적 서술, 관점과 시각의 인식론적 한계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다. 윤효정은 기존의 지역여성사 서술이 여성 인물과 통사적 서술 위주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여성사 서술에서 남성중심적 시각과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 즉 여성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광주 여학생의 활동 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료의 수집과 발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헌자료에 기반한 실증 역사학에서 벗어나 내러티브 서술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것 보다, 행위 주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는 점에서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주체화 과정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완결성 있는 내러티브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여성의 경험에 대한 질문의 접근이 변화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남성의 경험과 관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의 경험을 주목하면서 여성의 행위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질문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희정은 “지역여성사는 여성주의 관점과 지역의 관점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주의 관점을 최대한 살려 역사 속에서 여성이 순응 좌절 극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젠더 평등의 문화 형성이 요구되는 현시점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김정숙의 주장과 비교해, 여성주의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주목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거치면서 역사학에서도 여성주의 관점, 즉 페미니즘 이론적 접근의 중요성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지역여성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방사에서 지역사로, 실증 역사학에서 해석으로, 여성주의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변화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자는 물론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여성사에 관한 기존 논의를 통해 지역여성사는 지역 여성의 정체성의 획득 및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 주류에 대한 지역여성의 경험적 차이 주목, 맥락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고려, 지역여성의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과 여성의 행위성을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들은 지역여성사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다음에서는 지역여성사 논의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서의 지역,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지역여성사의 이론적 정립과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여성사 연구를 함에 있어 주요한 키워드인 지역, 여성,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지역사와 로컬리티 연구, 그리고 여성사와 젠더사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페미니즘 역사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페미니즘 역사연구와 페미니즘 이론(여성학)

미국의 역사학자인 조안 스콧(2023)은 젠더를 역사적 분석 범주로 제시하고 역사적으로 젠더가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을 젠더사로 개념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젠더사라는 용어 대신 지역여성사가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혹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젠더사 연구의 대두 배경에는 여성사가 여성의 경험을 보충사 혹은 공헌사로 접근하면서, 여성이라는 또 다른 중심을 만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젠더사는 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나아가 젠더, 즉 성별이라는 것이 역사적 구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연구에서 벗어나 역사와 젠더의 관계성을 주목하는 것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지역여성사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 대상의 여성사적 연구 성과가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연구로 이어지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사회에는 지역여성사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사에서 젠더사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역사학계에서 여성사와 젠더사에 대한 이론적 구분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역사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측면을 고려해 역사를 연구하는 여성 연구자들은 여성사와 젠더사 연구가 공존 및 결합되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 또 젠더사 보다는

5) 여성학자들은 여성사와 젠더사가 각각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

여성사 성격의 연구가 지배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여성사 연구의 상황에서 ‘여성사’라는 개념이 현실적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지역여성사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이 개념에는 젠더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역사학 연구도 포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론적 측면에서는 여성사와 젠더사가 구분되지만, 현실적 층위의 연구에서 지역여성사가 젠더사적 접근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⁶⁾ 당분간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⁷⁾ 지역여성사 연구는 지역의 지자체나 관제기관이 발간주체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⁸⁾ 이성애규범성과 젠더 이분법의 제약 속에서 발주 기관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여성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물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드렉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류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의 경험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⁹⁾

여기서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성사를 비롯해 지역여성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페미니즘적 관점에 대한 이론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¹⁰⁾ 역사학자들이 과거에는 여성주의적 관점, 즉 강한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에서, 현재는 여성주의적 관점 혹은 젠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 공감하고 그러한 연구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는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 6) 여성 관련 정책용어는 여성정책, 성인지정책,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현재 양성평등 정책 용어의 지배적 사용은 성인지, 즉 젠더 용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거부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젠더라는 용어의 난해함과 한국어 번역의 한계 이외에도 여성 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 7) 한국에서 젠더사라는 용어는 때로는 성소수자나 퀴어 논의를 지칭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젠더사 연구가 퀴어정치와 남성성 연구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8) 최초의 연구는 1996년 한국여성개발원이 발간한 강원여성사이며, 나머지는 2000년대에 이루어졌다. 즉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정책연구기관에 의한 지역여성사 연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김혜순·정혜숙, 2004: 73).
- 9) 2024년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같은 해에 동두천시에서는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폐지하고자 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험이 삭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여성사 연구에도 그러한 인식론적 접근이 반영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 10) 여성사 연구는 4단계로 설명되기도 한다. 1) 여성인물 발굴 및 조명: 인물사와 인물 설정 2) 성별화된 여성영역과 주제 3)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해석 4) 복권되면서 완결된 설명구조 등이다.

여성사나 젠더사 연구가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고 여성사 연구자가 역사학계에 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해석과 여성학자들의 역할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젠더규범과 성역할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은 주로 여성 규범과 여성성을 넘어선 여성의 주체적 행위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 집중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화 과정이 강조되어왔다. 반면에 여성 규범에 대한 가부장적 권력에 의한 저평가와 폄하에 대한 재해석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가사노동이나 남성독립운동가를 기준으로 시위행진과 무장투쟁과 같은 독립운동의 업적 기준(성별분업에서 남성적 경험 위주의 의미 부여)에 대한 재해석 등이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여성들은 젠더화된 규범 즉 여성규범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고정관념과 젠더규범)을 활용해서 행위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촘촘하게 이뤄질 때 지역여성사 연구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학을 전공한 여성사 연구자들의 적지 않은 논의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머물면서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남성 경험과 인식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험을 의미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가부장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젠더규범을 문제시하면서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역사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전개되는 여성사 연구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페미니즘적 혹은 여성주의적 논의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여성 경험의 역사화를 위해서는 페미니즘 이론이 여성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관점과 맥락으로 풍부하게 논의/활용/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¹⁾ 페미니즘 이론은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유색인종 페미니즘, 초국가주의 페미니즘, 정신분석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퀴어 페미니즘 등이 대표적이다(로즈마리 통, 2019). 이러한 다양한 갈래의 페미니즘 이론은 지역여성사 연구에서 지역여성의 경험을 좀 더 깊이 있게

11) 기존의 자료들은 가부장적,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적, 반공주의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재해석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분법을 넘어서 인간의 경험을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역사학자가 지역여성사 연구에서 이론적 자원으로서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페미니즘 이론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분과학문인 여성학과 이를 전공하는 여성학 연구자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함을 뜻한다. 여성학을 전공한 여성학자는 물론 젠더연구를 하는 문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여성학 혹은 페미니스트 연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전개된 지역여성사 연구가 심화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지역여성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페미니즘 역사학 연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많은 지역여성사 연구들은 여성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미흡한 편이었다. 이는 지역여성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여성학이나 역사학을 각각 개별적으로 전공함으로써 여성학과 역사학의 결합/교차된 방식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학은 사회과학에 속하여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역사학은 인문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학은 실증 역사학에 기반한 연구가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론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진행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여성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조차도 페미니즘 이론이나 여성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이를 이론적 자원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성사를 포함한 역사학 연구자들은 역사학적 훈련이 탄탄하지만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해석이, 여성학 연구자들은 역사적 접근을 위한 사료 수집이나 발굴, 그리고 사료해석 등의 측면에서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여성학과 역사학의 긴밀한 결합이 필요하다.

2) 공간적 전회로서 지역사/지역학과 로컬리티(locality)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때 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지방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 적이 있다. 지방은 중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지방’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중심은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며 주변에 지역이 위치한다. 중앙집중 정치 속에서 지역은 주변화되고 덜 중요한 것으로 의미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연구의 부상과 함께, 지역의 역사를 주목하는 지역사 연구가 지방사 연구를 대신하며 등장했다.¹²⁾ 이에 현재는 지역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즉 지방은 중앙에 종속된 개념으로 쓰여진 경향이 강하면서 지방사에서 지역사로의 연구사적 전환이 이루어 졌다.¹³⁾ 그리고 역사학 이외에 인문사회와 사회과학적 연구들을 지역학 혹은 지역연구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이라는 것,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지역성, 즉 로컬리티(locality)를 젠더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역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에 의한 지방간 서열, 즉 국가/중앙 중심의 일방적 지배구도에서 벗어나 '지역의 중심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맥락에서 그리고 젠더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남성 주도의 권력관계, 관, 마을 모임 등은 어떻게 여성을 배타적으로 접근하며 그러한 권력 구조에서 배제된 지역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여성사 연구에서 로컬 혹은 지역은 여성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여성학이나 젠더 연구에서 여성 내부의 차이는 주로 교육, 계급, 직업 등이 주목되었다. 지역은 이러한 여성 내부의 차이로서 지역은 여성의 차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의 관점에서 여성의 차이가 어떻게 연구 분석될 수 있는지 논의되어야 하며, 동일한 주제가 지역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여성사 연구는 젠더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국 보편적인 연구이거나 중앙중심

12) 서울학연구, 호남학연구, 영남학연구, 부산학연구 등 지역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학 연구 역시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과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도 많이 이뤄진다.

13) 현재 지역학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역학 연구소와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지역사 혹은 지역 연구와 관련해 대표적인 학회로는 역사문화학회의 『지방사와 지방문화』가 1999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부산대의 한국민족문화연구소는 2009년부터 『로컬리티 인문학』을 발간하고 있다.

적 연구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여성이나 지역의 젠더 관계성을 주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성학 연구 혹은 페미니즘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젠더연구의 중앙집중성”, 즉 한국 혹은 서울 중심의 여성사 연구가 집중된 상황이다(김혜순·정혜숙, 2004: 73). 지역에 기반한 국립 및 사립대학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여성을 연구하는 여성학이나 여성사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여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점에서 지역과 로컬리티를 주목하는 지역사와 지역학 연구의 이론적 성취를 적극 수용하거나 결합할 필요가 있다. 지역학 연구가 지방화시대 이후 발전해온 가운데 2010년대 이후 로컬리티(locality) 개념이 대두하였다. 로컬리티는 일종의 이론적 접근을 위한 개념으로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서의 지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이론적 통찰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또 다른 중심 혹은 중심의 상대성으로서의 주변이자, 로컬의 고유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의 공통적 기억, 주변화된 기억과 경험, 지역민의 자부심, 지배적 이미지로 인해 가려진 주변적인 것들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학과 지역사 연구의 학문적 성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김혜순·정혜숙(2004)은 “중앙주도의 정치, 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역이 겪어 온 불평등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전체사와 지역의 저항의식의 상호유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지방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시도해야 한다(75)”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주체적인 지방의 역사를 가지려는 지방사/지역사 기획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김혜순·정혜숙, 2004: 75).

특히 방법으로서 지역을 제시하며 지역사 연구자로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한 허영란(2017)은 지역을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삶의 역동을 관찰하기 위해 구성해낸 탄력적 공간”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다. 이에 지방사에서 ‘지역사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1) 중첩되고 교차하는 미시적 경험, (2) 혼종적 사람, 혼종적 장소, 혼종적 문화, (3) 식민지에서 ‘지역’의 발견과 재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에서 역사 서술의

14)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도 여교수 채용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주체 역시 다원적이며 이들의 경험 역시 혼성적이라는 것.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는 중첩과 교차가 초래하는 혼종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에서 지역은 “지역주민의 삶이 전개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지역 주민이 갖는 다원적이고 주체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이에 “이질적이고 미시적인 역사들, 다원적인 시간과 경험이 중첩되어 있는 삶의 장소, 공동체와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주관성까지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라는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지역사 연구는 지역을 인식론적 공간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혹은 다층적 해석을 통해 지역을 유동적으로 새롭게 구성가능한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설명한다.

앞선 논의에 더해, 지역/로컬리티와 여성/젠더의 연결은 기계적 결합 보다는 상호교차적으로 그 의미가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 혹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는 어떠한 여성을 호명하고자 하며 어떠한 여성을 배제 혹은 비가시화하고자 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질 때, “지역의 지배세력이 해당지역에 대해 투사하고자 하는 지역 정체성의 일면이 드러난다”(김혜순·정혜숙, 2004: 72). 그러므로 지역이란, 이미 언제나 동질적이고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 관계를 지키고 반대 세력을 억압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나름의 권력의 위계 질서가 작동하는 공간이다(시린 라이, 2014).”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다양성이 발현되는 공간이자 사회 정치 역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임경희, 2015).

또한 “여성에게 장소는 그들의 살림, 존재, 정체성을 결정하는 환경이며, 여성 역사 장소를 규정하고 소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행위성을 갖는다(김상애 재인용, Harcourt and Escobar).”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공유된 감각과 장소-기반적(place-based) 삶의 역사성, 그리고 맥락화된 일상성을 중요하게 위치시켜야 한다(김상애 재인용, 2013: 9).” 이러한 지역여성의 “과거에 대한 감각과 인식, 공간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임경희, 2015).

그러므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역사학은 물론 여성학과 지역학 연구자 간의 학제간 연구가 요청된다. 학제간 성격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지역여성사 연구는 기존의 역사연구의 주류적, 지배적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을 다룬 김은경(2013) 역시 “기본적으로 여성사는 여성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인류학, 문학, 영화학 등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성사는 학제 간 연계를 통해 과거의 여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사는 중앙과 남성중심적인 지배서사를 비판과 성찰적 접근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지역 여성사 연구(2020~2024) 쟁점 검토

여기서는 지역여성사 연구의 사례로서 지난 2020~2024년 사이에 학술지에 실린 지역 여성사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여성사 연구에서 간략한 연구 흐름 혹은 화두를 정리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역여성사 관련 논문은 지역, 여성, 역사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RISS¹⁵⁾에서 검색을 하고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특히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발간된 연구논문으로 선정한 것은, 연구의 범주가 방대할 수 있고 최신 연구가 지역여성사 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¹⁶⁾ 그리고 역사학, 여성학, 사회학 등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2020년 이후 발간된 지역여성사 연구논문, 특히 20세기를 다룬 논문은 90여 편이 넘는다. 다루는 주제는 지역에서 전개된 여성독립운동, 여성근대교육 및 관련 기관, 여성종교 및 선교활동, 여성노동, 일본군‘위안부’ 관련 운동, 여성의 소비문화, 여성의 사회활동(여성단체), 그리고 여성인물 등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조선 혹은 한국 여성은 물론 하와이 등 해외로 이주여성이나 재조일본인 여성 등도 조명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생애구술사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담론분석도 뒤따른다. 한국여성사연구에서 활발한 가족사나 전시나 국가에 의한 여성 동원, 여성 정치인, 여성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지역적 맥락에서 학술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¹⁷⁾

15)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riss.kr/index.do>

16) 최근 지역여성사 논문 관련 조사 결과 지역여성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와 해당 지역도 다양하고 그 편수도 많은 편이었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해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된 연구논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7) 연구 범주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여 하였다. 소현숙, 2023, “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51호; 김은경, 2013,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제19집.

이러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지역여성사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여성의 경험 중에서 비가시화되었던 경험, 서울 여성이나 수도권 여성의 교육이나 노동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지역여성의 경험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있다. 심민정(2022)은 부산 지역의 여성실업교육을 주목하고 호주 선교사가 설립한 동래여자실수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실태를 다루었다. 변화영(2022)은 별교 하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꼬막 채취와 여성의 경제 활동을 다룬다. 이러한 논문은 꼬막 채취라고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기존의 노동개념에서 다뤄지지 않으면서 비가시화된 여성 경험을 가시화하는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지역적 맥락, 즉 로컬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의 공간적 맥락을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더욱이 강윤정(2022)은 1920년대 안동지역의 여성단체와 활동을 주목하면서 안동여성회가 도산서원철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남성의 여성인식 전환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안동여자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어 여성청년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근우회 안동지회가 조직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전국에 지회를 구성했던 근우회가 특정 지역에서 지회가 등장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이 참여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는지를 드러냈다.

젠더규범의 역사적 구성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노인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젠더규범의 균열과 변화를 보여준다. 이때 지역의 주요한 공간으로서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사례로, 추주희(2023)는 집성촌 두 여성 노인의 노동경험과 돌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여성을 둘러싼 젠더규범이 어떻게 균열되고 또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특히 장소에 대한 젠더적 접근 속에서 서울이라는 지역에서의 여성의 공장경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저항적 행위성을 제시한다. 예지숙(2024)은 일제 강점기 영등포 지역의 방적공장에서 근무한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주목하고 장소에 대한 형성과 변용에 대한 이해에 젠더를 대입하여 역사공간이 성적으로 중립적 지대가 아님을 드러낸다. 1930년 일제의 섬유자본의 진출로 서울 영등포지역은 공장은 물론 학교, 유치원, 사택, 기숙사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최첨단 대규모 문명의 장소로서 선전되었으나 여성들은 ‘기숙사 담장 넘기’와 같은 시도를 하는 등 통제하려는 자에 저항하는 여성의 행위성을 드러낸다.

지역여성의 경험이 중앙중심적 관점, 특히 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배제되어 폄하

및 저평가된 것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의미화하는 연구가 있다. 김미선(2022)은 한국전쟁 이후 광주지역에서 양장점을 운영한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여성 양장점 운영자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의미화하는 가운데 전남지역이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화 혹은 배제되면서 오히려 여성의 자영업이 활발하게 그리고 좀 더 오래도록 지속되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국가의 지배적 서사인 산업화가 도시로 이주한 미혼의 여성들과는 달리, 지역 여성들 특히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여성의 행위성을 드러내고 구술생애사와 인터뷰 연구방법 등을 통해 지역 여성의 주체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이들이 서사의 주체로서 위치시킨다. 그러나 연구들 중에는 지역여성을 다루면서도 지역의 공간적 맥락이나 지역연구로서의 문제의식이 깊지 않은 사례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여성사 연구들은 지역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 여성의 경험에 대한 다층적 다면적 재해석, 혹은 여성의 경험 속에서 지역의 유동적 구성성이 드러나기보다는 전체사의 측면에서 특정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여성의 경험을 논의하는데 머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전체여성사에서 누락된 지역여성사를 추가, 보충,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 앞서 이론적 자원에서 검토한 것처럼 지역과 여성이 기존의 중앙과 남성 중심의 전체사에 대한 균열과 새로운 재해석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검토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쟁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식민지 근대성을 화두로 신여성과 도시 공간에서 여성의 삶과 다양한 변화가 주로 연구 및 성과로 축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식민지 근대화의 변화 속에서 도시 여성은 물론 농촌 여성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농촌여성에 관한 관심은 지역여성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소현숙(2013)은 농촌지역 여성의 삶에 관한 여성사 연구가 큰 진척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근현대여성사 연구가 도시, 특히 서울과 중앙 중심의 논의로 전개되면서 공업과 상업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여성, 농업에 종사한 여성들의 경험이 간과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현상에 집중하면서, 도시 이주 이전 농촌의 변화와 농촌에서 여성의 경험과 도시와 농촌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관점 등이 도시의 변화가 농촌에 미친 영향 등이 누락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층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여성사 연구는 남성성에 관한 연구도 주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기존의 주류 역사가 남성 위주의 연구이지만 남성성과 젠더를 비판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아니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일반과 보편으로 여겨지는 지역 남성의 경험과 역사를 젠더라는 분석틀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행위가 젠더규범과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배적인 지역의 남성/남성성이 어떻게 구축/변경되어 갔는지를 지배 권력과의 관계(소현숙, 2023: 243)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여성 인물 위주의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홍양희, 2013: 88).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연구가 지역남성인물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역여성사 연구는 여성 개인 인물 발굴을 통해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여성 인물 연구는 좀 더 심화되고 다양한 지역여성사연구를 풍부하게 하는데 큰 토대가 될 것이다.

넷째, 지역 여성의 지역 내/외로의 이주(이정선, 2023: 126), 즉 지역여성의 이주는 물론 지역사회, 특히 지역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정보), 대상(물건) 등의 이동을 주요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과의 종적 횡적 관계, 지역 간 여성 경험의 비교 또는 관계(망)(이정선, 2023: 132)의 측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논의되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뤄질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학교나 조직 및 단체는 물론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와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혈연 네트워크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 경험이 근대적 민족-계급운동에 토대(이정선, 2023: 129)가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험을 구성하는 커뮤니티와 관계망에 대한 접근이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의 집합기억의 성별적 특징이나 지역 여성이 공통적으로 기억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 혹은 경험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여성과 남성 간의 기억의 차이, 여성들 사이의 교육, 계급, 직업 등의 차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의 경제적 성장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역여성사 연구는 여성교육이나 단체, 독립운동 등을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적 측면에 논의가 집중되거나 개별적인 직업이나 공장노동 등을 중심으로 주목해왔다.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은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여성의 위치와 참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노동과 경제적 역할은 흔히 가정경제와 국가경제, 즉 가족단위와 국가단위에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여성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과 국가 사이를 매개하는 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사회에서 부재하거나 비가시화된 여성의 위치, 경제를 매개로한 여성의 커뮤니티 등을 구조적으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미선, 2022).

일곱째, 지역여성사 연구에서 지역여성은 중앙/수도권 여성과는 구분되는 혹은 차이가 있는 여성으로 접근되지만 지역사회 혹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주목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지역여성들 사이의 차이로서 계급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혹은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지역여성사 연구는 흔히 교육받은 여성, 일하는 여성, 결혼한 여성 등으로 범주화되는데 그것이 갖는 지역사회에서의 위계적, 계급적 차이나 갈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지역여성의 고등교육과 사회활동에 대한 집중된 관심은 지역 내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지역의 근대화된 도심지 위주의 논의 역시 앞서 언급한 지역의 농촌여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여성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여성사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최근 근현대사 연구 주제가 감정사, 과학기술사, 환경생태사, 의료사, 트랜스 히스토리, 개념사 등으로 새로운 연구주제가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소현숙, 2023: 238~240). 이러한 최신 연구들의 새로운 주제 탐색을 지역여성사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여성사 연구가 학계에서 학문적 시민권을 얻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다(정현백, 2007). 하지만 여성사 연구 내에 논쟁이 부재할 뿐 아니라 주류 역사 학계에서 논의되는 쟁점에 개입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은경, 2013: 131). 하지만 지역여성사라는 관점과 방법은 기존의 남성과 중앙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새로운 논쟁을

이끌고 주류 역사학적 논의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역사회는 지배질서와 젠더규범에 부합하는 지역인물과 사건에 집중해왔을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여성사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 연구 경향과 관점에 적극 비판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여성사 연구 방법론과 사료 활용

1) 기존 연구와 담론의 재해석: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관계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세기 이전, 조선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문헌자료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산된 많은 문헌자료들은 기록을 남긴 주체가 대부분 남성이자,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생산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기존에 생산된 문헌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지역여성사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요청된다. 이때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에 관한 페미니즘적 해석이 역사적,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생산된 문헌자료, 혹은 기존의 문헌을 어떻게 지역 기반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중요하다.

이는 앞의 논의에서도 많이 다뤘듯이, 여성성은 물론 남성성 등 젠더규범에 대한 재해석을 위한 이론적 자원의 마련이 요청된다. 여성의 행위를 개인이 처한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화하는 과정(윤효정, 2020)은 물론, 여성이 행위 주체, 서사의 주체,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여성의 주체화와 젠더 규범의 변화, 즉 젠더사적 접근(이정선, 2023: 123) 역시 지역여성사에서는 요청된다. 예를 들어 전북 남원을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춘향이 대표되고 있는데, 춘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 지역사회에서 가부장적 규범에 적합한 여성상으로 제시되는 ‘춘향축제’와 같은 많은 지역축제가 재의미화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여성사 연구에서는 역사학자는 물론 여성학자 혹은 페미니스트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페미니즘, 즉 여성학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문헌자료의 발굴 : 새로운 사실의 발굴

앞서 언급한 기존의 문헌자료와 연구물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은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새롭게 발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여성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료를 발굴하는 것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 연구를 통해 사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역사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합이 요청된다. 공공기관이나 공적영역에서 생산된 공적자료(제도 및 정책 등)는 물론 사적 자료에 해당하는 일기, 자서전, 가계부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소현숙(2023: 238)은 최근 주목되는 새로운 자료로 일기나 편지, 개인기록과 같은 사적 기록들로, 이러한 자료들은 지배담론이 담지 못한 틈새를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사료의 다변화는 지역여성사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현숙(2018)은 여성의 언문일기로 호서지역 양반가의 유씨부인이 작성한 생활일기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한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종부의 치산과 가계경영』(경인문화사)를 발간한 바 있다.

3) 여성의 경험 관련 자료 생산

현재 지역여성정책연구기관에서는 지역여성의 발굴과 채록을 통한 구술자료 생산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문헌자료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사화되고 또 서사화의 주체가 여성이 생산한 구술자료는 지역여성사 연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여성의 경험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구술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여성노동, 부평미군기지 등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성구술자를 발굴하고 이들로부터 구술자료를 채록했다.

한편 이러한 구술자료의 생산 과정에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있다. 지역에 따른 전문적인 지역여성사 연구자가 참여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관련 교육을

통해 일반 지역여성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구술채록을 통한 자료의 생산은 채록자와 구술자의 상호참여를 통한 생산된다는 점, 이러한 맥락적 특징이 구술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하고 고려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소통과 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지역적 환경과 여건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시각매체 : 사진과 영상 등 (문화적 매체)

지금까지 지역여성사 연구는 주로 글자로 쓰여진 텍스트 자료, 즉 문헌자료나 구술자료에 거의 의존해왔다. 그러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글자 이외에도 사진과 영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가 지역여성을 기록하거나 재현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생산되어 왔다. 지역여성에 대한 이러한 시각매체의 수집과 해석 작업은 지역여성사 연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나 그 동안 다뤄지지 못했던 경험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자료는 생산 과정은 물론 생산자의 성별과 젠더관점 역시 주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진자료는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물론 지역의 사진작가나 지역민들이 생산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¹⁸⁾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흔히 이해되지만, 사진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프레임이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집과 함께 그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 역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사진 관련 자료로는 국가기록원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생산한 사진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 중앙정부 산하의 국가기록원¹⁹⁾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사진자료 혹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생산한 사진자료들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상의 경우는 서류적 성격의 자료와 영화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전북 여성과 관련한 영상들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다. E영상역사관²⁰⁾ 등이 대상

18) 『사진으로 보는 전남여성 100년』

19)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20) <https://www.ehistory.go.kr/>

이 될 수 있다.

4. 소결 : ‘전북여성사’ 개념과 범위

지금까지 2장에서는 전북여성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역 여성사에 대한 개념적 측면을 주목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논의로서 페미니즘 역사연구와 페미니즘이론, 지역사/지역학과 로컬리티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 지역여성사 연구를 위한 주요한 화두와 연구방법론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역여성사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때 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공간은 행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여성의 경험과 해석 속에서 유동적이고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이라는 공간에 기반한 여성이 경험하고 해석한 지역성은 남성과 중앙중심적 지배사이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해석을 이끄는 가능성과 상상의 장이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쓰여지는 지역여성사는 전체 여성사, 즉 한국여성사와 한국사의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또한 비가시화된 지역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지역여성을 주체화하는 것은 물론, 가부장적인 관점과 남성중심적인 해석에 의해 배제되거나 폄하된 지역여성의 경험, 젠더화된 경험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젠더 권력에 대한 해석은 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 속에서 긴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학, 여성학, 지역학 등의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로컬리티 관련 이론적 자원은 지역여성사 해석을 위한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사 연구의 일환으로서 전북여성사 연구는 전북이라는 공간적 맥락과 전북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실천하는 여성주의적 역사쓰기이다. 이는 전북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젠더라는 관점에서 전북의 역사,

나아가 전체사로서 한국사를 새롭게 쓰는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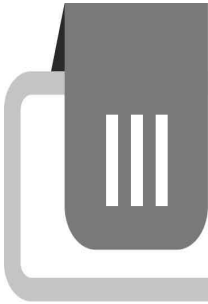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전북여성사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참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여성사 연구”란 해당 조례에서 여성사 연구를 규정하면서 “여성사 연구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 논의한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자원과 접목하여 전북여성사의 개념을 정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전북여성사’란, “전북에서 출생, 성장, 활동, 사망 등 생애를 보낸 여성의 삶 또는 전북 사회의 성별 규범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건, 인물, 문화 등에 대한 지역 역사”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을 접목하면서 이후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타 지역여성사 연구와 사업 현황 분석

1. 중앙 및 타 시도 지역여성사 연구 현황
 2. 타 시도 지역여성사 사업 현황
 3. 시사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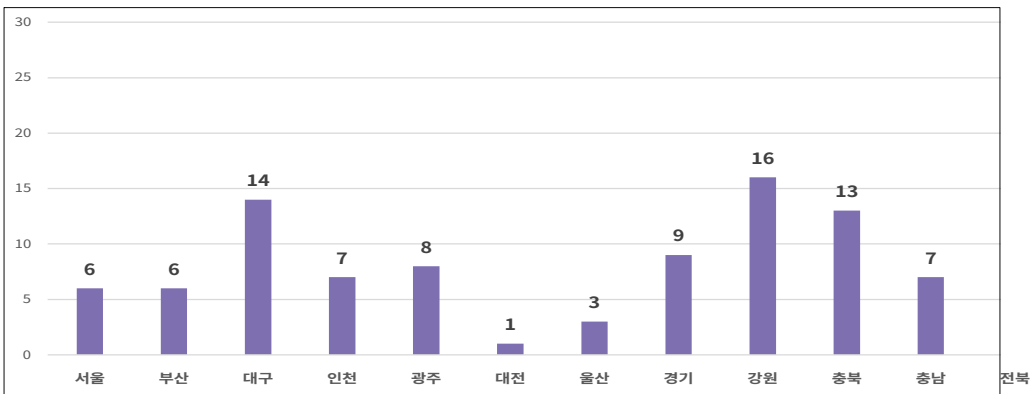


타 지역여성사 연구와 사업 현황 분석

1. 중앙 및 타 시도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국가 및 타 시도에서 지역 여성사는 지역여성정책기관을 중심으로 17개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은 28종의 여성사 발간을 통해 가장 많은 여성사 자료를 생산 구축하고 있으며, 제주와 전남, 대구도 풍부한 여성사료를 구축하고 있다. 1996년 민선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분권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 여성사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강원도가 처음으로 지역여성사 발간을 시작한 이후 2000년대 중후반 활발한 지역 여성사 연구가 진행됐다(김정란 외, 2020; 임혜경 외, 2023).

Ⅲ-1 타 시도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여성사 연구의 진행 단계는 본격적인 발간 및 사업화 이전에 연구방향이나 방법론을 수립하거나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3개년~5개년의 여성사 발간 및 사료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콘텐츠를 활용

해 시민들에 대한 참여,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중앙 중심 발전 과정에서 지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호남지역의 광주, 전체 지역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중앙의 국립여성사 전시관 3곳을 대상으로 현지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개요는 다음 Ⅰ 표 III-1 Ⅰ과 같다.

Ⅰ 표 III-1 Ⅰ 조사개요

지역 사례	내용	일시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기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독립운동 1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물사 연구 • 전근대, 근대, 현대 아우른 기초연구 진행 • 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2024.11.28.
광주 여성사 발간 및 두릅길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근대, 근대, 현대 여성사 발간 • 여성역사문화 콘텐츠 사업 활성화 • 교육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활발 	2024.12.3.
국립여성사전시관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여성사 주제로 한 국립 전시관 •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근거, 현재 여성사 박물관 확장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진행중임. 	2024.12.9.

2. 타 시도 지역 여성사 사업 현황

1) 현지조사 결과

(1) 국립여성사 전시관

현지조사는 총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기서는 국립여성사전시관,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광주여성가족재단 두훙길 사업화 사례를 살펴본다. 국립 여성사 전시관은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여성 관련 국립 박물관이다.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서 건립되었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있다가 2014년 경기도 고양정부청사 건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최초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에 여성사 박물관의 설립·운영을 신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여성사 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상시전시와 특별전시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시전시공간은 통사적 여성사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전시내용은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로 시기 구분해 전시하고 상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 국립여성사 전시관 전시 내용 구성

전시	내용	비고
시대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의 여성, 세상을 열다 • 고려시대의 여성, 세상으로 나아가다 • 조선시대의 여성, 세알을 그리다 • 근현대의 여성, 세상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 여권통문으로 발표하다(대한제국) -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추구하다(일제강점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전쟁을 딛고 일어서다 (해방이후) 	
테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여성활동 • 직업 활동에 나선 여성들 • 20세기의 여성운동 	
기림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 기억하고 기리다 	
평화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의 길을 열다 	
체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들의 이야기 	

자료: 윤택림(2022). 266p

특별전시는 여성사 전시관과 동시대의 여성/젠더 이슈, 주요 현안에 대해 여성사를 통한 접근을 시도한다. 다양한 기획 전시가 2003년 개관 이래 이어져 왔고 최근 '일하는 여성',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 전시는 현재 여성사의 주요의제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기록의 사회적 의미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표 Ⅲ-3 Ⅲ 국립여성사 전시관 주요 '특별전시'

전시	연도	내용
키워드 여성사 첫 번째 이야기, 일하는 여성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간 : 2024년 09월 04일 ~ 2030년 12월 31일 - 전시장소 : 국립여성사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 내 - 전시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 4일부터 1층 특별기획전시실이 도서, 전시, 휴식 공간인 '여정책방'으로 개편 운영. • 여성사 등 관련 전문도서 6,000여권과 함께 여성사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 올해 전시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여성의 '일'의 역사를 조망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간: 2020년 09월 04일 ~ 2021년 02월 27일 - 전시장소: 국립여성사전시관 1층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획전 <방역의 역사, 여성의 기록>에는 감염병의 원인을 역신으로 여겼던 근대 이전부터 방역의 개념이 생겨난 구한말, 그리고 근대적 보건위생이 정착되는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방역의 역사를 80여점의 유물과 사진,영상을 통해 조망하며 그 안에 보이지 않던 여성의 이야기를 끌어냄. • 2020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성들을 기록. 감염병에 맞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시함.
가족과 호주제-호주제 폐지, 행복한 가족으로 가는 지름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기간: 2003년 07월 04일 ~ 2003년 10월 31일 - 전시장소: 여성사전시관 -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도 변화하는 우리사회의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치고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시. • 1부 : 나의 호주는 누구일까? • 2부 :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법률상의 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으로 알 수 있음. • 3부 : 호주제는 언제부터 생긴 제도인가?

전시	연도	내용
		<p>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족법의 역사와 변화를 전시. 불합리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책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부 : 호주제의 문제점 <p>호주제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호주제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부 : 호주제는 왜 헌법에 위배되는가? • 6부 : 다른 나라의 가족법제는 어떠한가? <p>지구상에서 호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해외 가족법 현황을 알아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부 : 호주제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료: <https://eherstory.mogef.go.kr/PageLink.do>

2024년 9월 4일부터 1층 특별기획전시실은 도서, 전시, 휴식 공간인 ‘여전책방’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여성사 등 관련 전문 도서 6,000여권과 함께 여성사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한다. 동시에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이 하나로 합쳐진 융복합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현지 조사시 관찰한 결과 시민들이 무료로 운영되는 도서관 시설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1) 충북여성독립가 전시실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은 전국 최초 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으로 충북여성재단 내 충북미래여성플라자 1층 1전시실로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선정돼 총 예산 6억원으로 건립됐다. 특히 여성독립운동가 10인의 흉상을 별도 제작했으며, 관련한 기록물들과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 표 III-4 】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기관개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 • 위치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1층(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 면적 : 10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독립운동가 10인의 흉상과 활동상을 담은 기록물 전시 - 박재복(1918~1998), 신순호(1922~2009), 어윤희(1880~1961), 오건해(1894~1963),

기관개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2018 행정안전부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시설 설치사업> 선정 • 예산: 총 6억원(도 특별교부세1억 5천만원) 	윤희순(1860~1935) - 임수명(1894~1924), 연미당(1908~1981), 박자혜(1895~1943), 신정숙(1910~1997), 이화숙(1893~1978)

(2) 광주 여성사 연구 및 두릅길

광주 사례는 여성사 발간과 사업화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진행돼 광주여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광주여성가족재단 및 근대문화 특화지구 내 여성 두릅길을 개발했고 현재 3개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여성근대교육을 주제로 하는 '두릅길', 광주여성독립운동 주제의 '백단심길',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총장로의 여성 역사를 주제로 하는 '홍단심길' 이다.

표 Ⅲ-5 | 광주여성두릅길

기관개요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까지 완료된 광주여성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 위치 : 광주여성가족재단 및 근대문화특화지구 내 여성 두릅길(광주 남구 양림동일대) *두릅길 : 곡식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남장로교회 위대한 선교사 7인에 선정된 서서평 선교사가 사후 유산으로 남긴 보리쌀 두릅을 상징 • 면적 : 총2개 코스 각 1h30' • 예산 : 총 6천만원(재단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통사 및 구술생애사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서술 3개년 지속사업(2019~2021) - 16명의 연구진 : 역사학, 문학, 사회학, 여성학, 법학 등 - 집필지침 : 여성주의 관점, 지역성, 광주여성 발굴, 대중적 편집, 이미지 활용 등 • 광주여성생애구술사발간 :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 광주여성두릅길3코스 운영 (2022~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코스 : 두릅길(광주여성 근대교육) - 2코스 : 백단심길(광주여성 독립운동) - 3코스 : 홍단심길(광주학생독립운동과 총장로의 여성 역사)

광주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광주 두릅길 개발 전 광주 여성사 통사 발간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여성사 통사 발간은 3개년간 16명의 연구진이 참여했으며, 여기서 발굴된 여성사 사료를 사업 콘텐츠화한 것이다. 특히 여성사 발간시 집필지침을 주목할 만하다. 여성주의 관점, 지역성, 광주여성 발굴, 대중적 편집, 이미지 활용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다. 광주는 전근대, 근대, 현대 3개 통사를 발간하고 여기서 수집된 인물 및 사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기 개발완료된 근대역사문화지구라는 장소 자원과 결합했다. 현재 광주여성 두릅길 사업은 문화해설사 양성 사업 등 유관 사업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타시도 여성사 연구 및 사업의 유의미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관 담당자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결과를 개념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분석결과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여성사의 쟁점이다. 면접 참여자들은 주로 여성인물에 대한 사료로 채워지는 여성사 조사 및 연구, 발간, 사업화 과정에서 지역여성의 구체적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까지가 여성사가 포괄할 수 있는 대상과 인물인지에 대해 논쟁이 계속된다고 봤다. 여성사의 쟁점은 인물과 주제에 대한 재현 부담과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인물 재현에서는 마치 영웅과 위인전처럼 될 것에 대한 우려,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어떤 주제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하위범주로 확인됐다. 여성사는 사료와 인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현재 발굴한 사료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그 대상과 범위의 논쟁은 전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어 전북여성사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논의 구조의 확장, 반복적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 나갈 필요를 확인했다.

표 Ⅲ-6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1)

주제	범주	하위범주	내용	
여성사의 범위 쟁점	재현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인처럼 되지 않게 • 누락주제들에 대한 불만 	<p>“도민들이 좀 더 이 여성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접하기 쉽게. 너무 몇 명의 여성들만 약간 위인 처럼 하지는 않게.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 (사례 B)</p>	
			<p>“세 분 다 여성들은 이주를 했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여성이 경기도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거나 겹치는 생애 과정은 축약을 하고” (사례 B)</p>	
	인물과 주제 선정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공공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와 인물의 부족 • 족보에도 없는 여성들 	<p>“플러스 인물 선정 타당성에 있어서 조선만 다루기에는 인물이 너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세분 플러스 현대에서 충북을 많이 알린. 충북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지 않았어도 충북을 알린 분들 3명” (사례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들 수용할 만한 인물 	<p>“독립운동이 수용도가 높죠. 예를 들면 예술인 분들이 많이 배출됐거든요. 예술인으로 하면.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한. 남겨야 한다고 대부분 동의한 분들이예요. 저희만 먼저 시작한 건 아니예요.” (사례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공공기억 	<p>“현재 살아계신 분들의 목소리만큼 진실된 게 있을까 하여 생애구술사시작. 첫 프로젝트가 중요. 그래서 방직공장을 선택. 광주 시민의 공동 기억. 그런데 여성주의적으로 한번도 접근이 안 된 부분. 공장 가시내, 여공 이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폄하하는 시선들과. 산업 전사라고 띄우는 두 가지 양 극단 사이에서. 실제 노동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사례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성정체성의 모호함 • 여성사의대상과 범위 논쟁 	<p>“광주여성이란 누구인가. 누가 광주여성인가 질문들이 있었고. 3가지 정도로. 광주 출신, 광주에서 활동한, 광주와 관련이 있는. 광의의. 무엇이 광주 여성사인가. 여성의 삶의 중요한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끝까지 합의가 안 된 것들이 많죠.” (사례 C)</p>

두 번째로, 여성사 연구 및 사업은 주류 역사에서 이름과 얼굴이 없는 여성들의 존재를 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역사 서사로서 재생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지역 여성의 삶의 서사를 통한 지역 여성 정체성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정돼 있기보다는 등장하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확장적 재해석을 통해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업 담당자들은 구술채록에 참여해 이야기를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모두 활동의 의지,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추, 지역(장소)에 기반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작품 참여나 전시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 여성예술가들에 의해 적극적 재해석과 문화적 창작이 진행되고 있어 ‘여성사의 가치’가 지역 여성 정체성의 재/구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7 Ⅰ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2)

주제	범주	하위범주	내용
새로운 지역 여성 정체성의 재/구성	지역여성정체성 형성과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성들의 이름과 얼굴 찾기 이야기가 이야기를 낳고 	“여성의 역사쓰기라는게 이름이 없었던 얼굴이 없었던 여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찾아주는 작업이 아닌가. 책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1800부 찍었는데 책이 부족해서 400부 더 찍었어요. 방직공장에 얽힌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야기 하나가 다른 이야기를 연쇄적으로 불러오고.”(사례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록자 만족도 높음 참여하는 시민에게 여성사 가치 확산 	“채록의 과정이 전문적. 양성을 해서 구술 채록 학교를 열었습니다. 준비된 여성들이 지원하신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진행하고. 다 통과하시고 이후에도 소모임 만들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갔다오고 나면 이 여성의 삶은 무엇인가. 여성들을 만나고나면 자기 삶을 반추. 광주여성으로서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사례 D)
	지역 장소기반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된 장소와 이야기의 결합 지역여성주의 작가들에게 기회부여 	<p>“양림동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활용하되, 특화를 해보자. 여러 가지 난관은 있었죠. 길을 만들고 뚫고, 홍보물 만들고 투여 박고. 지금 선진지를 견학하신킴. 불과 2년 사이예요. 아직 오래된 길이 아닙니다. 1,2,3코스”(사례 E)</p> <p>“저희가 여성전시관이 있어서 공모전을 하거든요. 전시를 꾸준히 해요. 여성주의 작가들이 작품 전시할 기회를 못 얻잖아요”(사례 D)</p>

세 번째로 지역 여성사가 미래의 가치로서 어떻게 전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속가능한 기억의 생산과 확산이라는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성사 전시 공간은 전시 콘텐츠를 이동시켜 지역에 국한되지 않거나 어떤 지역이나 시대를 배제하지 않는 운영 원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전히 여성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여성사가 주류 역사적 장에서 가지는 소수자적 위치 때문에 여성사는 계속 확장되고 기억을 생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여성사는 특정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지역 내부에서 어떤 지역이나 시대, 주제의 소외나 배제를 성찰하며 계속해서 포괄적인 기억 생산의 경로를 밟고 있다. 따라서 여성사를 공공의 기억 생산과 아카이빙의 중심이 되도록 위치짓는 것이 요구된다.

표 III-8 | 기관담당자 면접조사 결과(3)

주제	범주	하위범주	내용
여성사 지속가능한 '기억' 생산과 확산	여성사전시 공간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전시 전시 대상 유물 	“저희는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있고, 유물을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져있는 유물이라든가 기초 자료 조사 연구. 박물관 자료 전시 콘텐츠 연구라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상설전. 제한된 공간 안에 여성사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어떻게 구획할지 연구. 여성사연구를 하시는 그 분들의 연구를 위한 공간 마련이다보니 까새로운 연구를 개척하기 보다는 총망라 할 수 있는 공간”(사례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 가능한 배너 전시 장소 국한되지 않음 	“순회전은 배너로 된 전시예요. 여기로 오는 관람객보다 순회적 관람객이 확대하기 좋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정 기간 신청을 받고, 양평주간에신청을 해주신데. 전체적으로 역사 속 여성인물이라든가, 여성 독립운동, 여성의 일, 여권통문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시 배너를 만들어서 지역에 대여해주는 콘텐츠”(사례 A)
여성사 지속가능한 '기억' 생산과 확산	여성사전시 공간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시대도 배제하지 않음 지역간 불균형 해소 	“저희는 지역도 지역인데 시대 균형에 조금 더. 그거를 합의하는데 더 걸렸어서. 고대부터 다루는 걸로 되기까지가 과정이 있었어서. 이제부터는 지역의 밸런스를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보이면 저희쪽에지역관이있거나 전시관의. 그런건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설전구성도 주제 별로 나눠서 지게 되거든요”(사례 A)

주제	범주	하위범주	내용
			“결국에는 여성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한국사 속에서 여성이 늘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 전 시대를 상설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배제다.” (사례 A)
	시민과 시대에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사의역할 • 재방문 높음 	<p>“사회갈등이나 통합에 기여” (사례 E)</p> <p>“아직도 여성사에 대한 인식이 잘 몰랐다는 분이 많으세요”(사례 A)</p> <p>“만족도는 높은 편이기는 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까지 찾아오시거나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애정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타겟층을 구축할 수 는 있습니다. 재방문 많으세요.” (사례 A)</p>

3. 소결 : 시사점

타 지역 연구 및 사업화 사례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사’, ‘전북 여성’ 개념은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지속적 논쟁이슈로 확인되고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전북 여성사의 개념과 범위가 기준이 되므로 기초 연구와 중장기 계획 수립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기 인물 중심 접근시에는 ‘지역을 빛낸 위인’ 성격 인물 선정에 주의하고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도 뿐 아니라 해당 인물을 통해 전북 여성의 삶의 변화, 지배적 젠더 규범의 변화 있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물 및 주제 선정 기준은 도민의 공감대가 크고 전북의 공공역사를 구성하는데 여성의 관점 반영이 중요하다. 사업화시 첫번째 인물 및 주제의 경우 도민 및 다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수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주제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여성사 연구에 기반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나가야 하며 다음 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Ⅰ 표 Ⅲ-9Ⅰ 인물 및 주제 선정 기준

기준	내용
중요성 - 지역여성의 삶, 문화, 생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지역 여성의 삶을 가시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가? 2. 전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주제(농업, 어업, 새만금 등)인가? 3. 전북의 역사적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가? 4. 전북 지역/전북 여성에 대한 대한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규범성 - 다수의 동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북 지역민의 일상적, 사적 경험들로 구성된 것인가? 2. 지식 생산의 민주성, 확장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3. 시민-전문가-지역민들의 동의 정도가 높은가?
시급성	인물, 구술자, 문화의 소명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기타	<p>*제외 또는 중장기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깊이가 얕고 각종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것 - 기존의 전통 가부장제 부합하는 주제이며 재해석 작업이 복잡한 분야 (생애구술사) 당사자 생존 가능성이 낮고 생애구술사작업 진행이 어려움

자료 : 백미록(2024), 도의회 세미나 토론문

둘째, 전북여성사 연구는 여성사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현재 전북 여성 도민의 참여가 새로운 전북 여성의 정체성을 재/구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지 조사 결과에서 구술채록, 여성사연구, 문화해설, 여성사교육 참여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이름'과 '얼굴'을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등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전북여성사 과 발굴된 전북 여성 이야기를 통해 전북 여성의 정체성이 구성, 재구성될 수 있다. 조사 사례에서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억압적 정체성 '가난한 공장 노동자'에서 '생계부양자'의 자부심으로 변모하는 예가 있었다.

셋째, 자료 수집은 포괄적인 통사 접근이 필요하다. 단선적 역사 구분은 여성사 연구에서 주의를 요하지만, 시대나 도 내 지역 배제 없이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희소한 여성사 사료의 특징상 제한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염두에 둔다면 전시물이나 전시 콘텐츠의 도 내 순회 전시 등으로 확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넷째, 여성사 연구-교육-전시 공간은 지역사회 기여가 매우 높다고 보인다. 장기적으로 서울 여담재와 같이 미래 세대에 대해 전북 여성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 역사문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여성사 발간사업 또는 보고서 발간으로 종료된 여성사 연구의 경우 여성사 가치 확산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북여성사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이 마련된다면 향후 여성사 연구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자체 사례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운영 모델은 서울 여담재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

IV

전북 여성사 자료 현황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간행물 현황
 2. 학술 및 민간 간행물 현황
 3. 전북여성사 단어 빈도 분석
 4. 소결 : 시사점
-

IV

전북여성사 자료 현황 분석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간행물 현황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여성사 간행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종의 자료 목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시대별, 주제별 내용과 발행기관, 자료 형태는 다음 표와 같다.²¹⁾

【표 IV-1】 전북자치도 여성사 관련 간행물 현황

연번	지역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1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여인구술사)	생애 마지막 구술 - 호적 구음 살풀이춤 명무 김숙	전북 도립 국악원	2018	구술사	
2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여인구술사)	호남넛풀이굿 (넛건지기굿) 보유자 하진순	전북 도립 국악원	2018	구술사	

21) 전북자치도 및 시군 문화원, 시사, 군지, 도지, 진주학, 전북학 중 일부 내용도 전북여성사 관련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총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어 응답률이 낮은 상황에서 부득이 제한적 자료를 담았고 향후 포괄적 재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번	지역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3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판소리(수궁가) 예능 보유자 박양덕	전북도립국악원	2018	구술사	
4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김소영	전북도립국악원	2018	구술사	
5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호남산조춤 예능보유자 이길주	전북도립국악원	2018	구술사	
6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국가 무형 문화제 제5호 김영자	전북도립국악원	2023	구술사	
7	익산	통사	지역사	익산시사 -상, 중, 하	익산시	2001	단행본	파일 자료 (익산 시청)
8	전주	전근대 (조선)	여성관련 주제사 (여성문학)	조선의 여성 문학 - 천리에 외로운 꿈	국립전주박물관	2012	도록	
9	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주예술사)	2023 전주 백인의 자화상 - 전주 예술사	전주문화재단	2023	단행본	
10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예술사)	완주예인 기억과 기록 사이	완주문화재단	2021	단행본	
11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농업)	완주로컬푸드, 예술이 되다 - 예술 농부	완주문화재단	2018 2019	자료집	

연번	지역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12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지역사)	봉동 앞리 냇가 랑에 핀 생강꽃	완주 문화재단	2017	자료집	2017 완주군 마을 문화조사 기록화 사업 결과보 고서
13	군산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구술사)	00의 집, 그 집	우만 컴퍼니	2022	자료집	

2. 학술 및 민간 간행물 현황

전북 여성에 관련한 학계 및 민간의 연구는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기준에 따라 여성인물, 여성 관련 주제사, 지역사, 구술생애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자료수집은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 절에서는 전근대, 근대, 근현대, 현대 시기에 따라 자료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대별로 자료들을 유목화해서 전북여성인물, 여성관련 주제사(교육, 노동과 운동, 문화, 정책)를 제시했고, 지역이나 구술생애사를 포함한 자료정보를 제시했다.

1) 전근대 시기

(1) 전북여성인물

전근대 시기의 전북 여성사는 대체로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요 특징은 실존 인물보다 신화나 설화 같은 허구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다룬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공적인 장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당대의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주목되었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거나, 연구의 바탕이 될 사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어떤 서사이든 현실의 삶을 반영한 이야기이므로, 서사 속의 여성도 당시 유통되었을 여성 담론을 반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살필 가치가 있다. 다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당연하게 수용되었던 전근대적 시선을 그대로 답습한 연구의 경우, 현재의 관점에서 더 비판적인 재해석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했던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성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표 IV-2】 전근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김삼의당	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삼의당, 황안옹 역(1982), 『김삼의당 시문집』, 제일사. 김삼의당, 이월영 역(2004), 『삼의당 김부인 유고』, 신아출판사. 미상(1950), 『조선 역대 여류 문집』, 을유문화사. 이월영(2013), 「김삼의당 유고의 양면성과 실록성」, 『어문연구』 78. 	진안
녹녀호국지모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도경(2014), 「고구려 녹녀호국지모신화의 호남분파와 무속신화 〈칠성물 이〉와의 관계」, 『동아시아고대학』 33. 	군산
마고할미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화섭(2018), 「지리산권의 함미성(含米城)·할미성(城) 성곽설화와 마고할미」, 『여성과역사』 29. 	남원 순창 장수 진안
선화공주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진(2004),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 	익산
아내 (이름 없음)	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진태(2005),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고전문학과 교육』 10. 서철원(2019),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적 위상」, 『국문학연구』 40. 	정읍
열부 이씨	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순형(2015), 「고려말 열녀 사례 연구—양수생 처 열부 이씨」, 『여성과역사』 22. 	남원 순창
의녀(들)	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수진(2005), 「〈순창가〉의 구조와 인물의 기능」, 『한국언어문화』 28. 박수진(2024), 「조선후기 가사작품에 나타난 여성 형상의 근대성 고찰— 18세기 가사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83. 이승복(2009), 「〈순창가〉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7. 	순창
주논개	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노자(2007), 「의기(義妓) 논개 전승—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25. 오수열(2016), 「의병장 최경회 장군의 생애와 의부인(義夫人) 주논개에 관한 소고(小考)」, 『군사발전연구』 10. 이화영(2019),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논문. 정지영(2007),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3). 황소영(2024), 「전북 장수에서 만난 역사—가야 문명과 논개의 삶, 그 사이의 장수」, 『여행스케치』 257. 	장수
진채선	명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성식(2019), 「고창 소리문화의 발전방안—고창 현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47. 성기련(2005), 「고창과 여성명창」, 『판소리연구』 20. 송미경(2017), 「영화 〈도리화가〉(2015)에 나타난 영웅 스토리텔링의 전략과 한계」, 『인문학논총』 45. 이훈상(2013), 「19세기 후반 申在孝와 여성 제자들, 그리고 판소리 演行的 변화—歌妓에서 歌女로의 성장과 신재효의 역할—」, 『역사학보』 218. 임형택(2015), 「근대미디어와 젠더(1)—20세기 초 여성 판소리 창자의 부상—」, 『인문과학』 59. 최혜진(2017), 「진채선의 활동과 기생점고 대목의 의미」, 『문학교육학』 57. 	고창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최봉선	예기	• 김양오 글·곽정우 그림(2021), 『백 년 동안 핀 꽃 : 최초의 지역 축제 '춘향제를 만든 최봉선』, 빈빈책방.	남원
춘향	설화	• 권순경(2019),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와 정치의식」, 『민족문화연구』 83. • 김지윤(2020), 「李古本 〈춘향전〉 再考察—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混成—」, 『우리말글』 86. • 문순희(2020), 「일제강점기 안내서로 보는 명승고적의 재편과 명소의 창출—남원 지역을 사례로—」, 『열상고전연구』 71. • 송미경(2019),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 및 유파·바디에 따른 분화, 한국공예문화학회」, 『공예문화연구』 39. • 조남민(2020), 「문헌 속 여성의 외양에 대한 표현 방식과 당대 여성성 인식과의 상관성 연구—『남원고사(南原古詞)』와 『열녀춘향수절가』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남원
해주오씨	열녀	• 전북향토문화연구회(2000), 『전북의 정려·충효열비』, 신아출판사.	장수

아울러 실존 인물을 다룬 연구에서도, 그 여성의 어떤 지점을 부각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한다. 여성 명사들이 부정적인 기표나 소문 따위로 유통되는 일이 빈번했던 현실에서, 해당 여성을 다룬 연구 또한 그들의 삶을 과장되게 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연구된 인물 중 ‘전옥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들이 서로 충돌하며 정리되지 않았기에 더 정확한 여성사 사료를 발굴해야 한다. 적절한 사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여성사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 시기

(1) 전북여성인물

근대 시기 전북 여성사에서 여성 인물을 주제로 한 여성사 자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에 태어나 현대 시기까지 살았던 여성이 대다수이며, 허구의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사라졌다는 변화가 눈에 띈다. 아마도 일제 강점기를 비롯하여 부단한 역사적 질곡이 계속됐던 당대의 현실을 시급하게 기록하여 보존하고 퍼뜨려야 했던 상황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했던 국가유공자 여성이나, 암울했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술 작업을 통해 다른 현실을 도모하고자 했을 여성 무형문화재를 다룬 학술자료가 많다.

표 IV-3 | 근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김소희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2000),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 • 박세근(2008), 『고창예술의 맥』, 한국예총 고창지부. 	고창
김여란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숙(2007), 「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23. • 박항(1974),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 정노식(1940),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 최혜진(2002), 「한국 여성 명창의 계보와 판소리사」, 『판소리연구』 13. 	고창
김운영	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성호(2022), 『서점의 시대』, 나무연필. 	전주
김혜미자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미령 외(2022),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사업 : 색지장 김혜미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백승현 글 · 최옥수 사진(2020), 「한지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 세계에 전한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색지장 김혜미자」, 『대동문화』 118. 	전주
김희순	서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옥, 김소영 편저(2024), 『호남서화가 사전』, 한국학호남진흥원. 	전주
나금추 장흥도	농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영숙 · 권은영(2018), 『항기조차 질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남원
방애인	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 70년사 편찬위원회(1974), 『기전 70년사』, 전주기전여자중고등학교. • 배은희(1934), 『조선성자 방애인 소전』, 전주유치원. • 이덕주(2007), 『전주 비빔밥과 성자 이야기』, 진흥출판사. • 이덕주(2007),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흥성사. •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1999), 『전주 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전주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배설향	명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석배(2015), 「판소리명가, 장판개 가문의 예술세계」, 『문화와 융합』 37. 조은정(2016),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남도잡가 음반 연구 : 송기덕·배설향을 중심으로」, 『예술논집』 18. 	남원
오정숙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경희(2015), 「오정숙 <춘향가>의 음악적 변화와 지향」, 『판소리연구』 39. 박정희(2021),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완주
육완순	무용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태원(2021), 「[육완순과 현대무용 (1~5)]」, 『공연과 리뷰』 27. 육완순(2003), 『나의 반세기』, 마루(금호문화). 최경희(2016), 「육완순의 현대무용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7(2). 편집부(2021), 「육완순 선생님 타계 : 육완순과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 『공연과 리뷰』 109. 	전주
이일주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예진(2017), 「동초제 <흥보가> ‘박타령’ 이면 연구—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박정희(2021),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차복순(2008), 「판소리 명창 이일주의 생애와 예술」, 고려대 석사논문. 	전주
이화중선	명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혜진(2003),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연구』 15. 	남원
임영신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영신(2008),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민지사. 	전주
전옥례	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정수(2021),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해안. 이이화(2014),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이이화(2020),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3』, 교유서가. 조광환 외(2020),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조용현(2020), 『조용현의 영지순례』, 불광출판사. 최현식(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최현식(2006),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갈채. 	진안 정읍
최은순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영주(2024),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6(1). 이영주(2024), 「침선장 최은순의 대수장군(大袖長裙) 제작 연구」, 『복식』 74(2). 	군산
최채선 (최승희)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은철(2019), 「전주지역 판소리의 전승 과정과 양상 연구—전주권번과 전주국악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70. 	전주
한덕세	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희영(2023),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중가주 내 활동 연구」, 『전북학연구』 10. 	무주
허산옥	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은영(2022), 「공연 공간으로서, 요정의 계급적 성격과 문화적 취향—전주의 ‘행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70. 김취정(2014), 「람전(藍田) 허산옥(許山玉, 1924~1993)과 전주지역」, 『인물미술사학』 10. 	전주

무형문화재 여성들의 예술적 공적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정도에 비하여, 현장에서 투쟁했던 운동가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록에 앞서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났으며, 더 오래 생존해 있었던 경우에도 특정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대상으로는 더 폭넓은 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흐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 측면에서도 연구 대상의 가능성을 더 열어두기 위한 정치적, 윤리적 관점을 갖춘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사료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전북 여성 독립운동

▣ 표 IV-4 ▣ 근대 시기 전북 여성독립운동 학술자료

자료 정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은주(2019),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신학과 사회』, 33(3). • 신종철(2019), 「‘ACTS 신학공관(共觀)’에서 본 전북지역 3·1운동 연구 : 전북지역 남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40. • 윤상원(2019),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 57. • 윤선자(2004), 「호남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 이가연(2019), 「호남지역 기독교 여학교의 3.1운동—수피아여학교, 기전여학교, 정명여학교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4 • 이현진(2021), 「전주 3.1운동 기록을 통해 본 사료교차검증의 필요성—기전여학교 참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1). 	<p>군산 전주 익산</p>

한편 연구 대상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연구 대상이 되는 여성을 훨씬 다각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길을 열어둔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생애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역사의 구도로만 판단할 때, 그들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거쳐왔던 생애가 통째로 지워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선행된 연구처럼 3.1 운동에 참여한 전북 여성의 상당수가 여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학생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공통 경험이 그들을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지를 함께 헤아릴 수 있다. 독립운동이란 커다란 측면의 계몽 운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전북 여성교육

근대 여학생이 경험했던 교육의 배경에 종교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서구에서 유입

된 종교를 받아들이며, 여학생들은 식민 지배에 있었던 조선의 현실을 넘어서 다른 세계에 대한 바람을 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이 종교적으로 계몽되었다는 일반화를 넘어서, 그들 각자가 선교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주목할 필요도 있는 까닭이다. 이는 그들 여학생을 집단적 정체성에 한정하지 않고 개개인으로서 들여다볼 여지를 마련한다. 한편, 그러한 환경에서 엘리트 계급을 획득할 수 있었던 여학생과 달리, 교육의 수혜조차 누리기 어려웠던 계층의 당대 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똑같은 식민 지배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IV-5】 근대 시기 전북 여성교육 학술자료

자료정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희진(2018), 「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 『전북사학』 54. • 김은경(2022), 「일제강점기 전북 무용 교육 연구」, 『체육사학회지』 27(4). • 송현강(2015), 「한말일제강점기 군산 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역사학연구』 59. • 송현강(2024), 「군산스테이션 여성선교사 연구」,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72. • 오수인(2023), 「일제시기 군산고등여학교 학생의 특성과 여성 교육」, 『청람사학』 37. • 임희모(2021), 「미국 남장로교의 첫 한국 입국 선교사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 부인(Mrs. Linnie F. Davis Harrison)의 선교 활동 연구」, 『선교와 신학』 55. 	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근(2015), 「남장로교의 전주 신흥학교·기전여학교 설립과 발전(1901-1937)」, 『한국기독교와 역사』 42 • 이정옥(2023), 「서양인 선교사가 기록한 전주—1936년 기록영상을 중심으로」, 『공존의 인간학』 10. • 임희모(2021), 「미국 남장로교의 첫 한국 입국 선교사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 부인(Mrs. Linnie F. Davis Harrison)의 선교 활동 연구」, 『선교와 신학』 55. • 전병구(2019), 「일제 말기 사립보통학교 졸업생의 진로—전주해성심상소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5. 	전주

3) 근현대 시기

(1) 전북 여성 농악

전북 여성 근현대사의 길목에 있는 대다수의 학술 자료의 주제는 농악이다. 이는 ‘남원 여성농악단’으로 불렸던 전국 최초의 여성농악단이 전북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말해 전북 여성이 국내 여성 농악의 1세대를 열었던 현실의 영향이다. 그러나 앞에서 연구된

인간문화재 여성에 비하면, 당대 여성농악단의 주역들을 다룬 연구자료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다. 남성의 것으로만 여겨졌던 농악을 여성의 이름으로 전승한 역사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성 농악(단)의 역사적 흐름과 함께, 농악단에 있었던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더 필요하다.

【표 IV-6】 근현대 시기 전북 여성농악 학술자료

자료정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은영(2008), 「여성농악단을 통해 본 근대 연예농악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11. 노영숙·권은영(2018), 『향기조차 짙었어라: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박혜영(2016), 「'낭자(娘)농악'과 '소녀(少)농악'을 통해본 여성 농악예인의 활동」, 『공연문화연구』 32. 양옥경(2011),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악사학보』 66.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은영(2015), 「여성농악의 발생과 남원의 권번 문화」, 『국어문학』 60. 권은영(2023), 「1950~60년대 남원 '권번예술' 패트론의 후원 문화와 여성농악단의 발생·분파와의 연관성」, 『남도민속연구』 47. 양옥경(2021),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악사학보』 66. 	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성식(2023), 「전주농악의 정체성 변화양상과 여성농악단의 역할」, 『한국전통공연예술학』 9. 	전주

(2) 전북 여성문화

아울러 여성 농악이 지니는 전승의 문화에 이어, 전북 여성의 근현대사를 이루고 있는 구비문학이나 공동체 의례를 다룬 자료도 많았다. 전승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특징 때문에 문헌 연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도리어 그러한 가변성이야말로 여성 구술사만의 고유적인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남성의 시각에서 그와 같은 문화는 비합리적이고 비선형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손쉽게 비판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성 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연구에서는 그것을 여성성으로 환원하지 않고도 여성의 강점으로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독법이 요청될 수 있겠다.

【표 IV-7】 근현대 시기 전북 여성문화 학술자료

자료 정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종오(2009), 「공동체 의례에 내재된 개인구복(個人求福)—전북 김제시 심포리 거전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호남문화연구』 46. 	김제

자료 정보	지역
• 김월덕(2010), 「무주 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특성」, 『민속연구』 20.	무주
• 김익두(2017), 「지역민요의 지속과 변이, 그리고 그 몇 가지 문제들과 현실적 가능성—전북 임실 ‘삼계농요’의 경우—」, 『한국민요학』 49.	임실
• 강성복 외(2016), 「전북 장수진안지역 팔죽제의 전승양상과 의미」, 『남도민속연구』 32.	장수 진안
• 김월덕(2007),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정읍시 북면 오우리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정읍

4) 현대 시기

(1) 전북여성인물

현대 시기를 살아온 전북 여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범주의 인물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간문화재 여성의 경우, 기존에 가무와 관련된 문화재에 주목했던 양상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 소리꾼이 같은 남성보다 성취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 측면의 예기 취급을 받아왔던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처럼, 무형문화재 여성을 젠더적으로 읽어내는 방향을 꾸준히 점검하며 그들의 삶과 업적을 응시해야 한다.

Ⅱ 표 IV-8 Ⅱ 현대 시기 전북여성인물 학술자료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김광숙	무형 문화재	• 이경호(2013), 「‘박금슬류 김광숙 예기무’의 민속지적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8(1). • 김나경(2021),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논문.	전주
김윤	운동가	• 윤정란(2021), 「여성농민운동가 김윤(1953-2004)의 생애와 활동」, 『송실사학』 46.	순창
박미애	무형 문화재	• 백승현 · 최옥수(2023), 「[예도한길] 자수장 박미애」, 『대동문화』 137. • 이종근(2004), 『이태백, 사오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신아출판사.	고창
박양덕	무형 문화재	• 정범태, 『명인명창』, 깊은샘, 2002.	남원

인물	분야	자료 정보	지역
안숙선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시현(2024),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예술세계」, 『문화와융합』 46(1). 최동현(2023), 『안숙선의 판소리』, 민속원. 	남원
엄영애	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영애(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의 숲. 편집부(2020), 「시대를 앞서갔으나 미완으로 끝난 가톨릭 여성농민운동 : 한국 가톨릭농촌여성회 초대 총무 엄영애」, 『가톨릭 평론』 28. 	부안
유영애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석홍 외 편저(2013), 『천부지지 남원 :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남원
이길주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미진(2011), 「호남산조춤 무보와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 박사논문. 김나경(2021),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배민지 외(2021), 「호남산조춤에 나타나는 한국미 고찰」, 『영남춤학회지』 9(1) 	전주
장순자	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희진(2023), 『미치도록 눈부시던—1세대 여성농민운동가 구술기』, 말. 	김제
지성자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영국 외(2019),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기록화 사업 : 가야금산조 지성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전주
최순희	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2005),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자료집 : 노동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 	전주 익산
하진순	무형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진순(2016), 「호남 <넙풀이 굿>의 의식절차 및 선율분석 연구」,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군산

(2) 전북 여성노동운동과 여성운동

근대 시기만큼 수십 년간 독재 정권에 있었던 국가적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여성들에 대한 학술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자리에서 주도적인 노동운동을 실천한 인물들이 아래의 연구를 통해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장소와 인물만 둘러싼 이야기를 거듭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하나의 대상에서 산발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연구에는 한계가 없지만, 이미 조명되고 있는 여성들과 연결된 다른 운동을 더 살펴볼 때, 더 다양한 전북 여성운동사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 여성의 운동 이후도 함께 살펴내는 관점을 담은 학술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9】 현대 시기 전북 여성노동 학술자료

주제	자료 정보	지역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복실(1989), 『박복실 일지』, 가톨릭전주교구노동사목성요셉노동자의집. • 배아영(2022), 「후레아혜선 노동운동의 전개와 그에 나타난 다원적 여성 연대—1987년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3. • 이성호(2009),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도시 경험과 근대 의식의 형성」, 『지역사회연구』 17(2). • 이성호(2009), 「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2). • 진양명숙(2007),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 최은영(2022), 「여성 노동자의 노동운동 참여 경험과 결혼 이후 활동 :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3(1). 	전주 익산
언론·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태희 외(2010), 「여성 방송인의 위상과 인식평가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방송사 여자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4. • 김태희 외(2012), 「여성 방송인의 시대별 위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전북지역 여성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22. • 허명숙(2006), 「여기자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연구 : 전북지역 여기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4). • 허명숙 외(2008), 「지역언론과 성차별—전북지역 언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9. 	전북

언론과 방송 분야의 여성 종사자를 다룬 위의 연구들이 더욱 의미 있는 까닭이다. 언론 및 방송인으로 있는 동시에 끊임없이 보이고 전시되고 대상화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통해 해당 직업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 그들이 요구받는 감정 노동의 구조는 유사한 지점이 있다. 지역여성방송인, 아나운자, 기자 등 여성 언론인이 미디어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과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여성사 학술자료 중 전북 여성운동 범주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운동 주제로 이어진다. 전북 여성사에서 꾸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여성 문제로 성매매 집결지가 있기 때문이다. 군산을 다룬 아래 연구에서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유곽이, 수년 전 화재 참사를 겪은 개복동과 대명동의 성매매업소의 환경으로 이어진 흐름이 엿보인다. 해당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운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성매매 산업이 공고하고 더욱 교묘하게 강화된 오늘날의 운동을 다룰 후속 연구에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표 IV-10 】 전북 여성운동(반성폭력) 학술자료

주제	자료 정보	지역
개복동 대명동 화재 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의수(2002), 「성매매 · 인신매매 후진국」, 『열린전북』 30. • 이미정(2002),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화재참사 대책위원회 활동일지」, 『열린전북』 31. • 이선희(2007), 「성매매 방지법, 3년이 지났지만…」, 『열린전북』 95. • 이정욱(2015),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일본연구』, 24. • 전북여연(2002), 「군산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성매매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열린전북』 35. • 정미례(2002),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본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 『황해문화』 35. • 편집부(2002),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한국여성신학』 48. 	군산
선미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슬기(2021), 「성매매 집결지의 문화적 도시재생 내 예술가의 역할 : 전주 선미촌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7. • 김광모(2017),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문화예술 재생 통한 인권예술 공간 만들기」, 『월간 공공정책』 136. • 김민주 외(2024), 「예술가 없는 예술지구—전주시 서노송예술촌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36(1). • 김용비 외(2021), 「전주 선미촌에서의 여성주의적 예술 실천의 가능성—새 장르 공공미술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2). • 박연정 외(2019),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에 관한 연구—거버넌스 활동과 경계허물기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1). • 박연정(2020),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도시재생」, 『IDI 도시연구』 17. • 소태우 외(2022), 「전주 선미촌 재생 사례를 통해 본 부정적 장소기억의 전환 가능성」, 『인문사회21』 13(2) • 안미선(2019), 「길들이 자라나 데려다주는 곳—전주 선미촌에서 시작된 새 길을 걷다」, 『오늘의 문예비평』 114. • 엄지현 외(2023), 「전주시 선미촌 일대 물리적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5(2). • 이선희(2008), 「성매매, 이제는 그만 논의해야 할 단어」, 『열린전북』 98. 	전주
지역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여성단체연합(2003), 「전북 성매매의 실태」, 『열린전북』 40. 	전주 군산 익산

전북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다룬 연구에서는, 주로 선미촌이 도시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변화한 지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가 재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적인 측면으로만 강화될 때, 성노동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며 삶을 유지해

가는 여성의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이 간과될 수 있다. 성매매 집결지만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수행해야 지속 가능해지는 총체적인 삶의 구조를 재생해야 하는 까닭이다. 군산 화재 참사 때도 폐쇄된 모텔에서 간혀 생활해 왔던 희생자 여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전북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권력이 힘을 행사하는 지배 질서를 다시 쫓아내는 예술로서의 역사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성매매 산업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여성성을 상품화하여 그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노동 구조가 있다. 그러한 여성성이 여성의 육체는 물론 젠더 규범까지도 아우를 때, 생존하기 위해 여성적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종용하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현존하는 전북여성사 자료의 토대 위에서 여성의 몸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새로운 여성사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북 여성농민·어민·상인

현대 전북여성사 관련 자료 중 전북 여성농민, 어민, 상인 등에 관한 자료를 하나의 범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일상사, 생활사 중심의 역사와 위인이 아닌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료에서 구술생애사 자료가 등장하고 비엘리트, 비중산층 계층의 역사 서술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성농민 관련해서는 귀농 귀촌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농촌생활 경험이, 여성어민과 관련해서는 현대 시기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과 여성어민들의 서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부시장 상인의 구술생애사 연구를 통한 전북여성상인 구술채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범주의 자료들은 전북여성사의 이론적 토대 및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사의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표 IV-11】 현대 시기 전북 여성농민·어민·상인 학술자료

주제	자료정보	지역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영애(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의 숲. • 박찬숙(2013), 「어느 원주귀농민의 30년 촌살이 보고서」, 『황해문화』 80. • 오마리아 외(2009), 「전북농촌 여성노인 A의 생애구술에서 드러난 삶의 원동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9). • 진명숙 외(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 진안지역 사례」, 『여성연구』 83. 	전북 순창 김제 진안
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수환(2008), 『바다를 메운땅,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포마을』, 국립민속박물관. • 윤박경(2004),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푸른사상. • 장영예(2001), 「요즘세상—새만금 갯벌 여성어민들의 호소를…」, 『갈라진 시대의 기본소식』 478. • 함한희(2002),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지역의 경우」, 『환경사회학연구 ECO』 2. • 함한희(2004),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새만금 지역의 사례」, 『환경사회학연구 ECO』 7. 	새만 금
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희진 외(2023),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전북연구원 기획연구과제 보고서. 	전주

관련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서 재해석이 요구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시장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여성 상인이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리며 자연스럽게 모성적 역할로 치환될 때, 이는 자연 환경에서 획득한 자원으로 먹이는 일을 하는 농·어부의 돌봄 노동과도 맞닿는다. 그러나 그러한 여성의 노동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노동을 가리고 지우는 성역할을 분리해야 한다.

(4) 전북여성 공동체문화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만을 부여하려는 모성이데올로기와, 여성에게 어머니의 자리만을 허락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서로를 승인하며 권력을 연장해 간다. 이에 따라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요즘, 비혼여성을 비롯하여 정상 가족 바깥에서 살아가기를 도모하는 여성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그러한 여성 공동체가 ‘돌봄’의 의미를 다시 써내는 흐름이 아주 의미 있다.

모성 자체가 아니라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모성이데올로기를 통해 폄훼되었던 돌봄의 생산적 역량을 더 나은 여성의 삶을 발명할 가능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래의 연구들은 그러한 사회적 변화를 늦지 않게 포착하여 이론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다.

【 표 IV-12 】 현대 시기 전북 여성 공동체문화 학술자료

주제	자료 정보	지역
비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정(2017), 「비혼여성공동체로 사는 이야기」, 『여/성이론』 37. 이효연(2011), 「전주에 가면 비혼여성공동체 '비비'가 있다—다름을 조율하며, 서로의 꼴을 봐 주고 사는 공동체 이야기」, 『오늘의 교육』 5. 지은숙(2022), 「도시 거주 비혼여성의 주거 실천과 대안적 거주 생애사의 구축」, 『민주주의와 인권』 22(1). 김희경(2023), 『에이징 솔로—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동아시야. 	전주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혜경(2022),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김혜경(2023), 「지역여성운동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젠더와 로컬리티 : 전주지역 공부공동체 〈여성다시읽기〉의 매체비평 문화운동과 '영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9(4). 	전주
에코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미경(2008),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전북 진안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2. 진명숙(2019),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토종씨앗지키기 실천 분석」, 『농촌사회』 29(2). 	완주 진안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순 외(2023), 「대화로서의 자기-연구-지역 여성 그리고 돌봄과 예술-」,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6. 	남원

(5) 전북 여성친화도시 연구현황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자료가 축적됐다. 현재 전북의 여성친화도시로는 고창, 익산, 순창 총 세 군데가 지정돼 있다(여성가족부, 2024), 그러나 현재 그들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실조차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여성'과 '친화적'이라는 내용과 그 기준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만 강행한 결과는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익산이 국내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지역이지만, 그 뒤로 수십 곳씩 지정된 다른 지역들과도 연대할 때 더 지속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연구자료들의

일부는 익산을 다루면서 지역 정책을 형식적으로만 홍보하는 간행물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엄밀히 말해, 전북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여성사 차원에서 진지하게 짚어낸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도시정책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그 기능의 의미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이론적 작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참여자 생애 구술사 또는 지역여성사 맥락의 자료 생산이 요구된다. 정책에 대한 실용성 중심의 접근에서 나아가 정책이 참여자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중심의 정책 영역에서 ‘여성’ 친화도시 정책이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게 된 새로운 시도가 지역여성사 연구로 가능할 것이다.

【표 IV-13】 전북 여성친화도시 관련 자료

주제	자료 정보	지역
여성 친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모(2013), 「우수정책사례—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 사업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익산」, 『월간 공공정책』 96. • 김광모(2020),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는 익산」, 『월간 공공정책』 176. • 김미술(2013), 「여성친화도시사업 비교연구—익산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5(1). • 박귀자(2013),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11 세미나 자료. • 박용원(2014), 「지역행복생활권과 익산시 여성일자리 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10 세미나 자료. • 소성일(2011), 「여성친화도시 1호 전북 익산—이한수 전북 익산시장」, 『도시문제』 46(510). • 양경이(2014), 「익산시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제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10 세미나 자료. • 오미란(201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07 세미나 자료. • 이동선(2016),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07 세미나 자료. • 조명희 외(2014),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 : 안전도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여성건강증진, 편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25. • 최유진(2013),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편집부(2009),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도시정책」, 『도시정보』 8월호. • 홍달아기(2016),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를 돌아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07 세미나 자료. 	익산

(6) 전북 이주여성

인구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북은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 현실을 반영한 듯 이주여성을 다룬 연구도 많지만, 대부분 양적 연구에 가깝다. 이는 행정적 수요에서 거시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학술 연구자료로서 특징을 보여준다. 이주민 여성들 개개인의 위치와 현실을 들여다보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점점 더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전북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주민 여성이 부딪치는 삶의 문제를 주목하며 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길을 고민하는 연구가 늘어야 한다. 이주민 여성은 전북 사회의 인종적 위계를 성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주민 여성에 대한 여성사 자료를 생산해냄으로써 미래 전북사회의 인종과 교차하여 작동하는 젠더 위계의 양상과 모순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표 IV-14 ■ 전북 이주여성 관련 자료

주제	연구 현황	지역
이주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신규 외(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 분석 및 지원방안—전북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9(2). 박은희 외(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전북 지역 사례」, 『농촌경제』 29(3). 이지훈(2005), 「전라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의 인권실태」, 『열린전북』 73. 조원지 외(2022),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일자리 귀적과 농촌 일자리 지원정책 방향」, 『인문사회21』 13(2). 조인주(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함진옥 외(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곽병선(2009),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8(2). 김선경(2010), 「전북의 문화@문화3 전북의미디어—이주여성의 애환을 담은 ‘피우자 민들레」, 『열린전북』 129. 김철호 외(2021),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 : 익산시장 이주민 비하 발언 규탄 시위의 경험」, 『문화와정치』 8(1). 박시균 외(2012), 「결혼이주여성의 정부지원 한국어교육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전라북도 3개 도시(전주·익산·군산)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7. 	전주 익산 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 외(2012),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전북 무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6(1). 	무주

주제	연구 현황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미연 외(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현대사회와문화』 28. 양호열(20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6(5). 조문익(2005), 「우리 동네 이주여성 이야기(1~6)」, 『열린전북』 69~74. 	장수

(7) 전북여성문학

여성 문학도 전북 여성사의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최명희를 제외하면 전북을 대표하는 여성 문인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전북 출신 여성 작가는 꽤 있으나 상당수가 작품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은 지역 환경을 벗어나서 이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이야말로 지역성의 역사를 깊고 대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여성과 지역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여성사의 끝에는 자연스럽게 전북 여성 문학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더 관심을 받는 소설과 시는 물론, 희곡처럼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를 모색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 작품을 연구할 때 해당 작품이 어떻게 지역적 맥락과 연결되었는지를 더 꼼꼼하게 살피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 표 IV-15 ■ 전북 여성문학 관련 자료

작가	연구 현황	지역
최명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승종(2018),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48. 김승종(2019), 「전북문학의 지역성, 그리고 공간」, 『국어문학』 71. 장미영(2010), 「전북의 문학@문화—최명희의 『혼불』—계몽성과 심미성의 연동」, 『열린전북』 133. 	전주 남원
임순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경(2023), 「임순득(任淳得)과 서정주(徐廷柱)의 관계 연구—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의語り)」와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60. 	고창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현희(2023), 「삶이라는 전쟁 사이의 세 소녀—〈배소고지 이야기〉」, 『공연과이론』 90. 이유라(2022), 「가려진 사람들에게 시선을 닿아 침묵을 깨우는 작가」, 『공연과이론』 88. 함한희(2010), 「한국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91. 	임실

3. 전북여성사 단어 빈도 분석

이 절에서는 지역, 여성, 역사, 전북을 키워드로 1차 수집한 학술 및 민간 자료 175종에 대한 단어 빈도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전북여성사 자료 현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해 향후 여성사 중장기 계획(안) 및 사업내용 구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했다.

175개 문서에 포함된 의미가 있는 단어는 **그림 IV-1**과 같은 빈도를 나타냈다. 총 20개의 키워드가 나타난 가운데 ‘전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교육’, ‘문화적’, ‘가족’, ‘결혼’, ‘정책’, ‘경제’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빈도 분포는 기존 전북여성사 관련 학술자료의 특징이 지역적으로 전주에 집중돼 있고 이어서 익산, 군산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는 ‘교육’과 ‘문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과 ‘결혼’에 대한 단어가 기존 자료에 높은 분포로 언급 돼 전북여성의 역사가 기존 자료에서 가족과 결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1 전북여성사 관련 키워드 빈도 분석



자료: 전북여성사관련 단어빈도분석

전북여성사 관련 상위 100위까지 단어 빈도 분포는 **그림 IV-2**와 같이 나타났다. ‘여성’, ‘여성친화도시’, ‘결혼이주여성’, ‘지역’ 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가운데 ‘판소

가장 큰 빈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가 주제어로서는 가장 큰 빈도를 차지했다. 전북여성사 관련 현행 자료들에서는 전북여성에 대해 ‘년대’, ‘때’와 같이 시간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집’ ‘사회적’, ‘지역’, ‘다양한’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50위 내의 의미 있는 단어의 언급 횟수와 비율, 순위,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서 개수를 도출하고 비율(%) 기준 23위까지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IV-4**와 같이 나타난다. ‘여성’은 전체 1,924회 언급되며, 의미를 가진 모든 단어들 중 0.31%를 차지한다. 앞서 분석한 시대별 주제별 내용과 일치하는 주제어는 ‘여성친화도시’, ‘농약’, ‘성매매’, ‘결혼이주여성’이며 전주와 남원이 앞서와 같은 집중성을 보여준다.

그림 IV-4 전북여성사 단어 비율 분포

연번	Word	Frequency	%	Rank	Documents
1	여성	1924	0.31	1	117
2	여성친화도시	1428	0.23	2	16
3	집	1090	0.18	3	83
4	사회적	1079	0.17	4	87
5	지역	1021	0.16	6	100
6	여성의	954	0.15	7	93
7	년대	740	0.12	8	72
8	다양한	700	0.11	9	112
9	도시	673	0.11	10	45
10	사업	656	0.11	11	48
11	서울	624	0.1	12	73
12	판소리	531	0.09	16	21
13	전주	513	0.08	17	64
14	결혼이주여성	506	0.08	18	14
15	한국	494	0.08	19	77
16	추향전	480	0.08	20	12
17	참여	464	0.07	21	47
18	전북	455	0.07	22	80
19	활동	450	0.07	23	67
20	마을	447	0.07	24	40
21	농약	347	0.06	38	9
22	성매매	331	0.05	44	17
23	남원	324	0.05	45	30

175개 문서를 전체(n)로 한 빈도를 살펴보면, **그림 IV-5**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175개의 문서 중 ‘경제적’이라는 단어는 230회 등장하고, 70건의 문서 즉 연구자료에서

나타나고 39.77%의 비율을 나타낸다. 기존 학술자료에서 전북여성사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여성사의 주제별 접근에서 경제, 교육, 문화, 정책/정치를,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다. 문서 기준으로 100위와 50위까지의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면, **그림 IV-6**과 같이 나타나고 단어 빈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5 전북여성사 문서 빈도 분포

연번	Word	Frequency	Documents	Documents %
1	경제적	230	70	39.77
2	교육	398	70	39.77
3	전주	513	64	36.36
4	문화적	391	57	32.39
5	관계	218	57	32.39
6	학교	151	54	30.68
7	가족	293	54	30.68
8	결혼	271	50	28.41
9	교육을	164	48	27.27
10	환경	106	47	26.70
11	경제	90	44	25.00
12	정책	258	43	24.43
13	가족의	131	39	22.16
14	군산	196	36	20.45
15	일본	188	34	19.32
16	문화를	64	34	19.32
17	정치	94	33	18.75
18	결혼을	93	33	18.75
19	익산	213	33	18.75
20	관계가	69	30	17.05

그림 IV-6 단어 포함 문서 워드클라우드(100위/ 50위)



4. 소결 : 시사점

첫째, 현행 전북 여성사 관련 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결과 인물, 교육, 노동과 운동, 문화, 정책으로 자료 특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전주와 군산에 조성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운동, 그리고 전북지역 전반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다룬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사료가 규범적 여성성과 지역성의 외부에 자리한 여성 집단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북 여성 인물과 단체에 관한 연구는 얼마간 진행되었으나, 지역의 역사를 함께 고려한 연구 상황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미흡하다. 이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성의 경험을 교차적으로 연결한 지역 여성사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단어 빈도 분석 결과 현존하는 전북여성사 연구의 사료의 집중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시군간행물 및 민간 간행물의 주제별 접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결혼이주여성, 성매매, 농약, 춘향전, 남원, 전주가 유의미한 단어로 나타났다. 주제 영역별로는 경제, 교육, 문화, 정책/정치가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 익산이 최다 빈도를 보여 향후 중장기 여성사 연구 계획 등에서 이를 유효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북 여성사를 다룬 학술 및 민간 간행물을 살펴본 결과 도 및 시군 15개 지역의 자료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다뤄진 연구 규모와 질적 내용은 물론,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편차도 크다. 이는 전북지역의 발전이 충분히 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인구의 수가 적다거나 인프라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기후생태 위기가 도래한 오늘날 자연환경을 간직한 호남평야에 기대어 살아왔던 전북 곳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여성사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장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작업은 그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북여성사 발간 성과와 과제

1. 전북여성사
 2. 전북여성구술생애사: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3. 소결: 시사점
-



전북여성사 발간 성과와 과제

1. 전북여성사 발간

기존 전북여성사 발간 자료는 전북여성 삶과 관련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여성사 연구에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기존 전북여성사 간행물 중 통사라 할 수 있는 『전북여성발전50년』, 『전북여성100년사』, 『전북여성과 동행 50년』과 생애구술사인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의 4종을 분석한다. 이번 기초연구에서 지역여성사 관련 발간물에 관한 내용 분석은 지자체 또는 지역 여성정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북 여성사 관련 발간물의 내용 분석의 범위 또한 위 4종의 전북지역 여성사 연구물에 국한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인식하면서 새로운 역사서술과 해석이 담긴 ‘전북여성사’가 줄을 잇고, 아카이브 구축, 교육·전시·행사 등 다양한 후속 작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는 개별화된 남성 위주로 남성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서 여성의 기억은 대체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존중받지 못했고, 여성들의 경험은 늘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고 주변화 되어서 역사 서술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다.

지역여성사는 여성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지역사를 재확인하며 동시에 지역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기에 각 시도와 군 등 지역마다 지역여성에 대한 통사 또는 현대사 위주 여성사를 출간하고, 더 나아가 여성 관련 전시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무명의 무수한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왔다. 역사는 공개된 몇몇의 기록만이 아닌 공개되지 않은 이면사들의 저장소이기도 하다. 전북지역 여성 역사는 시대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가운데 여성만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과거는 현재 모습의 근원이며, 미래에 대한 기대치이기도 하다. 흔히 여성들의 삶을 질곡의 세월이나 인고의 세월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역사 속에서 전북여성의 삶은 오히려 역동적이고 사회참여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북지역 여성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은 우리 지역 여성들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를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전북지역 여성사는 전북지역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동시에 역사에서 주변화되었던 여성들의 활동과 경험을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여성의 역사를 전국적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남성 중심이 아닌 여성의 시각에서 복원하고 역사 속에서 전북여성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일반 대중여성들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들이 거의 없어서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진정성에 무게를 둔 여성역사보다는 몇 알려진 여성들의 극적인 삶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소수의 여성지도자들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회변혁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운동과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이 중요하다는 남성중심의 역사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일 뿐이다. 여성들의 의식을 제대로 서술하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역사 서술을 위해서는 여성만의 특수성을 알아봐야 하고 여성사의 특수한 국면을 전체사의 구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밝혀야 한다(함한희, 2024).

1) 전북여성발전50년

『전북여성발전50년』(전라북도, 2000)은 1996년 전라북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난 50여 년 동안의 전북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 제분야에서의 활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북여성발전50년』은 교육, 사회단체, 복지건강, 법과 인권, 가정생활, 문화예술, 경제활동, 정치행정 등 모두 8개 분야로 나뉘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지역 여성들의 지위 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전북여성발전50년』은 전북여성들의 생활상 및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이를 토대로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

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발간된 만큼 일반 여성들의 삶을 천착하기 보다는 문헌 중심의 기존 기록물에서 여성 관련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식으로 그치고 있다. 전북여성만의 특성을 담아낸 사진이나 내용이 드물고 각 분야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료 차원에서 그 가치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여성발전50년』은 영역별로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여성단체활동, 복지건강, 법과 여성 인권, 가정, 문화, 경제, 정치행정이며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 V-1** 과 같다.

표 V-1 『전북여성발전 50년』 목차 및 내용

목차	내용
1장 전북여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지역의 여성교육 내용과 그 발달과정을 정리 여성사회교육의 실태와 변화
2장 여성단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별로 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을 정리하면서 활동방향의 전환이 모색되었던 시점을 주시해서 의미를 찾아 기록 단체별 또는 연대활동을 벌인 기록 중심
3장 복지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이 주체가 된 건강과 복지가 아닌, 전반적인 복지제도 속에서 지역 여성의 복지권 향상 추이,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요보호 여성들의 복지시설 이용 실태와 발달사 등을 다룸
4장 법과 여성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권이 제도적으로 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출발했다고 인식 여성 관련 법의 제 개정을 중심 현황
5장 가정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생활의 변화를 의식주, 가족 형태, 가치관 변화 등 사회변화 흐름 속에서의 현상을 짚음
6장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장르별로 나눠 전북 출신 여성의 활약상과 지역 단체의 선두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
7장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경제활동 면에서 남성에 비해 기회나 처우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함을 통계청 등의 각종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 현상만을 담고 있을 뿐 노동자, 농민 등 전북여성의 치열한 투쟁 등의 내용을 담지 않음
8장 정치와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분야에서는 제헌국회 이후 지역의 여성 정계 진출 현황과 소수 여성정치인 활동내용을 담음 행정분야에서는 공무원 조직 변화에서 여성공무원 정책, 여성행정의 변화 등 현상을 다룸

『전북여성발전50년』의 내용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의 여성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주권 찾기를 통해 농어업의 주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고창 삼양사 소작농 토지양도투쟁, 부안 노곡 수몰민 대토보

상투쟁, 장수 장계지서 점거투쟁, 수세 폐지 농민대회, 임실 고추시위 등에서 치열했던 여성농민 활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경우도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활용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 부당해고 투쟁 등을 통해 지역 노동운동의 초석이 되었는데도 언급이 없다. 복지건강 분야 또한 성평등 관점에서 성주류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북지역 여성복지의 방향과는 비껴있다.

가부장적인,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여성 1호가 여성의 인권보장, 성평등을 전적으로 맡겨주는 않지만, 여성이 처한 위치에서 호명됐다는 점에서도 여성 1호의 기록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전북여성발전50년』은 많은 부분에서 이 기록을 간과하고 있다.

2) 전북여성과 동행: 전북여성회관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까지

『전북여성과 동행 50년』(전북교육문화센터, 2013)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신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자료집으로, 전라북도여성회관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까지에 이르는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아갈 50년의 이정표를 밝혔다.

전주시 고사동, 금암동, 덕진동을 거친 센터의 시대별 변화·발전상을 태동기, 안착기, 도약기, 변화기, 과도기, 전환기, 번영기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967년 3월 ‘전라북도여성회관 기공식’부터 2018년 11월 ‘개관 50주년 기념식’에 이르는 센터의 연표부터 시대별 특징과 사진자료와 함께 실어 센터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역대 관장과 센터장의 인터뷰와 함께 여성회관과 센터에서 진행한 여성능력개발교육과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사업,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여성의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었다. 여기에 교육강사, 동아리 활동자들의 수기와 취업성공 후기로 회관과 센터와의 동행이 주는 성장과 자부심을 보여준다. 또한 센터가 5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전북여성미래포럼 주제발표문과 중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센터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허브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젠더 이슈와 현안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축의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968년 전주시 고사동에서 전라북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02년에 재단법인 전북여성발전연구원에 수탁운영된다. 과도기를 거쳐 2005년에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자리 잡고 2023년 재단법인 전북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해서 현재에 이른다.

『전북여성과 동행 50년』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사회 변화에서 지역의 여성을 거시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50년 역사에 초점을 둔 ‘기관사’라는 성격상 기관의 중점사업과 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북 여성들의 활동을 주로 담음으로써 전북지역 여성의 농밀한 이야기나 일부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기관 역사 기록물의 특성상 전북지역 여성들의 경험과 삶의 애환을 시대적 상황과 함께 복원하고 재조명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여성회관의 역할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취업지원 더 나아가 실질적인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성평등 실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중심의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센터를 그리는 데 충실했다.

회관에서 센터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이전의 공식으로 생성된 자료들이 모두 전라북도 본청으로 이관·폐기되어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50년의 역사를 기록한 데 큰 의의가 있다.

3) 전북여성 100년사

『전북여성100년사』(전북연구원, 2013)는 100년 전북 근·현대사를 여성을 주축으로 조망한 최초의 통사(通史)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생활경제·여성운동·종교·문화예술(체육)사 등으로 나눈 이 책은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시대별로 분류해서 분야별 시대적인 사건이나 인물의 활동, 흐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전북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삶은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왔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개화와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에서 주체적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6·25'로 인해 집을 떠난 남성 가장들을 대신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간 여성들의 삶을 치열하게 조명하는 방식이다.

그간 전북여성사 연구가 양적·질적으로도 한참 뒤쳐져 있는 데다 대부분 기존 역사에 과거 여성의 족적을 추가하는 '보충사', 역사 발전에 여성이 어떻게 기여해왔는가에 초점을 맞춘 '공헌사'에 머물러 있었다면, 『전북여성100년사』는 남성에 의해 규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만이 아니라 출산·자녀양육 등에서 여성이 수행한 역할,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할, 저항 세력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통해 역사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움직였는지 주목하여 밝히고 있다.

1960~70년대 농민의 딸에서 산업역군으로 부상한 여성, 1980년대 화병 앓으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한 어머니, 1990년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와 여성들의 정치 참여 등 여성의 삶과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방점을 두고 서술했다. 특히 엘리트층이 공유한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인식의 엄청난 차이, 성차별 보다는 가난이 더 고통스러웠던 여성 노동자들의 치열한 삶을 그리고 있다.

서예가 김진민·김소희 명창 등과 같은 유명한 여성들의 극적인 삶 외에도 무명의 여성들의 생애를 세필로 복원해서 평범한 여성들이 갖는 삶의 진정성에 집중하고자 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전북여성들의 기록이 주를 이루면서 여성 대중의 삶을 세밀하게 복원하기에는 역부족을 보였다.

『전북여성100년사』는 “여성학과 역사학의 중간 지점에 서 있으며, 여성들의 주체적 삶 읽기를 시도하면서도 여성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적인 시각을 보여준다(전북일보, 2013.03.20.)”는 표현처럼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2.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전북여성가족재단, 2023)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2023년 6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 ‘전북여성생애구술사 기록전문가 양성과정’의 수료생 17명이 참여해서 발간한 여성생애 기록집이다. 12명의 기록자가 12명 여성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라북도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 ‘나의 여성 가족의 삶을 기록하다’라는 두 가지 주제에 나눠 담았다.

구술생애사는 개인의 목소리를 통해 당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생생하게 전달하므로 구술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구술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록자 또한 선정 이유를 뚜렷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 첫 장에 생애 개요로 또는 마지막 장에 생애 연보를 실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활동 내용이 강조되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지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의 구술자, 기록자, 주요생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 |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목차 및 내용

구술자	기록자	제목	내용
고은설	최장미	아주 오래된 동네 노송동, 만민의 ‘별의별’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도시문화기획사 ‘Art-Cluster 별의별 대표 고은설 별의별은 전주의 유희 공간을 활용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을 재생하는 비영리단체. 인구의 이동과 노령화로 침체된 구도심 지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가고 있음.
김미숙	봉귀숙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섬유 해고자로 대학 4년 때 시위 주동으로 인해 1년 징역, 6 10항쟁으로 가석방되고 특별사면된 후 25세에 군산 한길섬유를 거쳐 익산 동일섬유에서 일하다 노동운동으로 해고됐음. 31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39세에 시국사건 임용제외자 특별법으로 교단에 선 후 교직에 몸담고 있음.

구술자	기록자	제목	내용
김현정	이은심	5남매 중 막내로, 고생을 안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근무자. 197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결혼하면서 전주로 이주하였음.
문민희	김누리	산 넘어 산, 돌고 도는 삶, 그게 내 인생이에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여성 문민희는 경북 영덕에서 태어남. • 16살에 부모의 이혼으로 수도권 외할머니댁에서 살아 갔다. 공대에 진학해 서울살이 시작, 각종 일자리와 대학생할 경험 후 수학교육과 전과함. • 전북에서 거주하며 인턴교사,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생활을 하였다. 전주에 정착해서 남편, 딸과 가족을 이룸.
배월자	하채현	40년 식복사 일생의 시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 신부가 신앙 사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손옥자	조은지	여성 농민의 삶: 고향에서 나고 자라, 살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고산면 농군 출생.
최**	이현경	텃밭이야 도시에도 있지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출생으로 결혼 후 과천, 서울, 일산, 부산 등에서 생활하다 10년 전 완주로 이주한 귀농인.
김**	이윤희	달을 보고 부르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후 1991년 남편이 창립한 봉제회사에서 미싱사로 시작하여 함께 공장 운영
김경숙	강지이	해방동이 첫째, 해방을 꿈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세의 어머니 김경숙씨의 삶을 기록.
이정애	장미경	힘없이 달린 끝에 찾아낸 최고의 일-정애씨의 노동연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년부터 생계노동(가내수공업, 삼립호빵 공장, 남대문 옷 도매업 등)에 종사하기 시작해서 현재 완주 사랑드림요양원에서 일하는 최고참 요양보호사 1954년생 어머니 이정애씨의 삶을 기록함.
안소민	정선환	인생은 끝도 시작도 없는 수업이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시작해 1998년 명예 퇴직 후에도 기간제 교사생활을 하고 2011년 5월 완전히 교단을 떠난 73세의 어머니 정선환씨의 삶을 기록함.
최순남	권애자	씻내 나는 세상살이 '워져갔어, 히보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의 친누님인 56년생 최순남씨의 삶을 기록함.
최정희	이영희	팔십 년을 살고서야 자신을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46년생 최정희씨의 삶을 기록함.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은 여성 생애 구술을 통해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거나 주류적 서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은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전북여성의 경험 이야기, 구술생애사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섬진강댐, 용담댐 등 지리적 특성과 연계한 전북여성의 이야기 즉, 전북지역의 독특한 여성사적 경험을 조명하며, 지역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여성생애구술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소결: 시사점

전북여성사 초기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삶을 정리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는 일에 머물러 있었다. 초기 연구는 전북의 역사를 써내려 왔던 여성들의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조명하는 일부터, 또 각 분야에서 빛을 발했던 전북의 여성들을 찾아내서 기억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한 경향이 짙다. 전북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꼽을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사료에서조차 여성 관련 사료가 드물고, 일부 드러난 소수의 여성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는 데다 해석에서 젠더 관점이 작동되지 못함으로써 일반 여성들의 삶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통사, 인물사는 시대별 또는 역사적 사건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지역 여성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마저도 전국 시도별 지역 여성사 발간 건수를 비교해보면 전북에서의 여성사 관련 발간물은 현저히 적다. 타 지역의 경우 제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료집이 발간되었고 전남, 충북, 경북 등에서도 신문기사 또는 사진자료들을 모아서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그런데, 전북지역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모아진 자료들조차 보관되어 있지 않아 축적된 자료가 없으므로 매번의 전북 여성사 연구가 기초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에서는 2000년 『전북여성발전50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발간되었고 13년 후인 2013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통사 성격의 『전북여성100년사』를 발간했으며,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신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여성과 동행 50년』을 발간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3년 전북여성가족재단에서 생애구술사인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을 발간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면서 지역여성의 정체성을 찾고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지역여성사 연구가 이뤄졌다. 『전북여성발전50년』이나 『전북여성100년사』 등 초기 지역 여성사가 여성들의 숨겨진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해 보는 데 그친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통사가 전북의 여성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고 여성인물을 발굴하면서 전북역사에 여성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 선구적인 역할을 해내던 시기 등을 깨우쳤다는 큰 의의가 있다. 역사에서 비껴있던 소외되었던 전북지역 여성의 삶을 중심에

세워서 여성의 시각으로 다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통사를 바탕으로 전북여성 역사 가운데 중점을 두어야 할,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주제를 추출해내고 이에 초점을 맞춘 생애구술사를 진행하는 데 다분히 기여하고 있다.

『전북여성100년사』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여성 중심의 역사의 기록을 위한 시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는 있다. 그러나 함한희(2024)의 표현처럼, 과거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하는 단순한 역사기술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해석하는 역사로 올라서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2013년 이후 전북여성정책연구소를 비롯한 여성연구 전담기관에서의 전북여성사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개별 연구기관에서 또는 개별 연구자의 연구로 진행되면서 여성사 연구현황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 여성사 자료의 아카이빙 및 공유 체계와 관련해서, 전북여성사 박물관은 커녕 여성사 전시관이나 도서관 등 여성사 관련 상설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기존 여성사 연구물의 활용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지역의 여성사 연구는 교육 세미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성과가 공유되고 있다.

향후 전북여성사 발간은 ‘타 지역 여성과 비교해서 전북여성만의 특성, 전북여성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전북여성사의 주제와 범위를 확장하고, 주체별·영역별·시기별 활동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외연의 확장과 주제의 깊이를 더하는 여성사 연구 및 발간이 필요하다.



전북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중장기 추진계획
 3.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콘텐츠 사업화 전략
 4. 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

VI

전북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북여성사 연구의 관점과 분야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둘째, 전북자치도 여성사료에 대한 일차적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전북여성사의 관점은 전북 여성들의 삶에 분수령이 된 사건을 역사화하고, 전북 여성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과 과정은 무엇인지를 조명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관점의 지역 여성사 연구로서 추진 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지역 여성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다음 세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전북역사의 남성 중심성을 성찰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북사회 가부장제의 독특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 엘리트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 위치를 견지하며 전북여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복원/재위치 짓는 것이다. 셋째, 전북여성사의 분야 또한 전북여성의 삶의 역동과 변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북여성의 삶에 전환을 야기한 사건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 전북여성사 연구 관점은 전북사회의 젠더규범과 젠더 권력관계의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전주남부시장 상인 여성들은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젠더 규범과 불일치를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은 전북사회에서 타자로서 삶의 경험을, 귀농귀촌한 여성들은 전통적이고 온건한 가부장제의 특정 양상을 가시화 할 수 있다. 두번째 주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위치로서 전북여성사는 1990년대 전국적 반성폭력 운동을 추동한 여성

운동의 발원지로서 의미 복원을 예로 들 수 있다.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익산의 역사를 물화된 정책이 아니라 구술자 여성의 경험으로 복원할 수 있다. 세 번째, 전북여성의 삶의 변화를 초래한 사건을 포함한다는 것은 전북여성농민과 새만금 개발, 수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민 구술사 사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처럼 전북여성사의 세가지 연구 관점은 여성의 경험자료를 생산하면서도 거시사를, 전북사회의 젠더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위 연구관점에 기반해 전북여성사의 범위 즉, 개념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2장의 지역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 검토 후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그 개념과 범위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전북여성사’란, “전북에서 출생, 성장, 활동, 사망 등 생애를 보낸 여성의 삶 또는 전북사회의 성별 규범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건, 인물, 문화등에 대한 지역 역사”라고 정의한다.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사 사료의 생산과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적극적 구술 생애사 작업을 통해 직접 여성사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또는 전북여성들의 사적 기억 수집해 사진, 일기, 가계부, 편지, 자서전 등을 통해 평범한 전북여성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 형태 포함해 향후 여성사 사업화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현황 분석에서 특정 시기 여성 사료의 발굴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중장기 여성사 발간 추진 및 주제사 포함 세부 연구과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여성, 여성농약, 여성친화도시 등 본 연구 결과 세부 주제로서 기존 자료의 토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분야의 경우 세부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두 번째로 여성사 사료 활용 및 도민 확산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여성사 발간은 지역여성사 연구 과정에 부합하고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근현대 구술생애사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민 확산 및 전국적 단위의 공공기억을 생산하고 전북여성의 삶과 생각을 기록하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 온/오프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사 전시,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을 사업 추진 기반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타지역 사례조사 결과, 운영주체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서울여

담재 모델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광주 사업화 사례를 참고해 전략 주제와 인물을 선정하고 전북여성사 사업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학술 포럼, 문화사업 (전시, 영화, 공연 등), 기념사업, 기념관 설립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장기 추진계획

여성사 연구 및 사업 활성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 추진내용과 추진 시기를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여성사 연구의 이전 단계에서 기초 조사 성격으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전북여성사의 세부적인 주제와 5개년에 걸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표 VI-1 | 전북 여성사 연구 및 사업 중장기계획(안)

추진내용	추진일정				
	2025	2026	2027	2028	2029
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				
여성사주제별 연구 및 집필		여성 농민	이주여성	여성정책	교육문화예술
전북여성사 발간 위원회 구성	구성				
생애구술사 연구	전북여성 생애구술사1	전북여성 생애구술사2	전북여성 생애구술사3	전북여성 생애구술사4	전북여성 생애구술사5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대 도민 사료 수집	스토리텔링 공모		
탐방로 개발		개발	개발	운영	운영
여성주의 문화해설사 양성			양성	운영	운영
아카이브 구축		계획 수립	추진		
여성사공간 (전시관/문화관/박물관)조성	근거 마련	추진 단위 구성	추진	추진	운영
전북여성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검토	개발	운영	운영	운영

여성사 주제별 연구 및 집필을 제시하기에 조사결과가 충분치 않아 향후 중장기 기본

계획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제한적이거나 현재 전북여성사 관련 공공 및 학술, 민간 자료의 축적 현황과 주제 집중 경향을 근거로, 2026년부터 4년간 여성농민, 이주여성, 여성정책, 교육문화예술 관련 주제사 연구 및 집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여성사 연구는 도민과 의회, 도, 시군, 여성계, 학계의 공동 작업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수행체계에 협의기구를 포함하는 것은 전북여성사 연구 발간 과정에서 체계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제 및 인물 등 선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가칭 여성사 발간 위원회는 여성사 연구 및 사업의 연계효과를 배가하고 연구과정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연구 및 사업은 최근 2년간 시도한 전북여성사 발간 작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여성사연구의 관점과 가장 부합하는 여성사 사업으로서 생애구술사 사업은 연구주제의 선정으로부터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채록, 발간, 아카이빙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민 대상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사료를 수집 및 전북여성 대상 스토리텔링 공모전과 같은 사업도 추진 가능하다. 공/사적 여성사 자료를 수집해 새로운 여성 경험의 사료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사업의 인지도와 효과성이 배가되고 전북여성사의 새로운 정체성,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탐방로 개발은 전북여성사를 콘텐츠로 한 사업화 방안으로서 제시했다. 광주 사례 등에서 여성사 발간 및 구술생애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연구 결과 생산된 자료를 역사문화 콘텐츠로 재구성해 도민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전북여성사 관련 유적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고 장소에 부여된 여성사적 의미를 현재 도민과 공유함으로써 역사적 공공재를 생산하는 의미가 크다.

또한 전북여성사의 범위는 전근대 전통적 가부장제의 토대를 공유한다. 역사와 문화, 장소를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대안적 역사 해설이 가능한 여성주의적 문화해설 내용과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탐방로 등 물적 사업 기반이 완성됨과 동시에 여성 도민이 주축이 되어 다른 여성도민에게 전북여성사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록 하는 사업 구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여성사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 여성 정체성을 구축하는 등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역사의 재해석과 확산 과정에 적극적인 전북여성의 참여를 기획해야 한다.

전북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은 전북여성사 연구와 1년차 이후부터 동시 진행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온/오프라인 동시 구축이 요구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후속 세대와 접점을 형성하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고 관련 서적, 연구물, 학술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성사 공간 조성은 전시, 문화,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공간으로서 전북여성사 연구, 교육, 사업의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단위를 구성한 후 5년내 운영에 착수할 수 있다면 전북여성사 연구의 유의미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북 등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5년 광복 80주년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전북여성사 연구 결과에 기반해 전북 후속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전북여성사 관련 교육 과정이 개발 운영될 수 있다. 이는 전북여성의 삶과 사회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는 의의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로 전북여성사가 교과과정 또는 대시민 정기강좌 등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콘텐츠 사업화 전략

1) 중점 여성인물 선정(안)

전북 여성사 기초 연구로서 일차적인 자료를 구축한 결과 인물과 주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사업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인물은 전북/한국 사회 지배적 성별 규범에 대해 유의미하며, 도민의 수용성 및 공공기억화 작업 가치가 있고, 현재 자료/유적/해석 가능성이 풍부한 대상으로 했다. 예비적으로 다음 3인을 중심으로 추가 연구 및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1) 방애인²²⁾

방애인(1908~1933) 황해도 태생으로 개성여자고등보통학교(개성 호수돈여고)를 졸업하고 1926년 4월, 18세에 전주기전 여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당시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회원. 서문교회 교인으로서 전주고아원 설립을 위해 전주의 네 곳 교회 청년들이 동원돼 전주의 5천여 가구를 방문하여 모금활동을 할 때 기도의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눈물의 사람이라 할 만큼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곳 없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등 험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고 슬픈 자를 위로 하였고, 야학에서 가르치는 등 온 삶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바쳤으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선생은 생전에 두벌 옷을 지니지 않았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 전주에 여름 큰 수해로 수재민들이 다가공원에 피난하였을 때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전부를 팔아 수재민들을 돕고 금연운동에도 나섰다.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회원들은 물론 상복 입은 수십 명의 학생들과 외로운 고아들은 목을 놓아 울면서 뒤를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전주YWCA는 2002년 방애인선생 기념사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948년 고 배은희 목사(전주서문교회 제3대 목사)가 저술한 '방애인 소전'을 현대어로 번역 출판, 출판기

22) 각 인물에 대한 설명은 전북여성 100년사 및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인용했다.

념회를 여는 한편 2003년 조선성자 장애인 선생을 기리는 특강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2003년 '장애인 봉사단'을 구성해서 '전주Y 장애인 봉사의 날'을 정해 보육시설 등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벌이고 소외된 이웃을 정기적으로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또 특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주Y는 매년 장애인 선생이 잠들어 있는 완주군 비봉면의 서문교회 안식원을 참배하고 있다. 2011년 전주YWCA는 역사 속의 여성지도자 발굴계승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성자 장애인' 뮤지컬을 기획·제작했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극단 이바구·문화예술선교원이 후원한 '조선성자 장애인' 뮤지컬 공연은 극적일 정도로 짧은 삶을 살다간 장애인의 삶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장애인 선생은 1926년부터 6년 여 간 전주기전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주YWCA 고아원을 설립하는 등 일제 강점기 때 전주 지역 고아들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했다. 전주YWCA는 거리의 성자 장애인 장학회 설립을 통한 젊은 지도력 발굴과 지원을 위한 청(소)년운동을 벌이며 장애인 선생의 생애와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고 계승하고 있다.

(2) 임영신

임영신은 1914~1918년 전주 기전여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전주에서 3.1 운동 참여했으며, 193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총무 등 역임했다. 1942년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의 부인대가조직되자 김활란(金活蘭), 박순천(朴順天) 등과 함께 지도위원 역임했다. 1945. 10월에 광복 후 중앙여자전문학교 설립했으며, 여자국민당 창당을 창당했다. 1946. 9월 중앙여자대학 설립 후 학장 취임 이후 중앙대학으로 개편과 함께 학장에 취임(1948)했다. 1948. 8월 상공부 장관 취임 했으며, 194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의 독직사건(瀆職事件)으로 기소 되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1950년 제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했으며, 상공일보사 사장(1950), 여성계사 사장(1952)을 역임했다. 1953. 2월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이후 중앙문화학원 이사장 역임했다(1961.11.). 이 외에도 대한여자청년단 단장(1961), 민주공화당 총재고문(1963), 대한부인회 회장(1963~1971), 교육연합회회장(1965~1973), 세계교직자연합회 회장(1966), 재건국민운동중앙회 부회장 (1969), 민주공화당 고문(1971), 국민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1972~1976)을 지냈다. 문화훈장 대한민국장, 미국 아이젠하워상, 청

조근정훈장 등 수여받았다.

(3) 최명희

최명희는 1947년 전주에서 출생했다. 전주 풍남초등학교, 전주사범학교 병설중학교,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졸업했다. 1972.2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1972.3월 기전여자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다. 1974.3월 서울 보성여자고등학교로 전근했다. 1980년「중앙일보」신춘문예에단편소설 「쓰러지는 빛」당선되어등단했으며, 1981년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장편소설공모'에「혼불(제1부)」당선됐다. 1988.9「혼불(제2부)」를월간「신동아」에1995.10까지 연재했고, 1990.12 월 「혼불」제1부와 제2부를 네 권 분량으로 한길사에서 출간했다. 1996.12월「혼불」전5부 10권으로 출간했다. 단재상(문학부문), 세종문화상, 호암상(예술부문), 여성동아대상, 전북애향대상 등 수상했으며 1998.12월 지병 악화로 별세했고 전주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 '최명희 문학공원'에 안장했다.

(4)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여성농민

전근대 여성 인물은 허구의 인물을 포함해 발굴됐으나, 전문가 회의 결과 동학농민혁명운동에서 여성 인물 및 사료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 장흥의 경우 '이소사'가 성평등을 주장한 동학농민군에 함께 했고 전투 지도자로서 활약했다는 점을 발굴했다. 장흥 전시관에는 이소사의 모습이 그림으로 재현돼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전봉준의 딸로 확인되는 전옥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관련 사실의 추가적인 발굴 및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전북은 동학의 본고장인 만큼 여성 농민의 발굴이 필요하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근대적 사상의 발원에 여성들의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남아있는 동학혁명 기념관에서 여성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전근대 여성 농민 주체의 발굴을 목적으로 사료 발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전북여성사 역사문화 공간 조성

(1) 전북여성사 복합 공간 조성 : 전시, 교육, 홍보 등

지역여성사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내 거점 공간을 통해 여성사 연구, 전시, 사업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서울 여담재 사례 등을 참고해 지역여성사 연구의 관점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전북여성사 관련 복합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문화탐방로 조성

본 연구 결과 수집된 기초 자료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전북 여성사 주제사 분야 및 시대를 포괄하는 접근으로 전근대는 전북여성농민, 근대 전북여성 교육, 현대 전북여성 노동, 현대 전북여성 노동(익산), 전북여성 인권길(전주/군산)을 시범적으로 구성했다.

① 전근대 : 전북여성농민길

전북여성농민 문화 탐방로는 여성 농민 발굴 후 다음 그림과 같은 탐방로에서 여성사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기입하거나 새로운 장소들로 연결할 수 있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동학 기념탑, 위령탑, 기념관을 활용하면서도 이러한 공식적 기념시설에서 여성 부재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탐방이 가능하다. 전근대 여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인지가 왜 문제인지, 전봉준이라는 남성 지도자 외에 여성들이 어떻게 근대적 ‘남녀평등’의 사상을 사유하고 혁명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성농민의 위치에서 전근대 남성 중심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농민의 삶이 현재 전북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문화 탐방시 교육 및 해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그림 VI-1 Ⅱ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농민길



자료: 사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진 구성

② 근대 : 전북여성 교육길

근대 전북여성교육길은 여성에 대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전주를 배경으로 하는 사업화(안)이다. 여성 선교사들과 여학생 교육의 의미를 조명한다. 전주에서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을 시작한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 의의와 전북 여성들이 어떻게 근대적 주체성을 형성해 갔는가를 인식할 수 있는 탐방로이다. 전주기전학교 여학생 독립운동을 포함해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에 전주여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통해 국기와 여성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Ⅱ 그림 VI-2 Ⅱ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교육길



자료: 사진 전주시민기록관 등, 그 외 연구진 구성

③ 현대 : 전북여성 노동(익산)²³⁾

전북여성노동의 의미 있는 투쟁사업장과 여성노동자들의 역사적 장소를 연결해 익산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전북여성 노동길을 구성할 수 있다. 전주 외 전북지역 역사를 조명할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익산은 1970년대 1990년대 여성노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낸 장소이다. 익산은 정부 주도하에 1975년 수출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돼 외국자본을 유치했다. 전북 농촌 지역의 10대~20대 여성들은 이후 주로 섬유, 잡화를 생산하는 임금 노동자로서 삶으로 전환 돼 갔다.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이나 여성노동조합 조직화에 크기 기여했다. 탐방로 상의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창인동 성당은 여성노동자들이 집화와 교육을 통해 연대의식을 형성하던 공간으로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YH 노동조합 지원활동을 한 이철순 등이 여성노동자를 대상 야학을 운영했는데 이곳이 노동자의 집이다. 노동자의 집은 창인동 성단 인근에 위치해 노동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여기서 노동조합 결성에 필요한

23) 이 절의 내용은 노동운동역사자료 통합검색 시스템(<https://www.hannae.org/>)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준비를 하거나 노동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주체화되는 공간이며 다른 여성노동자들과 연대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작동했다.

태창 메리야스는 대표적인 전북의 섬유공장으로서 198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곳이다. 태창 메리야스는 박복실 위원장을 중심으로 82년 당시 전북 유일의 민주노동조합이었지만, 124명의 집단 해고를 겪었다. 소속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며 파업과 시위를 전개했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노동운동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림 VI-3 |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노동길



자료: 사진 디지털이산문화대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 외 연구진 구성

후레아 패션은 여성 의류 생산 공장이었다. 1980년대 말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며 쟁의 활동을 펼쳤다. 후레아 패션 여성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을 진행했고 노동조합 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후레아 패션은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쟁의를 이끌어내 노동권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후레아패션은 독일계 회사로 파독 간호사가 독일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도 있었다.

아세아스와니는 스키용 장갑 생산 공장으로 1970년대 익산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과 강제 잔업이 만연했다. 아세아스와니 노동조합은 여성 176명, 남성 36명으로 여성이 다수였다. 회사는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와 노조 금지라는 특전이 종료되자 중국으로 회사를 이전했고 아세아스와니 노동자들은 해고된다. 당시 조합원들은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을 점거했고 가두시위, 외자출자기업 노조와 연대 투쟁을 했다. 여성 노동자 4명과 남성 노동자 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일본 본사가 있는 오사카로 원정 투쟁을 간다. 전주, 익산, 일본에서 동시적으로 지지 활동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공장 재가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과, 퇴직금과 미지불 임금 지급, 학비 보장을 수용했다.

④ 현대 : 전북여성 인권길(전주/군산)

1990년대 법 및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이끈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전주와 군산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집결지 성매매 장소 및 법 제정을 이끈 사건 판결과 전북 여성들의 저항의 장소를 연결하여 전북여성 인권길을 구성하면 그림과 같다.

Ⅱ 그림 VI-4 Ⅱ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인권길(전주)



자료: 사진 전북일보, 성평등 전주, 그 외 연구진 구성

전주에서는 폐쇄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을 중심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현장 방문

을 통해 성산업 구조의 모순과 성매매 여성들의 구체적 일상을 접할 수 있는 전시물을 확인하고 폐쇄 과정의 반성매매 운동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전북여성인권센터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의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여관과 모텔 성매매가 여전히 지속되는 선화촌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한다. 끝으로, 옛전주지방법원은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시초가 된 송백권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 김부남에 대한 전북여성운동이 주도한 여성인권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이다.

Ⅱ 그림 VI-5 Ⅱ 문화탐방로 구성(안) : 전북여성 인권길(군산)



자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군산에 조성 가능한 전북여성인권길은 현재 여성인권연대체인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길을 참고할 수 있다.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다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기억하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지를 방문한다. 당시 무연고자 여성 2명을 안치한 임피승화원과 화재사건 조형물을 연결해 한국사회에 반성매매 법 제정을 촉발한 현장에서 전북여성사로서 의미를 확인한다. 미군들을 대상으로 집결지 성매매가 이루어진 아메리카 타운을 끝으로 성산업 구조에서 여성의 위치와 성매매가 왜 지속되는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탐방로이다.

4. 결과 요약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북여성사 연구의 관점과 분야 정립하여 제시하고 둘째, 전북자치도 여성 사료의 일차적 수집과 분석이라는 목적 하에 진행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와 한계가 있다. 연구성과로는 전북여성사 개념 정립하고 주제 217개, 시군자료13개, 인물 96명 총 326종의 자료를 발굴하고 전북여성사 자료 목록을 구축했다. 또한 구체적 역사문화콘텐츠사업화 방안 구성 및 제시했다. 그럼에도 2개월이라는 초단기 연구기간 등의 한계로 기초조사가 충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포괄적인 재조사 및 정립된 방향에 맞는 추가 전문가 조사 등이 요구된다.

후속과제로 단기적으로 근현대생애구술사 사업 본격 착수, 중장기적으로 전북여성사 공간 조성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격적인 전북여성사 발간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 및 본 연구가 제시한 중장기 연구 및 사업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하다.

【 표 VI-2 】 연구요약 및 한계

구분	여성사 연구	여성인물	여성사 활용 사업 방향	비고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여성사 개념 정립. 여성사 주제 217개, 도 및 시군자료 13개, 인물 96명 총326건 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물 3인 선정 전체 96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여성역사문화 공간 조성 및 문화탐방로 4개 개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월의 초단기 연구기간으로 조사 기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인물 발굴 추가 작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시군, 문화원 대상 포괄적 재조사 및 관계자 조사 필요 	

참고문헌

- 강경숙, 진관훈, 문순덕, 김준표, 고민지(2021).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사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강운정(2022). “1920년대 안동지역 여성단체와 활동”. 대구사학. 제149집. 101-134쪽.
- 고지영, 문순덕, 이연화, 홍선영(2020). 제주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 설치 운영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기계형, 김정숙, 문희순, 박미현, 이송희, 정혜은(2017). 여성사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 김경례, 오창민, 장다정, 정재명(2017). 광주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광주여성재단.
- 김미선(2022). “한국전쟁 이후 ‘여성의 경제’(female economy)’의 형성: 양장점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8권1호. 147-178쪽.
- 김상애(2023). “변화하는 제주도 개발담론과 마을 주민 성권의 젠더정치”. 여성학논집 제40집 1호, 3-36쪽.
- 김은경(2013).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제19집. 106-141쪽.
- 김은경 외(2024). 여성사. 한 걸음 더. 서울: 푸른역사.
- 김정란, 김미선, 김미현, 강신혜(2021). 인천 여성 생애구술사 자료구축을 위한 기본 방안.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정란, 예지숙, 박정민(2020). 인천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인천여성가족재단.
- 김정숙(2007). “한국 지역여성사 연구의 특성과 과제”, 대구사학 제155집, 1-108쪽.
- 김현숙(2018).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종부의 치산과 가계경영. 경인문화사.
- 김혜순, 정혜숙. (2004) 젠더기획과 지방기획으로의 지역여성사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백미록(2024). “전북 지역 여성생애구술사의 방향성: 주제선정과 아카이빙 모델제

- 안”.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생애구술사 포럼 자료집.
- 변화영. (2022). 꼬막 채취와 여성의 경제 활동 - 벌교 하장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27), 81-108.
- 소현숙(2023). “한국 근대 여성사/젠더사 연구 동향과 과제”. 역사문제연구 51호. 205-247쪽.
- 시린 라이(2002). 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 후마니타스.
- 심민정(2022). “근대 호주 여선교사의 부산지역 여성실업교육: 동래여자실수학교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72집. 95~111쪽.
- 안숙영(2012). “글로벌, 로컬 그리고 젠더: 지구화 시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여성학연구 제22권 제2호. 7~32쪽.
- 예지숙(2024). “일제 강점기 영등포 지역의 장소성과 젠더: 1930년대 방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3호, 163~194쪽.
- 윤택림(1995). “지방·여성·역사: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 한국여성학 11집. 27~44쪽.
- _____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홍천군: 아르게.
- _____ (2022). 여성사 박물관과 공공역사: 쟁점과 대안들. 역사비평. 139호. 252-284쪽.
- 윤희정. (2020). 여성주의 관점의 지역여성사 서술을 위한 제언 - 광주학생운동 전후 광주 지역 여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남도문화연구, 40, 289-320.
- 이재경(2012).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이재경편,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군: 아르게.
- 이정선(2023). “광주 전남지역 여성 독립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83집, 99~145쪽.
- 이정희, 고나은, 최명애(2021). 경남여성사 발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경남여성가족재단.
- 이혜숙(2016).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핑(Elizabeth Johanna Shepping)의 전기적 생애사 연구. 신학과 사회. 제30집4호. 431-476쪽.
- 이화정(2013), ‘전북여성 100년 역사, 책으로 만나다: 전발연 여성정책연구 출간... 1910년대 부터 '주체적 삶' 재조명’, 전북일보, 2013.03.20.
- 임경희, 박경용(2015). “젠더, 지역공간, 구술생애서 글쓰기: 1923년생 허귀진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2호. 1-38쪽.

- 임혜경, 소현숙, 백소운(2023). 경기여성사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현백(2007).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사학교육. 제102집. 163~206쪽.
- _____ (2012).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자리잡기’와 ‘새 판 짜기’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제17집. 61~90쪽.
- 주경미, 윤택림, 소현숙(2022). 충북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 충북여성재단.
- 진명숙(2024). “왜 전북여성생애구술사인가: 전북여성생애구술사 작업 필요성”.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전북거점형양성평등센터 생애구술사 포럼 자료집.
- 추주희(2023). “집성촌 두 여성 노인 경험과 돌봄 활동으로 본 젠더 규범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9권 3호. 1~35쪽.
- 함한희(2010).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연구. 창간호. 7-47쪽.
- _____ (2024). “새로운 전북여성사 쓰기를 위한 기존 사례 검토와 제안”.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2024.11.6.). 32-43쪽.
- 허영란(2017).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역문화. 제20집 제2권. 347~379쪽.
- 홍양희(2013).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2007~2013”. 여성과 역사 제19집. 67~103쪽.
- 거다 러너(1997[2006]). Why history matters : life and thought, 강정하 역, 왜 여성사인가, 서울: 푸른역사.
- 로즈마리 통(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학이시습.
- 조앤 W. 스콧 (1988[2023]).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정지영 외 역, 젠더와 역사의 정치,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1996). “젠더: 역사 분석의 유용한 범주”, 국어문학 제31집, 291~326쪽.
- Scott, Joan Wallach (2016). "Experience." Readings in the Theory of Religion. Routledge. 241-258.
- 여성가족부(2024).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www.mogef.go.kr (검색일: 2024.12.31.).
- 전라남도(2003). 사진으로 보는 전남여성 100년.

- 전라북도(2000). 전북여성발전 50년. 도 여성정책관실.
- 전북교육문화센터(2013). 전북여성과 동행: 전북여성회관에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까지. 전북교육문화센터.
- 전북발전연구원(2013). 전북여성100년사.
- 전북여성가족재단(2023). 우리의 말이 역사가 되도록.
- 전북일보(2013.03.20). '전북여성 100년 역사, 책으로 만난다'. 2013.03.20.

부 록 1 : 전북여성사 자료 목록

□ 전북여성사 주제별 학술 및 민간자료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	전북	근대	여성교육	일제강점기 전북 무용 교육 연구	한국체육사학회 (김은경)	2022	학술지
2	전북	근대	여성운동	'ACTS 신학공관(共觀)'에서 본 전북지역 3·1운동 연구 : 전북지역 남장로교 선교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아신대학교 신학연구소 (신종철)	2019	학술지
3	전북	근현대	여성인물	호남 서화가 사전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선옥, 김소영)	2024	연구보고서
4	전북	현대	여성어민	요즘세상—새만금 갯벌 여성어민들의 호소를...	우리신학연구소 (장영예)	2001	장기간행물
5	전북	현대	여성어민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새만금지역의 경우	한국환경사회학회 (함한희)	2002	학술지
6	전북	현대	여성어민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새만금 지역의 사례	한국환경사회학회 (함한희)	2004	학술지
7	전북	현대	여성어민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푸른사상 (윤박경)	2004	연구보고서
8	전북	현대	여성어민	바다를 메운땅,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포마을	국립민속박물관 (박수환)	2008	연구보고서
9	전북	현대	여성노동	여기자의 위상에 대한 인식과 평가 연구 : 전북지역 여기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허명숙)	2006	학술지
10	전북	현대	여성노동	지역언론과 성차별—전북지역 언론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허명숙 외)	2008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1	전북	현대	여성노동	여성 방송인의 위상과 인식평가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방송사 여자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김태희 외)	2010	학술지
12	전북	현대	여성노동	여성 방송인의 시대별 위상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전북지역 여성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 커뮤니케이션학회 (김태희 외)	2012	학술지
13	전북	현대	여성농악	여성농악단을 통해 본 근대 연예농악의 양상	실천민속학회 (권은영)	2008	학술지
14	전북	현대	여성농악	'낭자(娘子)농악'과 '소녀(少女)농악'을 통해본 여성 농악예인의 활동	한국공예문화학회 (박혜영)	2016	학술지
15	전북	현대	이주여성	전라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의 인권실태	열린전북 (이지훈)	2005	장기간행물
16	전북	현대	이주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전북 지역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재규)	2006	학술지
17	전북	현대	이주여성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박재규)	2007	학술지
18	전북	현대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은희 외)	2012	학술지
19	전북	현대	이주여성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조인주)	2012	학술지
20	전북	현대	이주여성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 (함진옥 외)	2012	학술지
21	전북	현대	이주여성	전북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일자리 귀적과 농촌 일자리 지원정책 방향	아시아문화학술원 (조원지 외)	2022	학술지
22	전북	현대	반성폭력	전북 성매매의 실태	열린전북 (전북여성단체연합)	2003	장기간행물
23	전주	근대	여성교육	남장로교의 전주 신흥학교·기전여학교 설립과 발전(1901-1937)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이재근)	2015	학술지
24	전주	근대	여성교육	일제 말기 사립보통학교 졸업생의 진로—전주해성심상소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사학회 (전병구)	2019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25	전주 군산	근대	여성교육	미국 남장로교의 첫 한국 입국 선교사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 부인(Mrs. Linnie F. Davis Harrison)의 선교 활동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임희모)	2021	학술지
26	전주	근대	여성교육	서양인 선교사가 기록한 전주—1936년 기록영상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이정옥)	2023	학술지
27	전주	근대	여성운동	전라북도 3.1운동의 전개와 ‘3.1운동 세대’의 탄생	전북사학회 (윤상원)	2019	학술지
28	전주	근대	여성운동	호남지역 기독교 여학교의 3.1운동—수피아여학교, 기전여학교, 정명여학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이가연)	2019	학술지
29	전주	근대	여성운동	전주 3.1운동 기록을 통해 본 사료교차검증의 필요성—기전여학교 참여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 아카이빙연구소 (이현진)	2021	학술지
30	전주	근대	여성인물	서점의 시대	나무연필 (강성호)	2022	단행본
31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기전 70년사	전주기전여자 중고등학교 (기전 70년사 편찬위원회)	1974	연구보고서
32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조선성자 방애인 소전	전주유치원 (배은희)	1934	연구보고서
33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전주 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전주서문교회 100년사편찬위 원회)	1999	연구보고서
34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나의 반세기	마루[금호문화] (육완순)	2003	단행본
35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전주 비빔밥과 성자 이야기	진흥출판사 (이덕주)	2007	연구보고서
36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흥성사 (이덕주)	2007	연구보고서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37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민지사 (임영신)	2008	단행본
38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판소리 명창 이일주의 생애와 예술	고려대 인문정보대학원 (차복순)	2008	학위논문
39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1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조소녀	전북도립국악원 (조소녀, 김정태)	2013	연구보고서
40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람전(藍田) 허산옥(許山玉, 1924~1993)과 전주지역	인물미술사학회 (김취정)	2014	학술지
41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육완순의 현대무용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최경희)	2016	학술지
42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동초제 <흥보가> '박타령' 이면 연구—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예진)	2017	학위논문
43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전주지역 판소리의 전승 과정과 양상 연구—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백은철)	2019	학술지
44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 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 일반대학원 (박정희)	2021	학위논문
45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육완순과 현대무용 1~5	공연과 리뷰 (김태원)	2021	정기행물
46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육완순 선생님 타계 : 육완순과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	공연과 리뷰 (편집부)	2021	정기행물
47	전주	근현대	여성인물	공연 공간으로서, 요정의 계급적 성격과 문화적 취향	국어문학회 (권은영)	2022	학술지
48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전주에 가면 비혼여성공동체 '비비'가 있다—다름을 조율하며, 서로의 꿀을 봐 주고 사는 공동체 이야기	교육공동체넷 (이효연)	2011	정기행물
49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비혼여성공동체로 사는 이야기	도서출판여이연 (이미정)	2017	정기행물
50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도시 거주 비혼여성의 주거 실천과 대안적 거주 생애사의 구축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지은숙)	2022	학술지
51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페미니즘 리부트'와 지역 여성운동 :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김혜경)	2022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52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지역여성운동의 역사 속에 나타난 젠더와 로컬리티 : 전주지역 공부공동체 〈여성다시읽기〉의 매체비평 문화운동과 ‘영페미니즘’	한국여성학회 (김혜경)	2023	학술지
53	전주	현대	여성공동체	에이징 솔로—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가	동아시아 (김희경)	2023	단행본
54	전주	현대	여성노동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도시 경험과 근대 의식의 형성	한국지역사회학회 (이성호)	2009	학술지
55	전주	현대	여성노동	전주 남부시장 구술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전북연구원 (전희진 외)	2023	연구보고서
56	전주 익산	현대	여성노동 구술생애사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진양명숙)	2007	학술지
57	전주 익산	현대	여성노동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도시 경험과 근대 의식의 형성	한국지역사회학회 (이성호)	2009	학술지
58	전주	현대	여성노동운동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자료집 : 노동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	2005	연구보고서
59	전주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동 구술생애사	여성 노동자의 노동운동 참여 경험과 결혼 이후 활동 : 전북지역 여성 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최은영)	2022	학술지
60	전주 군산	근대	여성운동	호남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윤선자)	2004	학술지
61	전주	현대	반성폭력	성매매, 이제는 그만 논의해야 할 단어	열린전북 (이선희)	2008	정기간행물
62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문화예술 재생 통한 인권·예술 공간 만들기	한국주민자치학회 (김광모)	2017	정기간행물
63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 선미촌 도시재생의 특징에 관한 연구—거버넌스 활동과 경계허물기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박연정 외)	2019	학술지
64	전주	현대	반성폭력	길들이 자라나 데려다주는 곳—전주 선미촌에서 시작된 새 길을 걷다	오늘의 문예비평 (안미선)	2019	정기간행물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65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도시재생	인천연구원 (박연정)	2020	학술지
66	전주	현대	반성폭력	성매매 집결지의 문화적 도시재생 내 예술가의 역할 : 전주 선미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 경영학회 (강슬기)	2021	학술지
67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 선미촌에서의 여성주의적 예술 실천의 가능성—새 장르 공공미술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융합학회 (김용비 외)	2021	학술지
68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 선미촌 재생 사례를 통해 본 부정적 장소기억의 전환 가능성	인문사회21 (소태우 외)	2022	학술지
69	전주	현대	반성폭력	전주시 선미촌 일대 물리적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 (엄지현 외)	2023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70	전주	현대	반성폭력	예술가 없는 예술지구—전주시 서노송예술촌을 사례로—	한국문화역사 지리학회 (김민주 외)	2024	학술지
71	전주	현대	여성농악	전주농악의 정체성 변화양상과 여성농악단의 역할	한국전통공연 예술학회 (김성식)	2023	학술지
72	전주 남원	현대	여성문학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최명희의 『혼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김승중)	2018	학술지
73	전주 남원	현대	여성문학	전북의 문학@문화—최명희의 『혼불』—계몽성과 심미성의 연동	열린전북 (장미영)	2010	정기간행물
74	전주 남원	현대	여성문학	전북문학의 지역성, 그리고 공간	국어문학회 (김승중)	2019	학술지
75	전주	현대	여성인물	호남산조춤 무보와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김미진)	2011	학위논문
76	전주	현대	여성인물	박금슬류 김광숙 예기무의 민속지적 연구	한국체육사학회 (이경호)	2013	학술지
77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5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성준숙	전라북도립국악원 (성준숙, 김정태)	2015	연구보고서
78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4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 정음농악 상쇠 보유자	전라북도립국악원 (유지화, 김무철)	2015	연구보고서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79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7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지성자	전라북도립국악원 (지성자, 김무철)	2015	연구보고서
80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1 : (생애 마지막 구술) 호적 구음 살풀이춤 명무 김숙	전북도립국악원 (김숙, 서경숙)	2016	연구보고서
81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6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김소영	전라북도립국악원 (김소영, 김정태)	2018	연구보고서
82	전주	현대	여성인물	2015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8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예능보유자 이길주	전라북도립국악원 (이길주, 김무철)	2019	연구보고서
83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기록화 사업 : 가야금산조 지성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송영국 외)	2019	연구보고서
84	전주	현대	여성인물	한지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 세계에 전한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색지장 김혜미자	대동문화 (백승현, 최옥수)	2020	정기간행물
85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 일반대학원 (김나경)	2021	학위논문
86	전주	현대	여성인물	호남산조춤에 나타나는 한국미 고찰	영남총학회 (배민지, 김미숙)	2021	학술지
87	전주	현대	여성인물	공연 공간으로서, 요정의 계급적 성격과 문화적 취향—전주의 ‘행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회 (권은영)	2022	학술지
88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30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김영자	전라북도립국악원 (김영자, 김정태)	2022	연구보고서
89	전주	현대	여성인물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사업 : 색지장 김혜미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송미령 외)	2022	연구보고서
90	전주	현대	이주여성	전북의 문학@문화3 전북의미디어—이주여성의 애환을 담은 ‘피우자 민들레’	열린전북 (김선경)	2010	정기간행물
91	전주 익산 군산	현대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부지원 한국어교육사업 현황 및 만족도 조사—전라북도 3개 도시(전주·익산·군산)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박시균 외)	2012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92	군산	전근대	여성문화	고구려 녹녀호국지모신화의 호남분파와 무속신화 <칠성풀이>와의 관계	동아시아고대회 (권도경)	2014	학술지
93	군산	근대	여성교육	한말·일제강점기 군산 영명학교·멜볼딘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호남사학회 (송현강)	2015	학술지
94	군산	근대	여성교육	1920년대 초 군산사회와 교육운동	전북사학회 (구희진)	2018	학술지
95	군산	근대	여성교육	일제시기 군산고등여학교 학생의 특성과 여성 교육	청람사학회 (오수인)	2023	학술지
96	군산	근대	여성교육	군산스테이션 여성선교사 연구	한국세계문학사학회 (송현강)	2024	학술지
97	군산	근대	여성운동	군산의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참여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김은주)	2019	학술지
98	군산	근현대	여성인물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 제복(屈巾祭服)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이영주)	2024	학술지
99	군산	근현대	여성인물	침선장 최은순의 대수장군(大袖長裙) 제작 연구	복식 (이영주)	2024	학술지
100	군산	근현대	반성폭력	제국 일본의 식민지 도시 건설과 전통 사회의 변화—유곽형성과 군산지역 유곽문화의 정착—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이정옥)	2015	학술지
101	군산	현대	여성인물	호남 <넙풀이 굿>의 의식절차 및 선율분석 연구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하진순)	2016	학위논문
102	군산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8호 호남넙풀이굿(넙건지기굿) 보유자	전라북도립국악원 (하진순, 김무철)	2017	연구보고서
103	군산	현대	반성폭력	성매매 · 인신매매 후진국	열린전북 (김의수)	2002	정기간행물
104	군산	현대	반성폭력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현장에서—화재참사 대책위원회 활동일지	열린전북 (이미정)	2002	정기간행물

연 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05	군산	현대	반성폭력	군산대명동 화재참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정부는 성매매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열린전북 (전북여연)	2002	정기간행물
106	군산	현대	반성폭력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본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	새얼문화재단 (정미례)	2002	정기간행물
107	군산	현대	반성폭력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한국여성학자협 의회 (편집부)	2002	정기간행물
108	군산	현대	반성폭력	성매매 방지법, 3년이 지났지만…	열린전북 (이선희)	2007	정기간행물
109	군산	현대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발전학 회 (곽병선)	2009	학술지
110	익산	전근 대	여성문학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김종진)	2004	학술지
111	익산	근현 대	여성인물	구타원 이공주총사 소장 원불교교단사 자료집성	구타원총사 기념사업회	2005	연구보고서
112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 동	태창메리야스 노동조합 노동자가 해고된 박복실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서신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 00881506)	전태일재단 (이혜경)	198X	인터넷자료
113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 동	결의문—태창메리야스 해고 여성근로자 단식 사건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 00216684)	한국가톨릭농민 회 (태창메리야스노 동조합)	1983	인터넷자료
114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 동	박복실 일지	가톨릭전주교구 노동사목성요셉 노동자의집(박복 실)	1989	단행본
115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 동	19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운동—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성호)	2009	학술지
116	익산	현대	여성노동운 동	후레아워션 노동운동의 전개와 그에 나타난 다원적 여성 연대—1987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배아영)	2022	학술지

연 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17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도시정책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 (편집부)	2009	정기간행물
118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여성친화도시 1호 전북 익산—이한수 전북 익산시장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소성일)	2011	정기간행물
119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우수정책사례—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 사업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익산	한국주민자치학 회 (김광모)	2013	정기간행물
120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여성친화도시사업 비교연구-익산시와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술)	2013	학술지
121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박귀자)	2013	세미나 자료
122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 가학회 (최유진)	2013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23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지역행복생활권과 익산시 여성일자리 연계방안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박용완)	2014	세미나 자료
124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여성친화도시 사례분석 : 안전도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여성건강증진, 편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조명희 외)	2014	학술지
125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익산시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제언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양경이)	2014	세미나 자료
126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오미란)	2016	세미나 자료
127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여성친화도시 익산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이동선)	2016	세미나 자료
128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를 돌아보며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홍달아기)	2016	세미나 자료
129	익산	현대	여성친화도 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는 익산	한국주민자치학 회 (김광모)	2020	정기간행물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30	익산	현대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의 수행적 시민권 : 익산시장 이주민 비하 발언 규탄 시위의 경험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김철효 외)	2021	학술지
131	정읍	전근대	여성문화	정읍사의 확산과 지역 축제로의 회귀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박진태)	2005	학술지
132	정읍	전근대	여성문화	지역문화권의 유산으로서 <정읍사>와 정읍의 문화사적 위상	국문학회 (서철원)	2019	학술지
133	정읍	현대	여성문화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곳의 상징성과 축제성—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곳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회 (김월덕)	2007	학술지
134	남원 순창	전근대	여성인물	고려말 열녀 사례 연구—양수생 처 열부 이씨	한국여성사학회 (권순형)	2015	학술지
135	남원	전근대	여성인물	문헌 속 여성의 외양에 대한 표현 방식과 당대 여성성 인식과의 상관성 연구—『남원고사(南原古詞)』와 『열녀춘향수절가』의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학회 (조남민)	2020	학술지
136	남원	근현대	여성인물	백 년 동안 핀 꽃 : 최초의 지역 축제 '춘향제'를 만든 최봉선	빈빈채방 (김양모,곽정우)	2021	단행본
137	남원	근대	여성인물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와 정치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권순공)	2019	학술지
138	남원	근대	여성인물	정정렬제 춘향가의 전승 및 유파·바디에 따른 분화	한국공영문화학회 (송미경)	2019	학술지
139	남원	근대	여성인물	李古本 <춘향전> 再考察—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混成—	우리말글학회 (김지윤)	2020	학술지
140	남원	근대	여성인물	일제강점기 안내서로 보는 명승고적의 재편과 명소의 창출—남원 지역을 사례로—	열상고전연구회 (문순희)	2020	학술지
141	남원	근대	여성인물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학회 (최혜진)	2003	학술지
142	남원	근대	여성인물	판소리명가, 장판개 가문의 예술세계	한국문화융합학회 (김석배)	2015	학술지
143	남원	근대	여성인물	유성기음반에 나타난 남도잡가 음반 연구 : 송기덕·배설향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조은정)	2016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44	남원	근현대	여성인물	람전 허산옥의 팔군자도(八君子圖) 연구	인물미술사학회 (최경현)	2014	학술지
145	남원	근현대	여성인물	람전 허산옥의 채색 문인화조화	인물미술사학회 (김소연)	2014	학술지
146	남원	근현대	여성인물 구술생애사	향기조차 짚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노영숙, 권은영)	2018	연구보고서
147	남원	현대	여성인물	명인명창	깊은샘 (정범태)	2002	연구보고서
148	남원	현대	여성인물	천부지지 남원 :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이석홍 외)	2013	연구보고서
149	남원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2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수궁가) 예능 보유자 박양덕	전라북도립국악원 (박양덕, 김정태)	2017	연구보고서
150	남원	현대	여성인물	안숙선의 판소리	민속원 (최동현)	2023	연구보고서
151	남원	현대	여성인물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예술세계	한국문화융합학회 (안시현)	2024	학술지
152	남원	현대	여성농악	여성농악의 발생과 남원의 권번 문화	국어문학회 (권은영)	2015	학술지
153	남원	현대	여성농악	1950~60년대 남원 '권번예술' 패턴의 후원 문화와 여성농악단의 발생·분파와의 연관성	남도민속학회 (권은영)	2023	학술지
154	남원	현대	여성농악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악사학회 (양옥경)	2021	학술지
155	남원	현대	여성문학	대화로서의 자기—연구—지역 여성 그리고 돌봄과 예술—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정상순 외)	2023	학술지
156	남원	현대	여성문학	[춘향제전위원회] 제93회 남원 춘향제 디지털북	남원시 관광과	2023	디지털 자료
157	김제	전근대	여성인물	전북의 정려 · 충효열비	신아출판사 (전북향토 문화연구회)	2000	연구보고서
158	김제	현대	여성노동 구술생애사	전북농촌 여성노인 A의 생애구술에서 드러난 삶의 원동력	한국콘텐츠학회 (오마리아 외)	2009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59	김제	현대	여성노동운동 구술생애사	미치도록 눈부시던—1세대 여성농민운동가 구술기	말 (강희진)	2023	단행본
160	김제	현대	여성문화	공동체 의례에 내재된 개인구복(個人求福)—전북 김제시 심포리 거전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호남학연구원 (박종오)	2009	학술지
161	김제	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8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3호 김제농악(설장고) 보유자 김해순	전라북도립국악 원 (김해순, 서경숙)	2015	연구보고서
162	완주	근현대	여성인물	오정숙 <춘향가>의 음악적 변화와 지향	판소리학회 (김경희)	2015	학술지
163	완주	근현대	여성인물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 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 일반대학원 (박정희)	2021	학위논문
164	완주	현대	여성공동체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토종씨앗지키기 실천 분석	한국농촌사회학 회 (진명숙)	2019	학술지
165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조선 역대 여류 문집	을유문화사 (미상)	1950	단행본
166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김삼의당 시문집	제일사 (김삼의당)	1982	단행본
167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삼의당 김부인 유고	신아출판사 (김삼의당)	2004	단행본
168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김삼의당 유고의 양면성과 실록성	어문연구학회 (이월영)	2013	학술지
169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최현식)	1994	연구보고서
170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갈채 (최현식)	2006	연구보고서
171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이이화)	2014	연구보고서
172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 3	교유서가 (이이화)	2020	연구보고서
173	진안	전근대	여성인물	정읍동학농민혁명사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조광환 외)	2020	연구보고서

연 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74	진안	전근 대	여성인물	조용헌의 영지순례	불광출판사 (조용헌)	2020	연구보고서
175	진안	전근 대	여성인물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혜안 (송정수)	2021	연구보고서
176	진안	현대	여성공동체	신활력사업의 민주성과 성평등성—전북 진안의 '생태건강 산촌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소 (장미경)	2008	학술지
177	진안	현대	여성농민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 진안지역 사례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진명숙 외)	2012	학술지
178	무주	전근 대 ~현대	여성문학	무주 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특성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김월덕)	2010	학술지
179	무주	근현 대	여성인물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중기주 내 활동 연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소 (최희영)	2023	학술지
180	무주	현대	이주여성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전북 무주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 회 (김진 외)	2012	학술지
181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의기(義妓) 논개 전승—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회 (박노자)	2007	학술지
182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회 (정지영)	2007	학술지
183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논개생장향수명비	전북역사문화학 회 (정주석 외)	2008	학술지
184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의병장 최경회 장군의 생애와 의부인(義夫人) 주논개에 관한 소고(小考)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오수열)	2016	학술지
185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 일반대학원 (이화영)	2019	학위논문
186	장수	전근 대	여성인물	전북 장수에서 만난 역사—가야 문명과 논개의 삶, 그 사이의 장수	하이미디어피앤 아이 (황소영)	2024	장기간행물
187	장수 진안	현대	여성문화	전북 장수·진안지역 팔죽제의 전승양상과 의미	남도민속학회 (강성복 외)	2016	학술지

연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188	장수	현대	이주여성	우리 동네 이주여성 이야기 1~6	열린전북 (조문익)	2005	정기간행물
189	장수	현대	이주여성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강미연 외)	2009	학술지
190	장수	현대	이주여성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정책적 개선방안	국제인문사회 연구학회 (양호열)	2024	학술지
191	임실	현대	여성문학	지역민요의 지속과 변이, 그리고 그 몇 가지 문제들과 현실적 가능성—전북 임실 '삼계농요'의 경우—	한국민요학회 (김익두)	2017	학술지
192	임실	현대	여성문학	한국전쟁과 여성—경계에 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함한희)	2010	정기간행물
193	임실	현대	여성문학	가려진 사람들에게 시선을 달아 침묵을 깨우는 작가	공연과이론을 위한모임 (이유라)	2022	정기간행물
194	임실	현대	여성문학	삶이라는 전쟁 사이의 세 소녀—〈배소고지 이야기〉	공연과이론을 위한모임 (엄현희)	2023	정기간행물
195	순창	전근대	여성인물	〈순창가〉의 구조와 인물의 기능	한국언어문화학회 (박수진)	2005	학술지
196	순창	전근대	여성인물	〈순창가〉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이승복)	2009	학술지
197	순창	전근대	여성인물	조선 후기 가사작품에 나타난 여성 형상의 근대성 고찰— 18세기 가사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회 (박수진)	2024	학술지
198	순창 진안 남원 장수	전근대	여성인물	지리산권의 함미성(合米城)-함미성(城) 성곽설화와 마고할미	한국여성사학회 (송화섭)	2018	학술지
199	순창	현대	여성농민	어느 원조귀농민의 30년 촌살이 보고서	새얼문화재단 (박찬숙)	2013	정기간행물
200	순창	현대	여성인물	여성농민운동가 김윤(1953-2004)의 생애와 활동	송실사학회 (윤정란)	2021	학술지

연 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201	고창	전근 대	여성인물	진채선의 활동과 기생점고 대목의 의미	한국문학교육학 회 (최혜진)	2017	학술지
202	고창	전근 대 ~현대	여성인물	고창과 여성명창	판소리학회 (성기련)	2005	학술지
203	고창	전근 대 ~현대	여성인물	근대미디어와 젠더(1)—20세기 초 여성 판소리 창자의 부상—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임형택)	2015	학술지
204	고창	전근 대 ~현대	여성인물	고창 소리문화의 발전방안—고창 현지를 중심으로—	판소리학회 (김성식)	2019	학술지
205	고창	전근 대 ~현대	여성인물	영화 <도리화가>(2015)에 나타난 영웅 스토리텔링의 전략과 한계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송미경)	2017	학술지
206	고창	근대	여성문학	임순득(任淳得)과 서정주(徐廷柱)의 관계 연구—임순득의 소설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와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 회 (이상경)	2023	학술지
207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출판부 (정노식)	1940	연구보고서
208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박황)	1974	연구보고서
209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2000	연구보고서
210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명창 김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판소리학회 (김인숙)	2007	학술지
211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고창예술의 맥	한국예총 고창지부	2008	연구보고서
212	고창	근현 대	여성인물	한국 여성 명창의 계보와 판소리사	판소리학회 (최혜진)	2022	학술지
213	고창	현대	여성인물	이태백, 사오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신아출판사 (이종근)	2004	단행본

연 번	지역	시대	주제 범주	제목	발행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214	고창	현대	여성인물	[에도한길] 자수장 박미애	대동문화 (백승현, 최옥수)	2023	정기간행물
215	부안	근현대	여성인물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 :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7-1호 부안 농악(상쇠) 보유자 나금추	전라북도립국악원 (나금추, 서경숙)	2011	연구보고서
216	부안	현대	여성농민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의 숲 (엄영애)	2007	연구보고서
217	부안	현대	여성농민	시대를 앞서갔으나 미완으로 끝난 가톨릭 여성농민운동 : 한국가톨릭농촌여성회 초대 총무 엄영애	우리신학연구소 (편집부)	2020	학술지

□ 도 및 시군 발간자료

연번	시군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1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생애 마지막 구술 - 호적 구음 살풀이 춤 명무 김숙	전북 독립 국악원	2018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4152
2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호남녘 풀이곳(넋건지 기곳) 보유자 하진순	전북 독립 국악원	2018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4154
3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판소리(수궁가) 예능 보유자 박양덕	전북 독립 국악원	2018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4156
4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김소영	전북 독립 국악원	2018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4158

연번	시군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5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호남산 조춤 예능보 유자 이길주	전북 도립 국악원	2018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4160
6	전북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북예인구술사)	국가무 형문화 제 제5호 김영자	전북 도립 국악원	2023	구술사	https://kukakwon.jb.go.kr/site/menu/MENU_0000000000506/board/view/NTT_007182
7	익산	통사	지역사	익산시사 상종하	익산시	2001	단행본	https://www.iksan.go.kr/index.iksan?menuCd=DOM_000002005004003001
8	전주	전근대 (조선)	여성관련 주제사 (여성문학)	조선의 여성 문학 - 천리에 외로운 꿈	국립 전주 박물관	2012	도록	https://jeonju.museum.go.kr/board.es?mid=a10603000000&bid=0007&act=view&list_no=5818
9	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전주예술사)	2023 전주 백인의 자화상 - 전주 예술사	전주 문화재단	2023	단행본	https://jjcf.or.kr/main/inner.php?sMenu=E8000&mode=view&no=28

연번	시군	시대	구분	제목	발행 기관 (저자)	발행 연도	자료 형태	비고
10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예술사)	완주에 인 기억과 기록 사이	완주 문화재단	2021	단행본	https://www.wfac.or.kr/2023/inner.php?sMenu=D3000&mode=view&no=65
11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농업)	완주로 컬푸드, 예술이 되다 - 예술 농부	완주 문화재단	2018 2019	자료집	https://www.wfac.or.kr/2023/inner.php?sMenu=D3000&mode=view&no=32
12	완주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완주지역사)	봉동 앞리 냇가랑 에 핀 생강꽃	완주 문화재단	2017	자료집	https://www.wfac.or.kr/2023/inner.php?sMenu=D3000&mode=view&no=15
13	군산	현대	여성관련 주제사 (구술사)	00의 집, 그 집	우만 컴퍼니	2022	자료집	https://www.wuman.co.kr/abouthome

□ 전북여성인물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1	강정순	전주	근대	1899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3월 13일 기전여학교 재학 중 전주 남문면 밖 시장에서 독립 만세 시위 참여 중에 체포되었다. 단식투쟁으로 일제에 저항했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9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3485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2	김공순	전주 (정읍)	근현대	1901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전여학교 출신. 신흥학교 및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1010년 13일 전주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동료 학생들과 진압에 항거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검사의 신문에도 저항하였고, 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1920년 전주시 수해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 모금 목적의 자선 음악 연주회에 기전여학교 동창회원으로 참여했다. 1977년 함께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임영신의 영결식이 있었을 때, 임영신이 복역 중 지었던 「독립의 노래」 가사 전문을 보냈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C%A0%84%EC%A3%BC&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763#tab2
3	김광숙	전주 (서울)	현대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8호 예기무 보유자. 정형인, 최선, 박금슬에게 무용을 사사 받았고 특히 박금슬로부터 조선시대 관기가 찢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경호(2013), “‘박금슬 류 김광숙 예기무’의 민속지적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제1호, 11~27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기무(교방무)를 전수 받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무용제와 전국 국악 경연 대회 등에서 다수 입상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나경(2021),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4	김나현	전주 (정읍)	근현대	1902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3월 13일 기전여학교 재학 중 전주 남문 밖 시장 쪽에서 독립 만세 시위 참여 중 체포되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를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print.do?id=78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2132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5	김년임	전주 (완주)	근현대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39호 전주비빔밥 기능보유자이자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명인. 어머니 문명식에게 사사 받은 전통 비빔밥 제조 방식을 체득하고 보전한 자신의 기술로 발전시켰다. 1973년부터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 지역 음식점 ‘가족회관’ 대표로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회관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7
6	김분칠 (김여탄)	고창	근현대	1907 (1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 5세에 서모였던 조흥연 명인에게 육자배기를 배우며 국악에 입문했으며 김비취에게 가곡, 가사, 시조, 아쟁, 가야금을, 김봉이에게는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노식(1940), 『조선창극사』, 조선일보 출판부. 박항(1974),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김인숙(2007), “명창 김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소리 <심청가>를 배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세에 정음권번에서 정정렬에게 1년간 판소리를 공부하고 20세부터 그를 독선생으로 모시며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세 바탕을 학습했다. 정정렬 바디 <춘향가>를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전창하는 명창으로 평가된다. 여성국악동호회에서 국악 활동을 이어가며 판소리 교육 및 전수에 힘썼다. 48세부터 여성국악동호회가 설립한 민속예술학원에서 후진을 양성했고, 단체가 해산되었던 51세에는 당시 개인이 운영한 국악학원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수도국악예술학원을 설립했다. 그밖에 국악예술학교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악계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p>여란의 판소리관과 예술세계”, 판소리연구 제23집, 109~139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혜진(2002), “한국 여성 명창의 계보와 판소리사”, 판소리연구 제13집, 379~421쪽.
7	김삼의당	진안(남원)	전근대	1769(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원의 몰락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일찍이 한글로 된 소학을 읽고 문자를 배워 제자백가를 섭렵했다. 1786년 담락당 하립과 결혼한 뒤, 남편의 과거 급제를 바라며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나 가세가 더욱 기울자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 1801년 진안으로 이주하여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시부와 시형제가 모두 시문에 능했기에 그녀도 시를 쓰며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도 시우 관계를 유지하며 저술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가 타계하고 1930년에 장사 김기현과 승평 정형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월영(2013), “김삼의당 유고의 양면성과 실록성”,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제78권, 207~232쪽. 『조선 역대 여류 문집』(을유문화사, 1950) 김삼의당, 황안웅 번역(1982), 『김삼의당 시문집』, 제일사. 김삼의당, 이월영 역주(2004), 『삼의당 김부인 유고』, 신아출판사.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이 원고를 모아 삼의당고를 간행했다. 1권에 111편 253수의 시와, 2권에 26편의 산문이 실려 있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조선 여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8	김소영	전주 (익산)	현대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 완주에서 유년을 보냈고 12살에 전주 청학루에서 흥정택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17세에 오정숙 명창에게 동초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배웠다. 1987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에서 장원했고, 1993년 남원 춘향제 명창부에서 장원했다. 정음, 익산, 군산 시립국악원의 판소리 교수로 있었으며 2012년 각종 국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명창들이 겨루는 제1회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에서 최고상인 독도국창상을 수상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소영 구술·김정태 채록,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6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 김소영”, 전라북도립국악원, 2018. 김소영명창판소리연구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63
9	김소희	고창	근현대	1917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사망으로 해제되기 전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였다. 1931년 남원춘향제 민속예술경연 1등상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 1948년 여성국악동호회 설립 이사가 되었으며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창설했다. 1970년부터 1993년까지는 국악예술고등학교 재단이사 와 국악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국악 발전에 힘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편(2000),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 한국예총 고창지부, 『고창예술의 맥』, 2008.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10	김순금	전주 (정읍)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세 당시 전통예술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여동생의 머리와 얼굴을 치장하기를 즐겼고, 중학교를 졸업한 14살에 스스로 학원을 찾아가 미용기술을 익혔다. • 서울 영등포의 미용실 종업원으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으며, 전주로 돌아와 금란미용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 1969년 면허를 취득하고 23세에 개업한 뒤에는 1980년 전북미용기능대회 은상 및 B.C.W.아시아 예선 커트 부문에서 1위 입상했다. 이후에도 배움의 길을 놓지 않고 2002년에 전주여고의 방송통신고를 졸업했고 기능장을 함께 따냈다. 이후 전주대에서 직접 기능장을 교육하여 미용기능장들을 배출했다. • 원광보건대 미용피부과 겸임교수, 전주대 최고미용지도자과정 주임교수, 전주대 미용장교육 주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전라북도미용사회장으로도 있었다. 	
11	김순실	전주 (인천)	근대	1903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에 1919년 3월 13일 전주 남문 부근에서의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었다. 구금 상태에서 취조를 완강히 버티다가 검찰 송치되었고,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나왔다. 일본인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C%A0%84%EC%A3%BC&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2&id=25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었다. 2018년 대통령표창상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3487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12	김신희 (은조)	전주	근현대	1899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전여학교 재학 중에 1919년 3월 14일에 여학생들이 주도한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C%A0%84%EC%A3%BC&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188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3484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13	김영자	전주 (대구)	현대	19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8세에 정권진 명창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배우며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김소희, 성우향 등 당대 최고 명창을 두루 사사해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창했다. 1974년~1999년에 국립창극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4년 남원춘향제 전국명창대회와 1985년 전주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고을소리청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92 김영자 구술·김정태 채록,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30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김영자”, 전라북도립국악원, 2022.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부에서 장원했다. 1991년에는 판소리수궁가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었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장으로도 있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김일구와 전주 풍남동에 '온고을 소리청' 국악 전수관을 개관하여 후학을 양성했다. 	
14	김옥정	전주	현대	1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 3·1운동을 주도했던 김인애의 딸로, 어머니의 뜻을 이어 고아,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 가정폭력을 피해 여성 등을 도와 사회에 봉사하였다. 익산 제일보육학교를 졸업한 뒤 1949년 군산 구암유치원 보모장이 되고 보육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보육사업에 뛰어들었다. 1971년 6월 삼성보육원 보모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1985년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대표이사를 맡아 전 재산을 법인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했다. 1996년 9월 삼성여성의 쉼터, 1998년 1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개설했다. 1975년 한국선명회장상, 1985년 국무총리상, 1993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아동복지 부문, 2002년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이사회복지대상을 받았다. 	
15	김운영	전주	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0년대 전주 민중사 서점을 운영한 여성운동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성호(2022), 『서점의 시대』, 나무연필.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16	김윤	순창 (마산)	현대	1953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재학 중 유신체제에 저항한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이후에도 유신 철폐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하신문을 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항 운동을 펼치다 두 번째로 구속되었다. • 5·18민주화운동 때는 다른 지역에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한 배후로 지목되어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전주 출신 인 권운동가 강기종을 만나 결혼했다. • 1981년 순창으로 이주하여 유기농협동체를 운영하고 전국여성농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성농민 운동에 선구적으로 헌신했다. 뇌경색으로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한 이후, 2019년 5·18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정란(2021), “여성농민운동가 김윤(1953~2004)의 생애와 활동”, 송실사학 제46집, 213~238쪽.
17	김은경	익산 전주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YWCA 간사로 있던 중에 1993년 익산에 와서 익산YWCA을 창립했다. • 익산여성의전화에서는 상담 활동을,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는 성과인권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 전북여성단체연합의 평화통일위원장, 성매매부설쉼터의 소장 등을 맡았으며, 2005~2008년까지는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였다. 이후에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지부준비위원장, 전북이주여성쉼터 소장 등으로 있었다. 이후 익산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있기도 했다.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18	김인애 (최기쁨)	전주 (서천)	근현대	1898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 동지들과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었다. 유치장에 가던 순간에도 만세를 외쳤고 수감 중에도 단식을 이어가며 일본 검사가 요구하는 복종에 저항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0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C%A0%84%EC%A3%BC&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2&id=39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30950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19	김해순	김제 (철원)	현대	1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3호 김제농악 설장고 보유자. 13살 때부터 도지정 무형문화재 박판열 선생에게 40년 동안 호남우도농악 가락의 원형을 전수 받았다.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종합대상 등 전국대회에서 다수 수상했다. 김제농악보존회장으로서 전승에 힘쓰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해순 채록·서경숙 채록(2015),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8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3호 김제농악(설장고) 보유자 김해순”, 전라북도립국악원.
20	김현숙 (김숙)	전주	현대	1948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중앙여중 재학 때 무용 강사였던 전북무형문화재 한량무 보유자 금파 김조균 선생의 권유로 춤을 시작했고, 그와 부부가 되어 전통무용 전수와 확산에 앞장섰다. 금파무용단 예술총감독이자 금파춤보존회 이사장으로 있었으며 그가 작곡하고 한량무 전수에 더욱 힘썼다. 2010년 한국무용협회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숙 구술·서경숙 채록,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1 (전라북도립국악원 개원 30주년 특별호 : (생애 마지막 구술) 호적 구음 살풀이춤 명무 김숙”, 전북도립국악원, 2016.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장과 전주시지부장을 역임하며 13~15대 한국무용협회 전북지회장으로 있었다. 전국 대사습놀이 무용 부문 심사위원, 전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전라예술제 예술총감독으로 활동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전라북도 문화상, 1990년 전북 예술인의 상, 2005년 전주시민의 장, 2006년 전북예술인상, 2013년 18회 자랑스러운전북인대상 문화예술부문 등을 수상했다. • 2001~2005년 전북무용협회장으로 지역 무용계를 발전시켰고, 1998년 이래 17년 만에 전주에서 개최된 2016년 제24회 전국 무용제 유치에 큰 공을 세웠다. 	
21	김혜미자	전주 (일본)	현대	1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보유자. • 1987년 TV에서 한지 공예를 접한 뒤 서울과 전주, 충남을 오가며 한지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 1993년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95년 제1회 전국 한지공예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 국립미술관에 20여점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색칠첩 및 색실함의 골격, 문양, 색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명인에 이르렀다. • 특히 2007년에 대한민국 장애인 33인에 꼽혀 4대 국새 제작에 참여한 결과, 1,800장의 한지를 겹쳐 국새요석을 재현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그밖에 한지문화진흥원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미령 외(2022),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사업 : 색지장 김혜미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백승현 글·최옥수 사진(2020), “한지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 세계에 전한 한지 공예의 아름다움 -색지장 김혜미자”, 대동문화 118, 76~79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장, 대승한지마을 승지관 관장, 전주한지축제 조직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전주에 마련한 전통한지공예연구실 '이지원' 과 전주권 대학,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후진을 양성했다.	
22	김희순	전주	근현대	1886 (1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군자에 뛰어났던 서화가로서 유당이라는 호를 썼다. • 1925년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4등상을 받았고, 그해 천도교 기념관에서 사군자 60여 점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조선미술전람회 5~12회에 꾸준히 입선했으며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도 입선하여 초기 추천작가를 역임했다. • 1935년에는 전주에서 전라북도 서화가 모임 한목회를 발족시켰다. 거기서 후진을 양성하며 호남과 전북 지역의 서화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타지역 서화기도 전주에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 현존하는 작품은 전북도립미술관, 순천대학교 박물관, 목포대학교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옥, 김소영 편저 (2024), 『호남서화가 사전』, 한국학호남진흥원.
23	김희순	전주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의 여성 건축사 1세대. • 1978년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택공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첫 여성 과장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1990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건축 사업에서 여성 인력이 거의 없었던 1992년 전주에서 율건축을 설립하여 1995년에는 율그룹건축사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사무소로 법인 전환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후 건축사로서 3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며 여성 건축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도모했다. 2013년 4월 전북여성건축가협회 설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명예회장으로 있다. 	
24	나금추 (나모녀)	부안 (강진)	근현대	1938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1호 부안농악 보유자. 1954년 정광수에게 춘향가를, 한진옥에게 승무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소리 공부를 이어가다 1959년 남원여성농악단에 입단했다. 1960년 남원춘향여성농악단과 1965년 아리랑여성농악단 상쇠로 활동했고, 1966년 정읍여성농악단에 입단했다. 1972년 국악협회 전북지부 농악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1978년부터는 전주여성농악단, 호남여성농악단, 정읍여성농악단, 한미여성농악단 상쇠로 활동했다. 1983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에서 장원했고, 1985년 이리농악단 상쇠로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통령상과 개인 연기상을 받았다. 1987년에 전라북도 문화상을 받고 2001년까지 전라북도립국악원 교수로 있었다. 2009년 <호남 우도 농악 천하의 상쇠 나금추> 공연을 올렸다. 2016년부터 부안군립농악단 예술감독으로 있던 중 타계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금추 구술·서경숙 채록(2011),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 :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 7-1호 부안 농악(상쇠) 보유자 나금추”, 전북도립국악원.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25	노영숙	남원	현대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 창단된 춘향여성농악단 마지막 세대의 소고잡이로 있었다. 춘향여성농악단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북 대표팀으로 참가하여 알려졌다. 과거 춘향제 제향부터 길놀이 등의 행사에 참여하고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면서 남원을 알렸다. 여성 농악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며 전국에 여성농악단의 인기를 불러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영숙·권은영(2018), 『향기조차 짙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26	모보경	전주	현대	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 어머니 최승희 명창을 이어 정정렬제 춘향가를 계승했다. 서울국악예고 무용과에 진학하여 시조, 민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펼쳤으나, 1983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며 다시 소리에 집중하면서 1999년 완산전국국악대제전 판소리 부문과 2000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부에서 장원했다. 전북도립국악원 교수이자 정정렬제 최승희 판소리보존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판소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춘향가보유자 모보경전수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0
27	박미애	고창	현대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자수장 보유자. 어머니 최인순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자수에 관심을 보이며 1977년부터 어머니의 공방에서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1983년 한영화, 1987년 한상수 등 무형문화재 스승들에게 전통 기법 등을 배우고 체계화하여 고창 지역에 자수를 전수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종근(2004), 『이태백, 사오정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신아출판사. 백승현·최옥수(2023), “[예도한길] 자수장 박미애”, 대동문화 137, 68~71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기 시작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에 어머니의 공방을 인수받고 고창자수박물관의 공방장과 행정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창전통자수 전수관과 체험장을 운영하며 자수를 활성화하고 전통 자수의 맥을 이어갈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8	박복례	남원	현대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0년 창단된 춘향여성농악단의 열두발상모로 활동했다. 춘향여성농악단은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북 대표팀으로 참가하여 실력을 알렸다. 과거 춘향제 제향부터 길놀이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으며 전국 순회공연으로 남원을 알렸다. 여성농악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며 전국에 여성농악단의 인기를 불러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영숙·권은영(2018), 『항기조차 짚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29	박복실	익산 (인천)	현대	1958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년 익산 섬유공장 태창메리아스에 입사해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활동했다. 1981년에는 태창의 초대 노조위원장이 되었다. 전북 최초의 여성노조위원장으로서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했다. 이에 탄압을 받으며 1982년 간부 7명과 함께 해고됐고 출근투쟁과 단식농성으로 복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다른 공장들에 입사했음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7차례의 해고를 당했다. 1987년부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도내 민주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지원하며 전주노동자의 집과 전북노동조합연합회 지도위원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복실 일지』(1989) https://archives.kdmo.or.kr/isad/view/004420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 활동했다.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타계했다. 	
30	박상희	진안	현대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학생 운동가 출신의 민주화운동 1세대 여성이다. 1974년 한국신학대 재학 중에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7년 징역을 받았다. 출산으로 인한 형 집행정지로 가까까스로 출감된 뒤 1982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1985년 군산 선양동에서 탁아소 '해뜨는 동산'을 운영하며 빈민 탁아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는 전북 지역 여성유권자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아 1988년 전북민주여성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인 전북 지역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전북민주여성회 1-2대 회장을 역임하던 시기에 1991년 1월 남원에서 발생한 김부남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알려 반성폭력 사회 건설에 앞장섰다. 해당 사건 공동대책위 대표를 맡아 김부남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아내고자 1994년 성폭력예방치료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역 교회 목사로 있었다. 	
31	박선옥	부안	현대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9호 가야금 병창 예능 보유자. 14세부터 부안국악원에서 판소리를 배웠고, 1974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선옥가야금병창전수관 : 전북 군산시 팔마로 116 노블칼라현상소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터는 국가무형문화재 박귀희 명창에게 가야금 병창을 배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서울과 2006년 부안에 박선옥국악예술민속연구원을 개원하여 후학을 양성 중이다. 1983년 전국 가야금 병창 대회 성인부 장려상, 1998년 제16회 전국 국악 대제전에서 가야금 병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17회 전국 국악 대제전에서 대통령상, 제10회 서울 국악 대경연에서 가야금 병창으로 장원했고, 2006년 장보고 국악대전에서 국악 지도자 교육상을 받았다. 2008년에는 장보고 국악상을 받았다. 	
32	박순애	전주 (고양)	근대	1900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 정신여학교 재학 중 1919년에 교사들이 만세운동을 벌인 혐의로 압송되는 모습을 보고 만세운동을 함께 하기 위한 동지를 모으고자 전주 기전여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김공순, 김운영, 최근주 등을 만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수업 개시일인 1920년 1월 6일에 거사를 결의했으나, 준비 도중에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붙잡혔다.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나서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징역 6개월로 감형되어 1920년에 풀려났다. 2014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599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ngNo=952989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33	박양덕	남원	현대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범태, 『명인명창』, 김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고흥)			<p>판소리 수궁가 보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습예인 집안 출신으로 농악 상쇠 박태순의 손녀이자, 남도 지역의 피리 명인 박창오의 딸이다. 막내 고모부였던 동초 김연수에게 단가를 배우기 시작하여 11세에는 그의 스승 박복선에게, 18세에는 김소희에게 소리를 배웠다. 13세부터는 창극단에서 활동하면서 박초월와 성우향에게서 계속 소리를 배웠다. • 제17회 남원춘향제 전국 판소리 명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0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과 남원시립국악단 단장을 역임했다. • 2022년에는 국립국악원 개원 60주년 기념 대통령상 표창장을 받았다. • 그 후에도 한국판소리보존회 남원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박양덕 판소리연구소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p>은샘, 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양덕 구술·김정태 채록(2017),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2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수궁가) 예능 보유자 박양덕”, 전라북도립국악원.
34	박영숙	전주 (익산)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중학교를 졸업하고 15살 때부터 섬유공장 하청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2000년부터 전북여성노동자회장을 맡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으며, 지역의 성차별과 성폭력, 빈민권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단체들과 공동연대를 추진하고 주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전주네트워크의 공동대표단으로 활동했다. 그 밖에 전북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 전북노동조합협회 전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주시협의회 선전국장,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위원,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주민통합실현을 위한 전주네트워크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공동대표,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이사,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위원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는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지역의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헌신했다. 2008년 이후에는 상임대표로 추대되었고 오랜 기간 신임을 얻으며 대표로 활동했다.	
35	박현숙 (청해)	전주 (평양)	근현대	1896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3년 평양 송의여학교 재학 중 교사 황애시덕과 출신 교사 김경희, 이효덕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송죽회에 선발되었다. 1915년 졸업 이후 전주 기전여학교의 수학 교사가 되고 제자 임영신, 오자현, 송귀내 등을 규합했다. 교내에 다시 송죽결사대 지부를 조직하며 공주회라는 구국기도회를 가졌다. 교사로 있는 동안 학생들의 사상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함께 3.1 만세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AB0%95%EC%A0%95%EC%88%9C&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2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gNo=8534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36	방애인	전주 (홍하도)	근현대	1909 (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6년 4월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왔다가 사역을 위해 몇 년 떠나 있던 중 기전여학교의 요청으로 19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덕주(2007), 『전주 비빔밥과 성자 이야기』, 진흥출판사.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9월 전주로 돌아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과 기전신성회를 조직하여 신앙생활을 지도했고, 방과 후에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전주 시내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다. 전도 중에 거리에서 만난 고아, 걸인, 환자를 돌보며 거리의 성자라고 불렸다. • 또한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며 고아원 설립기금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다. 전주 고아원의 시초인 전주YWCA 고아원 설립 및 운영하며 금연, 금주, 축첩을 배제하는 여성 계몽 운동 전개했다. • 이후에도 기전여학교와 고아원에서 사역을 병행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별세되었다. • 1999년 완주군 비봉면 전주서문교회 묘지로 이장되었다. 1934년 배은희가 쓴 『조선 성자 방애인 소전』이 출간되면서 방애인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서문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1999),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1893~199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서문교회. • 이덕주(2007),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 흥성사. • 기전 70년사 편찬위원회(1974), 『기전 70년사』, 전주기전여자중고등학교. • 배은희(1934), 『조선성자 방애인 소전』, 전주유치원.
37	방화선	전주	현대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태극선 보유자. • 앞서 태극선 명장이자 무형문화재 1호였던 방충근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부채 제작 경험을 쌓았다. 그러한 가운데 선풍기와 에어컨이 발명되면서 부채가 점차 사양길에 들어섰지만,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부채를 놓지 않았다. 어느덧 아버지에 대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확보하여 2대째 가업을 계승해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선 부채연구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실 1층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38	배분순	남원	현대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여성농악 1세대 남원 여성농악단의 장구로 활동했다. 1959년 남원국악원에서 창단된 남원여성농악단은 전국 최초의 여성농악단으로, 이듬해 전국농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춘향제 제향부터 길놀이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남원을 알렸고, 전국적으로 여성농악이라는 독자적 문화와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5월 남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영숙·권은영(2018), 『향기조차 짙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양옥경(2021),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악사학보 제66집, 159~187쪽.
39	배설향	남원	근대	1895 (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훗날 남편이 된 장판개에게 소리를 배웠다. 창극 활동을 이어가며 1920년 장판개와 전주와 경주권번에서 소리선생으로 지내다가 1935년 순창에 와서 조카 장월중선에게도 소리를 가르쳤다. 1928년 11월 우미관에서 열린 조선명창연주회에 출연, 1929년 2월 강경좌의 빈한형제 구출연주회에 참여했다. 1936년 5월 부산공회당에서의 여류명창대회에 출연, 1938년 3월 부민관에서의 여류명창대회에 김초향과 특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무대에 올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석배(2015), “판소리 명가, 장판개 가문의 예술세계”, 문화와 융합 제 37권 2호, 131~156쪽. 조은정(2016), “유성기 음반에 나타난 남도잡가 음반 연구 : 송기덕·배설향을 중심으로”, 예술논집 18권, 75~96쪽.
40	선화공주	익산	전근대	미상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과 마야부인의 셋째 딸이자, 선덕대왕과 천명공주의 동생이며, 화랑세기에서 등장하는 천화공주의 언니이다. 그런데 무왕왕후로도 추정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진(2004),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학연구 27권, 234~259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분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 의하면 무왕의 왕후는 사택왕후로 기록되었기에, 선화공주의 실존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실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모가 뛰어났던 선화공주를 사모했던 백제의 서동이 서로가 남몰래 만나곤 한다는 서동요를 지어 퍼뜨렸다고 한다. 이에 선화공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되어가던 중 서동을 만나 백제로 가서 왕비가 되었고, 그 자리가 바로 무왕왕후였다. 	
41	설씨부인	전주	근대	1429 (1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문신 신말주가 벼슬을 버리고 향리 순창으로 왔을 때, 부인 설씨는 광덕산에 불사를 세우기 위해 불교 신자 대중의 시주를 권하는 권선문을 짓고 사찰의 설계도를 서화첩으로 만들었다. 해당 문첩은 조선시대 여성 문인이 쓴 필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사대부 집안의 정부인이 불교 인과법에 근거하여 쓴 글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씨부인 권선문 (1981년 7월 보물 제728호 지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식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설씨부인, 신경준 선생 유지 : 전북 순창군 남산길 32-3
42	성준숙	전주	현대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단가와 춘향가 토막소리를 익히며 판소리에 입문했다. 16세에 명창 임방울에게 수궁가를 배웠고, 이일주와 오정숙 명창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동초체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정숙에게 창작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준숙 구술·김정태 채록(2015),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5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성준숙”,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소리 동초제 '유관순 열사가'를 유일하게 전수받은 제자이기도 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년 남원춘향제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1986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1991년 전라북도문화상을 받았다. 2012~2016년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으로 있으며 국악과 판소리 전승에 힘썼다. 	
43	송순이	전주	근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3월 13일, 18세의 나이로 군중에게 태극기를 주고 선언서를 부리며 독립 만세 시위를 하던 중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의 죄목으로 형을 받았다가 기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44	신경숙	정읍	현대	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읍여자중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중편 「겨울 우화」로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아 등단했다. 국내외에서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스타 작가로 도약하여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딴방』 (문학동네, 1995), 『엄마를 부탁해』 (창비, 2008) 외 다수 발표.
45	안숙선	남원	현대	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이자, 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9살에 이모이자 가야금 명인 강순영과 외삼촌 강도근 명창을 통해 소리에 입문했다. 19살에 상경해 만정 김소희, 향사 박귀희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에게 가야금 산조 및 병창까지 두루 사사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숙선명창의여정 전시관 : 전북 남원시 쌍교동 138 최동현(2023), 『안숙선의 판소리』, 민속원. 안시현(2024), “명창 안숙선의 판소리 예술세계”, 문화와융합 제46권 제1호, 1599~1606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여 퇴직할 때까지 200편이 넘는 작품에 주역으로 참여해 큰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춘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무대에서도 가장 많은 판소리 완창 기록을 보유한 소리꾼이 되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86년 남원춘향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1987년 KBS 국악대상을 시작으로 해외 순회 공연들에 초청되며 국내외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과 함께 한국 전통예술인 최초로 프랑스 문예공로훈장오피시에틀, 대한민국 육관 및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2001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성악전공 교수로 임용되어 국내 최초의 판소리 전공 교수로 자리했다. 2013년 퇴임까지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46	양귀자	전주	현대	1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여자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 문예 장학생으로 입학할 만큼 일찍이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하던 1978년에 단편소설 「다시 시작하는 아침」으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이후 국내 스타 여성 작가로 도약했으며, 1988년부터 전북지역 서점 '홍지서림' 대표로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미동 사람들』(문학과 지성사, 1987),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 1992), 『모순』(살림, 1998) 외 다수의 소설 발표.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47	양씨 부인	순창	전근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창 백산리의 대모산성 혹은 백산리산성으로 불리는 산성은, 두 산봉우리를 배 모양으로 감싼 형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려오는 설이 있다. • 삼국시대에 양씨 부인이 살고 있었다. 설씨 총각이 부인에게 결혼을 요구하자, 그녀는 그에게 나막신을 신고 서울을 다녀올 때까지 자신이 성을 다 쌓지 못하면 허락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성돌을 채 올리기 전에 총각이 돌아오자, 부인이 돌을 나르던 치마를 뒤집어쓰고 성벽 위에서 몸을 날려 자결하여 정절을 지켰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산성 / 순창 대모산성 (구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70호, 현 도지정 기념물 제142호)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5번지
48	엄영애	부안	현대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가톨릭농촌청년회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했고, 1977년 국내 최초의 여성농민운동 조직인 한국가톨릭농촌여성회의 창단 멤버이자 초대 총무로 활동했다. • 1985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여성위원장 및 198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을 역임했다. • 1988년 정착한 부안에서 '여성 농민의 집'을 마련하고 1991년 부안군여성농민회를 창립했다. • 1994년 전북여성단체연합 2기 상임의장이 되어 4기까지 역임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회장으로도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영애(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의 숲. • 편집부(2020), “시대를 앞서갔으나 미완으로 끝난 가톨릭 여성농민운동 : 한국가톨릭농촌여성회 초대 총무 엄영애”, 가톨릭 평론 제28호, 191~203쪽.
49	열부 이씨	순창 남원	전근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제학 양수생의 부인으로 임신 중 남편과 사별하자, 이씨를 불쌍히 여긴 부모가 재가를 종용했다. 이를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직제학양수생처열부 이씨려(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2호) : 전북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한 이씨는 아들을 낳고 남편의 흥패와 대제학인 시부의 흥패를 간직하여, 양씨의 고향인 남원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아들 양사보를 길러 가문을 이어갔고 그 뒤로도 자손을 대대로 번창시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후 순창의 남원 양씨를 일약 문벌지족으로 성장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조에 게서 정려를 받았다. 양씨는 지금까지도 약 60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568번지
50	오두희	군산 (전주)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JOC 활동가 이철순과 원풍 모방 부지부장이었던 박순희에게 노동 운동을 배워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발을 들였다. 대학 시절 학생 운동으로 전북 지역 최초의 여성 위장 취업자가 되었다. 수배기간 동안 성당에 숨어 살면서도, 그 전후로 태창메리야스 투쟁과 세풍합판투쟁의 노학에 연대했고, 후레아패션투쟁과 국탈북민연합회에 연대했다. 6·10항쟁과 창인동성당 농성, 원일택시노조투쟁에도 힘썼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유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배에서 풀려났다. 이후 가톨릭 전주교구에서 운영한 군산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이 되었다. 곧 1987년의 노동자 투쟁을 위한 전북 지역 노동자를 조직하던 중, 군산에 노동사목으로 부임했던 인혁당 사건의 문정현 신부를 만났다. 이윽고 문정현과 1997년부터 군산시민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575 (오두희 구술·박종훈 면담(2017). 제주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서의 채록 영상)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임을 시작했다. 이는 SOFA 개정 국민행동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운동의 시초가 되어, 이후 평화바람에서 평화운동을 지속하게 했다.	
51	오정숙	완주 (진주)	근현대	1935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춘향가) 예능보유자 및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동초제 춘향가 예능보유자. 1948년 부친과 국극협단에 입단했고, 1956년 동초제의 창시자인 명창 김연수 선생에게 10년간 동초제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 받는 계승자가 되었다. 1972년부터 국내 여성 명창 최초로 동초제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완창했다. 197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발표회에서 1등 수상 및 1975년 제1회 전주대 사슴놀이 명창부에서 장원했다. 1977년에 국립창극단에 입단하여 뛰어난 실력으로 주요 배역들을 맡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립창극단 지도위원을 시작으로 여러 창극과 판소리 무대, 대학 강단에서 제자를 양성했다. 2005년 국립창극단 원로단원에서 나오며 퇴직하였고 임용 중이었던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출강을 모두 그만둔 뒤로는 완주에서 스승의 호를 딴 동초각 전수관을 지어 후진 양성에 힘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정숙 묘소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773-5 산 107-10 김경희(2015), “오정숙 〈춘향가〉의 음악적 변화와 지향”, 판소리연구 제 39집, 5~35쪽 박정희(2021),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52	유계완	전주	근현대	1916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계완은 요리연구자이다. 그녀는 전주에서 태어나,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북 도 민 일 보 (2021.08.04.)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등학교 때 숙명여자고등보통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일본여자대학 가정학부를 졸업하고 들어와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몸담았다. 1973년에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한국가톨릭여성연합회 회장도 역임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0년대부터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음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단독으로 『계절과 식탁』 책을 춘하추동 4권으로 엮어냈다. •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청와대에서 국민 만찬 메뉴를 구성하고 음식 조리를 전담해왔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1966년 존슨 대통령, 1967년 독일 뢰브케 대통령, 1974년 포드 대통령 등 국빈을 대접했다. 	
53	유영해 (유영애)	남원 (장흥)	현대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 특유의 중고제(서편제) 소리로 알려져 있다. • 13살에 여성 국극을 구경한 뒤 목포에서 활동하던 김상룡에게 판소리를 사사했다. 또 성우향에게 춘향가를, 한 농선에게 흥보가를 사사하며 여성에게 비교적 어렵다는 하성/중화성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84년부터는 사단법인 판소리보존회 이사로 있었으며 해외 순회공연을 다니며 소리의 세계화에 공헌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영애판소리전수관 : 전북 장수군 대성방길 6 • 이석홍 외 편저(2013), 『천부지지 남원 :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남원 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93년부터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과 연을 맺은 뒤 1995년에 수석 단원으로 위촉되어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 전남대 국악과와 남원정보국악고등학교에 출강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등 남원의 국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판소리 전승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장수에 판소리 전수관이 있다. 	
54	유지화	전주	현대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 정읍농악 상쇠 보유자. • 10대와 20대 초에 걸쳐 호남우도농악을 전수받았고 1953년에 입단한 전북여성농악단에서 60년간 단원으로 있었다. • 그 사이에 1968년 전주 아리랑여성농악단과 1984년 서울 유지화농악단, 1990년 전주 충효국악예술단도 창단해 운영했다. 정읍농악단에서는 상쇠를 맡아 호남우도농악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 • 1979년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 장원, 1987년 전라예술회 전북농악경연대회 대상, 1992년에는 다시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받았다. • 이후 정읍사국악원과 정읍우도농악전수관에서 농악을 지도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화 구술, 김무철 채록(2015), “전북의 전통 예인 구술사 14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 정읍농악 상쇠 보유자”, 전북도립국악원.
55	육완순	전주	근현대	1933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이화여대 및 1959년 동대학원에서 (현대)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완순(2003), 『나의 반세기』, 마루(금호문화).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용을 전공했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원과 마사 그레이엄 컨템포러리 무용학교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2년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된 육완순 귀국 무용 발표회를 통해 미국 현대무용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1964~1991년에 이화여대 무용학과 교수로 있었고, 1972년까지도 미국과 서울에서 다수의 발표회를 열고 논문을 집필하면서 교육 무용의 이론화에도 기여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경희(2016), "육완순의 현대무용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제 27권 2호, 115~132쪽. 김태원(2021), "[육완순과 현대무용 (1~5)]", 공연과 리뷰. 편집부(2021), "육완순 선생님 타계 : 육완순과 한국 현대무용의 발전", 공연과 리뷰 통권 제109호, 9~11쪽.
56	윤형숙 (윤혈녀)	고창 (광주)	근대	1900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3월 1일 전남 광주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다. 이후 전남과 함께 1927년 전북 고창 기독교회 등지에서 부녀 야학과 유치원 교사로 교육활동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search.i815.or.kr/dictionary/detail.do?searchWord=%EC%A0%84%EB%B6%81+%EC%97%AC%ED%95%99%EA%B5%90&reSearchWord=&searchType=all&index=1&id=1005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독립운동인명사전)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32601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57	은희경	고창	현대	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중편소설 『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의 선물』 (문학동네, 1995)로 제1회 문학동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주』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여 시작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네 소설상을 수상한 뒤, 여러 문학상을 받은 다수의 작품 발표.
58	이강실	전주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년 전북민주여성회 초대 부회장을 맡았고 1998년 이후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 의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전북 여성 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2000년 9월에 일어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산업 근절을 위한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에 힘을 쏟아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 그 밖에 전북진보연대준비위원장, 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본부 상임대표, 성매매인권지원센터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현재는 전주 교백교회 목사로 있다. 	
59	이경자 (이공주)	익산 (서울)	근현대	1896~ 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불교 초기의 대표적인 여성 교역자로, 중앙총부의 기관과 시설은 물론 서울회관·서울수도원·삼동훈련원·제주국제훈련원 등의 설립과 운영, 재정 지원을 수행하여 원불교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헌하였다. 익산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교감 등을 역임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소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654, 원불교 영모묘원 법훈묘역. 『원불교 제1대 창립유공인 역사』, 『원불교 연혁』 등 편찬 구타원종사기념사업회(2005), 『구타원 이공주 종사 소장 원불교교단사 자료집성』
60	이귀언	전주	현대	1910 (19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 애호가로 1949년에 한성여관을 열었다. 여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니키아 전주한성관광호텔(구 한성여관) : 전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여성국극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찾아온 소리꾼들의 습터이자 배움터로 쓰였다.	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43-3
61	이길주	전주	현대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보유자. • 스승 최선을 통해 한국무용에 입문하였으며, 이추월~최선~이길주로 이어진 기방계 전통춤인 호남산조춤을 계승하게 되었다. • 대한민국 무용제, 이탈리아 시실리아 댄스 페스티벌 등에서 다수 입상하였으며, 현재 호남춤연구회 이사장과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으로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길주 구술·김무철 채록(2019),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28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7호 호남산조춤 예능보유자 이길주”, 전라북도립국악원. • 김미진(2011), “호남산조춤 무보와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 김나경(2021),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무용종목의 계보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 배민지·김미숙(2021), “호남산조춤에 나타나는 한국미 고찰”, 영남춤학회지 9권 1호, 73~98쪽.
62	이매창	부안	전근대	1573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선조 때의 기생으로, ‘매창’이란 관아에서 준 이름 대신에 스스로 지어 붙인 호이다. • 아전 이양종과 관비의 딸로 태어났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는데 한시에 뛰어났다. 가무와 특히 거문고에도 능하여 황진이에 버금가는 명기이자 조선 여류 시인으로 꼽혔다. 당대 최고의 시 비평가였던 허균이 이매창의 작품을 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매창 묘(전라북도기념물 제65호)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매창로 89, 매창공원 내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이 평가했고, 다른 많은 문인들도 직접 찾아와 시를 주고받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에도 부안 아전들이 외워 전한 그녀의 한시 54편을 모아 1668년에 매창집을 간행했다. 	
63	이명자	전주 남원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지역 대학YWCA협의 회장으로 있던 중에 1980년부터 전주YWCA 청소년부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며 활발한 청소년 활동을 펼쳤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원 YWCA를 창립하여 초대 총무 및 이사로 활동했고 199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주 YWCA 위탁 전주시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과 소장을 겸임했다. 1999년부터는 다시 전주 YWCA로 돌아와서 2018년 정년 퇴임 때까지 13대 사무총장으로 있었다. 한편 2010년에 탈북 여성을 지원하는 전북하나센터 센터장으로도 근무했으며, 이 모든 공적을 인정받아 2016년 YWCA 전국회원대회에서 박에스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64	이선수	전주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 보유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스승인 한양수에게 여창가곡과 시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원광대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을 졸업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과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을 이수했으며 국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립국악원 국악경연대회 성악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원광대 국악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전라풍류회 회장과 전북정가진흥회 회장을 역임했다. 우석대, 전주교과대, 전주예술고등학교 등에도 출강하고 있다.	
65	이순이 (류갈다, 유희)	완주 (서울)	전근대	1762~ 18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후기에 완주에서 활동했던 여성 종교인이다. • 1798년 남편 유중철의 시택이 있는 완주에서 동정을 서약하는 조건의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 1801년 신유박해 때 시택식구와 다 같이 체포당하여 차례로 형을 당하게 되었다. • 이순이는 유배지로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압송되었고, 20세에 전주 숲정사에서 참수당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소 : 천주교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람씨는길 87)
66	이옥희 (이일주)	전주 (부여)	근현대	1936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 • 14세에 아버지 이기중의 영향으로 판소리에 입문했다. 당대를 대표했던 박초월과 김소희 명창의 문하에서 사사했고, 동초제의 여류명창 오정숙을 만나 다섯 바탕을 익혔다. 또한 오정숙에게 동초 김연수 바디를 이어받은 2대 전수자로 자리하여 전복을 전전하며 소리를 이어가던 중 전주에 터를 잡았다. • 1979년 동초제 심청가로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도전하여 장원했고 1982년에 전라북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 1984년에는 판소리 심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복순(2008). “판소리 명창 이일주의 생애와 예술”, 고려대 석사논문. • 김예진(2017), “동초제 <흥보가> ‘박타령’ 이면 연구—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 박정희(2021), “동초제 심청가의 전승양상 연구 : 김연수·오정숙·이일주 소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로 전북 최초 무형문화재가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전북도립국악원 창악부 교수로 있었으며, 퇴임하고도 국악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후진을 양성했다. 전주 소리의 발전과 전북을 동초제의 성지로 끌어올린 주역이다. 	
67	이화중선	남원	근대	1899 (1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세에 남원으로 와서 남원 권번에서 판소리를 배웠다. 15세 때 권번 선생의 소개로 장득진의 첩으로 출가했고 17세에 본격적으로 소리를 공부하기 위해 장득진의 고향 순창으로 가서 5년간 수련했다. 23살에 상경해 26살이 된 1924년 조선물산장려회 주최 전국명창대회에서 이름을 알렸다. 1928년 장득진이 사망하자 임실에서 지내던 중 1931년 오수에 사는 이재삼과 재혼했다. 1932년 서울에서 활동을 재개하여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이후 여러 음반 회사에서 많은 음반을 내며 당대의 대중적인 판소리 여류 명창이 되었고 1930년대 판소리 부흥에 이바지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혜진(2003),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생애와 예술성”, 판소리연구 15, 271~296쪽.
68	임덕규	부안 (서울)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재학 중 건대항쟁으로 구속되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농민분과장이 되어 수배자 명단에 올랐던 운동권이다. 총학생회의 여성농민회 간사로 있던 중 1991년 부안에 귀농했다. 2002년부터 부안 여성농업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인센터 설립 대표로 있으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69	임순옥	군산 (진안)	현대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침선장 전통복식 보유자. • 이모이자 스승이었던 서정순 침선장에게 바느질을 배웠다. •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통 화관무 의상을 제작했고,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후에도 전문 공중 의상 복식과 전통 복식 제작에 계속 힘썼다. • 현재 군산에서 임순옥 한복 연구실을 매장 겸 공방으로 운영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순옥 한복 연구실 : 전북 군산시 싸전길 4
70	임영신	전주 (금산)	근현대	1899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 항일 비밀결사대를 조직했다. • 1919년 3월 13일 전주에서 결사대 동지들과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 옥고를 치르고 일본 히로시마기독교여자전문학교에 편입하여 졸업 및 귀국한 뒤 공주 영명여학교와 서울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 1935년 중앙보육학교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교장으로 취임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초대 상공부장관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대학교 초대 총장과 언론사 사장을 역임했다. • 이후로도 각종 교육 및 정치 단체에서 회장과 의원으로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영신(2008),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민지사.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71	장금도	군산	근현대	1928-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8년 남원 송동면 세전리 출생. • 어릴 때 가족 모두 군산으로 이주, 1939년 주식회사 소화권번에 들어간다. 권번은 4년제로 장금도는 예절, 실기, 교양, 언어 등 4가지 수업을 들었다. • 1942년 기생하기증 획득 전라도, 충청도, 서울 등에서 활동했다. • 도금선에게서 살풀이춤을 전수 받았다. 승무와 살풀이춤이 뛰어났으며 서울에서 명창 임방울과 함께 공연했다. 자식과 동생이 장금도의 기생생활을 부끄러워해 1960-70년대 정부의 예인 발굴사업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 정범태가 발굴해 1983년 6월 국립극장 한국 명무전 공연에 참석함으로써 이름을 널리 알렸다. • 2005년 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전무후무' 출연 같은 공연을 프랑스에서도 했다. 2016년 군산시 '향토문화재 제20호 장금도 민살풀이춤'이 지정됐다. 2018년 한국전통문화예술위원회가 장금도의 구술사를 채록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문화재단, 전주 백인의 자화상 DB
72	장봉녀 (성흥도)	남원	근현대	1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여성농악 1세대이자 국내 여성농악의 첫 상쇠이다. • 1959년 남원국악원에서 창단된 남원여성농악단은 전국 최초의 여성농악단으로, 이듬해 전국농악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영숙·권은영(2018), 『향기조차 짙었어라 : 여성농악 예인 구술집』, 민속원. • 양옥경(2021), “농악 공연문화에서 바라본 젠더, 여성, 여성농악”, 한국음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정받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제 제향부터 길놀이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남원을 알렸고, 전국적으로 여성농악이라는 독자적 문화와 흐름을 불러일으켰다. 2024년 5월 남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p>약사학보 제66집, 159~187쪽.</p>
73	장순자	김제 (순천)	현대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살 때 부모를 따라 이사 온 김제에서 살고 있다. 전북민주여성회와 전북여성농민회의 초기 멤버로, 가톨릭농민회 중앙감사를 오래 지내기도 했다. •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황산리 마을에 매연을 일으키는 생수 공장 가동을 그치게 했고, 분진을 야기하는 공장 철거에도 힘을 보탰다. • 1985년에는 부안의 '소값 피해보상 결기대회'에서 투쟁하던 중 연행 및 구류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희진(2023), 『미치도록 눈부시던—1세대 여성농민운동가 구술기』, 말.
74	전옥례	정읍 진안	근현대	미상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 전봉준의 장녀. • 그 일가는 1894년 정읍 산외 동곡리 원동골로 피신했다. 후처 남평 이씨와 자식들과 피신했을 때 둘째 아들이 폐병에 걸리자, 전봉준은 전역을 막고자 18살 맏딸 전옥례를 사찰의 비구니로 보냈다. • 전옥례는 금산사에 머무르다가 마이산으로 들어가 고금당(금당사)으로 피신했다. • 공양주가 되어 7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김옥련으로 개명한 이영찬과 결혼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정수(2021),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해안. • 이이화(2014),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 이이화(2020), 『이이화의 동학농민혁명사 3』, 교유서가. • 조광환 외(2020), 『정읍 동학농민혁명사』,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 조용현(2020), 『조용현의 영지순례』, 불광출판사. • 최현식(1994),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 최현식(2006), 『최현식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까지 이 가계를 모두 숨기고 살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갈채. • 최현식(1984), “천안전씨 옥례여사 묘비문”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산 사기정골)
75	정복수	전주	근대	1903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tion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3486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76	조갑녀	남원	근현대	192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갑녀는 남원 권번의 음악 선생이던 아버지를 따라 여섯 살에 춤과 소리 공부를 시작해 1931년 제1회 춘향제에서 모든 춤의 기본이라 여겨지던 승무를 추며 ‘춤은 역시 조갑녀’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후, 검무와 살풀이춤으로도 남원 일대에서 전설이 되었다. • 19세에 훈인과 함께 출판에서 종적을 감추고 열두남매를 양육했다. 큰 부상에서 회복된 여든 너머의 남은 삶 동안 세월 저편에 묻어두었던 전통춤의 본질을 일깨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른바 ‘민살풀이’를 다시 추기 시작해 제자들에게 물려주었다. • 조갑녀의 춤을 잇기 위해, ‘조갑녀 살풀이 명무관’이 2018년 전라북도 남원시에 개관하였다. 조갑녀의 여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역사 • https://ncms.nculture.org/local-artist • 조갑녀살풀이명무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한북로 2)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째 딸인 정명희씨가 '조갑녀 전통춤 보존회'를 이끌며, 명무관에서 조갑녀 살풀이 공연과 강좌를 진행한다. 명무관에는 무용가 조갑녀의 유품과 공연사진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그의 춤과 인생을 둘러볼 수 있다.	
77	조소녀	전주 (온양)	근현대	1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 20세 무렵 서울에서 박초월에게 단가와 춘향가를 익히며 판소리에 입문했고, 1969년에 전주로 이주하였다. 또 한순서에게 승무를, 오정숙에게 춘향가를, 이일주에게 심청가를 배우며 흥보가도 이어 익혔다. • 44세에 제2회 남도예술제 판소리 특장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46세에 동초제 심청가를, 49세에 동초제 춘향가를 완창했다. 특히 조소녀의 춘향가는 종래의 춘향가를 집대성하여 재창조한 김연수 춘향가의 맥을 잇는다고 평가된다. • 전북대 국악과에서 판소리를 가르쳤으며, 고창 동리국악당의 초대 판소리 강사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완산국제제전진흥회를 설립해 완산국악대제전을 개최했고, 조소녀 판소리 연구소에서 후진 양성 및 동초제 전수에 힘쓰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소녀 구술·김정태 채록(2013),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1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조소녀”, 전북도립국악원.
78	주논개	장수	전근대	1574 (1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왜란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들은 진주 축서루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기생으로서 그곳에 참석한 논개는 울분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개사당/의암사(전라북도기념물 제46호) 및 축석의기논개생장향수명비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41

연 번	이름 (호·필 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참지 못하고 왜장 게야무라 후미스케를 유혹하여 함께 남강에 투신하여 자결했다. 그때 뛰어내린 바위를 훗날 의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노자(2007), “의기(義妓) 논개 전승—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제25집, 229~254쪽. • 정지영(2007),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 : 조선시대 ‘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제23권 3호, 155-188쪽. • 오수열(2016), “의병장 최경희 장군의 생애와 의부인(義夫人) 주논개에 관한 소고(小考)”, 군사발전연구 제10권 제1호, 31~48쪽. • 이화영(2019),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 논문.
79	지성자	전주 (서울)	현대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국내 최초의 가야금산조 인간문화재. • 지영희와 성금연 명인의 딸로, 성금연에게 가야금산조를 전수 받았다. 8세 때 발표회를 시작하여 다수 공연과 연주회에 입상했다. • 1978년에는 동경에 지성자 가야금연구소를 열어 대중적 이니 교육에 힘썼고, 1989년에는 도쿄예술대학에서 직접 가야금을 지도했다. • 1990년 KBS 국악대상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성자 구술·김무철 채록(2015),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17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지성자”, 전라북도립국악원. • 송영국 외(2019),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기록화 사업 : 가야금산조 지성자”,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수상했다. 국내 최초로 15현 가야금을 개량한 연주곡을 작곡하여 가야금산조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현재 성금연가락보존회의 대표로서 성금연류의 법통을 잇고 있다..	
80	진채선	고창	전근대	1842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창 동리 신재효의 문하에서 음률과 가무, 판소리를 배웠다. 풍류와 가곡, 또 무용과 정악에도 두루 능했다. • 20대에 경북궁 경회루 낙성연에서 출중한 기예를 발휘하여 청중을 놀라게 했으며,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았다. 대원군이 권력을 잃은 뒤 행방이 묘연해지며 명성 황후에게 죽임을 당하였거나 멀리 피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여성 명창의 계보를 터준 국내 최초의 여성 명창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노식(1940),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출판부. • 박황(1974),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 최혜진(2017), “진채선의 활동과 가생점고 대목의 의미”, 문학교육학 57권, 153~178쪽. • 진채선 생가터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월등길 70-1
81	최금수	전주	근대	1899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tion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53483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82	최명희	전주 (남원)	현대	1947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부터 1981년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와 서울 보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했다. •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쓰러지는 빛」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82년 동아일보 창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명희(2010), 『흔불』 1~10권, 매안. • 김승종(2018),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최명희의 『흔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통권 48호, 237~259쪽. • 김승종(2019), “전북문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전에 『혼불』 제1부가 당선되며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9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만 7년 2개월 동안 월간 신동아에 『혼불』을 5부까지 연재하며, 국내 월간지 사상 최장 연재 기록을 세웠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남원의 한 가문과 마을의 삶을 다룬 이 대하소설은 1996년 12월에 총 10권으로 묶였다. • 1997년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작가 최명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결성했다. 	학의 지역성, 그리고 공간", 국어문학 제71집, 329~349쪽.
83	최봉선	고창 (정읍)	근대	1881 (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8년 음력 2월 김영백 의 병장 부대에 가담하여 1909년 음력 9월까지 정읍, 고창 등에서 의병으로 활동했다. • 1909년 구수교 노상에서 한인 인부 20명이 정읍 읍내의 벼 20석을 운반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한인 부재지주의 벼 20석을 빼앗아 불태웠다. 또한 고창과 고부를 연결하는 전신주 3개 및 전선을 끊었다. • 1909년 9월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12월에 고부헌병분견소에 자수하였다. 1910년 2월 기물훑기, 폭동 및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살던 중 옥사했다. • 201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12089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84	최봉선	남원 (부산)	근현대	1901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4년 남원권번에 입성한 예기. 열녀 춘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그녀는 남원의 유지들과 춘향사당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제 관헌이 협조하지 않았고, 천한 퇴기의 딸 춘향의 사당 건립은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기금 2백 원을 내놓았으며, 신간회 남원지부 임원 이현순과 남원권번 조합장 이백삼 등과 논의하여 지역 원로들을 설득하고 다른 예기들과 각 면을 순회하며 모금 활동을 벌여 건축비 1천2백 원을 모았다. 1929년 춘향의 생일로 알려져 있는 음력 4월 8일에 준공식을 올렸고, 1931년 6월 3일 춘향사당 낙성식과 제전을 열었다. 그렇게 1931년 제1회부터 1967년 제37회까지 제주를 맡아 춘향제향을 모셨으며, 한국전쟁 때는 춘향의 영정을 주천면으로 옮겨 전쟁의 화마에서 지켜냈다. 최봉선은 일제강점기 1931년 일제가 내선일체를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민족 말살정책을 시작하던 시기, 그에 대항해서 대동단결하며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춘향사당을 건립. 우리나라 최초의 축제인 춘향제를 만들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양오 글·곽정우 그림 (2021), 『백 년 동안 핀 꽃 : 최초의 지역 축제 '춘향제'를 만든 최봉선』, 빈빈책방.
85	최순희	전주 익산 (김제)	현대	1959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 전주여상을 졸업하고 전북대 독어교육과에 입학했다. 1978년 한국기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지역노동열사추모사업회(2005), 『전북지역 노동열사추모자료집 : 노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생화총연맹에서 활동하며 학생 운동을 시작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대 최초의 탈춤반 '민속극연구회'의 창립 일원으로 민주화 운동 학습 소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등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던 중 7월에 체포되어 15일간 수감되었다. 이에 전북대에서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으며, 1981년에는 정보기관의 강요로 지도 휴학을 하게 되었다. • 1982년 복학하여 1984년에 졸업한 뒤, 익산 후레아 패션에 입사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985년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되었고, 전주 경성고무에 입사하였으나 1987년에 또 해고되었다 • 1989년에는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교사 임용 제외자로 분류되어 임용이 거부된 상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타계했다. • 2005년 4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추서되었다. 	<p>동과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호(2009),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도시 경험과 근대 의식의 형성", 지역사회연구 제17권 제2호, 3~26쪽.
86	최애경	전주 (평양)	근대	1909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gNo=953482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87	최은순	군산	근현대	1937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 침선장 기능보유자. 시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솜씨를 인정받아 업으로 삼기 시작했다. 익산에서 한복을 가르치던 중 처음으로 출전한 기능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침선의 길을 걸었다. 1997년 일반인의 생활복식을 조명하는 전통복식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복식사와 출토 복식의 유물 복원을 배워 조선시대의 옷을 복원하기에 전념했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굴건제복을 복원하고 재현했다는 공로가 크다. 2014년에는 태조 이성계의 청룡포를 복원하기에 성공했다. 2015년 본인이 만든 543점의 전통복식과 공예품 등을 전북대에 기증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영주(2024),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26권 1호, 77~98쪽. 이영주(2024), “침선장 최은순의 대수장군(大袖長裙) 제작 연구”, 복식 제74권 2호, 140~155쪽.
88	최요한나	전주	근대	1900 (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9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tion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4414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89	최채선 (최승희)	전주 (익산)	근현대	19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로, 명창 조보경의 어머니. 1954년에 군산성악회(현 군산국악원)의 흥정택을 찾아가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모 선생에게 승무를 익혔다. 이후 김여란에게 영제 시조와 가곡을 함께 배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학연구총서 II : 전북의 판소리』 백은철(2019), “전주지역 판소리의 전승 과정과 양상 연구—전주권변과 전주국악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70집, 23~52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p>박초월의 문하에 있기도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 남원 춘향제 전국명창대회 판소리 부문과, 1981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서 장원했다. 전라북도 부안국악원과 전북도립국악원 판소리 교수로 재직했고 전라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가르치며 후진을 양성했다.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 이사로 있었고, 정정결과 김여란으로 이어지는 춘향가를 가장 온전하게 전승하고 있는 명창으로 평가되고 있다. 	
90	하진순	군산 (남원)	현대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8호 호남넙풀이굿(넙건지기굿) 보유자. 어릴 적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았다. 21살이 되었을 때 법사이자 신장굿의 대가였던 부친 하판계의 권유로 전북 완주 출신의 양영자 무녀로부터 내림굿을 받아 무녀가 되었다. 28세에 조상해원경의 대가 김원식 법사와 넙건지기굿으로 유명했던 양영자 무녀에게 호남 정통 무속 의례를 전수받았고, 조상해원경과 넙건지기굿에 능했던 박복선 법사와 넙건지기굿의 대가 고동심 무녀에게서도 배움을 이어갔다. 1999년부터 호남넙풀이보존회를 조직하여 전통호남굿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진순(2016), “호남〈넙풀이 굿〉의 의식절차 및 선율분석 연구”,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하진순 구술·김무철 채록(2017), “전북의 전통예인 구술사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8호 호남넙풀이굿(넙건지기굿) 보유자”, 전라북도립국악원.
91	한덕세	미국 (무주)	근현대	1894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김형순과 함께 부부 독립유공자로,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희영(2023), “전북 출신 여성 한덕세의 중기주내 활동 연구”, 전북학연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이화학당을 졸업했고 하와이에 이민통역자로 다녀온 김형순과 1909년에 결혼했다. • 1920년 중기주 농장지대 리들리로 이주하여 이화학당 수학선생이었던 김호를 만났다. 김호와 김형순은 과일을 수확하고 포장하여 도매하는 김브라더스를 차려 동업했고, 노동주선소를 함께 운영했다. 한덕세도 김브라더스의 동업자가 되어 함께 경영했다. • 1922년에는 캘리포니아 다뉴버에서 시사연구회 발기인으로 참석했다. 1944년 4월 대한여자애국단 중기주지부 단원으로 참여하고, 11월 재미한족전체대표회에 대한 여자애국단 대표로 활동했다. •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 	구 제10집, 55~79쪽.
92	함연춘	전주	근대	1901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전여학교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여학생들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201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tion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gNo=962648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93	해주오씨	장수	전근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순의 아내로 1597년 정유재란 때 왜병이 집에 침입하여 희롱하자, 가슴을 칼로 잘라 던지고 자결했다. 이러한 열녀의 기상이 전해져 비가 세워지고 마을의 이름도 수열(평)이라고 불리게 되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주오씨 수열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40호 : 전북 장수군 계남면 회음리 920번지 고정마을 입구)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자료 (작품 및 유적 등)
					<p>다. '수열'이란 해주오씨의 열행을 동네에 심었다는 뜻을 지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선조 임금의 손자인 낭선군 우가 해당 비문을 쓰게 되었다. 지금도 수열비 제례 봉행이 이어지고 있다. 	
94	해주오씨	김제	전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안 이희섭의 치료 알려져 있다. 품행이 정숙하여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26세에 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 백방으로 약을 구해 간호했다고 한다. 아들 이기호도 효성이 지극하다는 평이 자자하여, 문중에서 비를 세우게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부 해주오씨 정려 :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고사5길 9 전북 향토문화연구회 (2000), 『전북의 정려-충효열비』, 신아출판사.
95	허산옥	현대	전주 남원 (김제)	1924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난했던 집안 형편을 견디지 못해 16살 때인 1940년 남원 권번에 입소하여, 기생의 이름으로 '산옥'을 얻었다. 19살 때인 1943년 전주 권번에 배정되었으나, 24살 때인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권번 제도도 폐지되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났다. 이후 동광미술연구소와 한목회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아호 램(/남)전을 쓰기 시작했다. 6.25 전쟁 중 전주 전동의 요리집을 인수하여 요정 '행원'을 경영했다. 경영 수익으로 전주 지역 장학 사업을 지속했고 전북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기부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후원했다. 한편 1960년 제9회 대한민국의미술포럼회에서 입선한 이래 제20회까지 15차례 입선했다. 1966년 전북 문화상을 받았으며 1974년부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원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2 김취정(2014), "람전(藍田) 허산옥(許山玉, 1924~1993)과 전주지역", 인물미술사학 제10호, 131~151쪽. 최경현(2014), "람전 허산옥의 팔군자도(八君子圖) 연구", 인물미술사학 제10호, 175~203쪽. 김소연(2014), "람전 허산옥의 채색 문인화조화", 인물미술사학 제10호, 109~130쪽. 권은영(2022), "공연 공간으로서, 요정의 계급적 성격과 문화적 취향—전주의 '행원'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70집, 255~285쪽.

연번	이름 (호·필명)	지역 (출생 지역)	시대	출생 (생몰) 연도	주요 활동	관련 사료 (작품 및 유적 등)
					라북도 미술전람회의 초대 작가로, 1974년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96	(미상)	장수	전근대	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황(1512~60)의 후손이라는 두 정려가 있다.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봉변을 당하고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 들어 목숨을 끊은 이와,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뒤를 따른 이라고 한다. 절개와 지조를 지킨 이들의 행적을 기리고자, 조선 경종 3년(1723)에 정려각이 세워지고 순조 19년(1819)에 고쳐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렬양정씨지려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1호) : 전북 장수군 산서면 계월로 319-23

부 록 2 : 현지조사 면접조사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기관 연구자/담당자 면접조사

- (일시 및 장소) 2024. 11~12월 중
- (목적) 타 지역 여성사 연구 현황 및 특징 분석, 여성사 발간 및 사업화 방안 모색
- (대상) 여성사 연구 유경험자 또는 여성사 사업 운영 유경험자(1년 이상)
 - (면접자) 백미록(연구책임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허명숙·김미선·김혜린 (공동 연구자)
- 질의내용

질문영역	질문내용	비고
각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사업 운영 경험을 포함해 자기소개• 기본 정보(연령, 소속, 여성사 관련 업무 담당 기간)	
여성사 연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지역의 여성사 연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경과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에 반영했습니까?• 귀 지역에서 사업화한 여성사 콘텐츠는 무엇이며, 그렇게 선정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성사 콘텐츠 활용 사업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 지역에서 여성사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시 비용 마련 및 소요 예산- 이용실태(지역사회 관심, 반응), 추후 콘텐츠 업그레이드 여부)- 운영상의 어려움• 최초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역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질문영역	질문내용	비고
연구 및 사업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사업에 대해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한계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거나 모색하고 있습니까? • 여성사 연구 확장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전북여성사 연구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수행 |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책임 |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 허명숙 前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김미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누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수료
김혜린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발행일 | 2024. 12월.
발주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I S B N | 979-11-990857-5-6